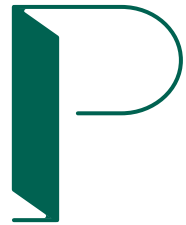


다문화청소년 종단연구 2018

: 신규패널설계보고서

책임연구원 양계민



연구보고 18-R14-1

다문화청소년 종단연구 2018

:신규패널설계보고서

책임연구원_ 양계민(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선임연구위원)

연구보조원_ 김주영(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연구사업운영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국문초록

본 연구원은 2011년부터 다문화청소년 패널조사를 수행하고 있다. 다문화청소년 패널조사(MAPS: Multicultural Adolescents Pannel Study)는 다문화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국내 유일의 종단패널연구로, 다문화청소년에 대한 막연한 고정관념으로부터 벗어나 보다 객관적 시각에 근거한 다문화청소년정책의 방향성 및 정책적 대안마련에 기여해 왔다. 그러나 점차 많은 다문화청소년들이 학교에 진입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기 구축된 자료를 가지고 현재의 다문화청소년들의 현황을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는 현재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새로운 패널을 구축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신규패널의 표본설계, 조사문항설계, 조사방법설계를 추진하였으며, 최종적으로 TAPI 시스템을 구축하여 신규패널 조사에서 보다 최선의 기법을 적용하여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 결과 보다 다양한 유형의 다문화청소년들에 대한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이는 향후 국내 다문화청소년에 대한 다양한 영역의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다문화청소년정책에 대한 학술적 이론적 기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

연구요약

1. 연구목적

- 다문화청소년종단조사 2기 신규패널의 조사표본설계와 조사문항 구성

2. 연구방법

- 문헌연구

문헌연구에서는 첫째, 외국출생다문화청소년 대상 설문문항의 요소를 파악하고자 중도입국청소년이나 외국인가정자녀들의 발달특성을 연구한 선행연구들을 분석하여 주요 관련변인들을 추출하는 데 활용하였고, 둘째, 다문화청소년 종단조사와 유사한 선행패널을 분석함으로써 제2기 조사에 함의점을 도출하고자 함.

- 전문가 자문

전문가 자문은 신규패널 표본설계를 위하여 총 8명의 전문가 자문을, 설문문항 구성을 위하여 21명의 전문가 자문을 받음.

3. 주요결과

1) 표본설계

- 목표 모집단(target population)은 초등학교 4학년에 재학하는 다문화가정 학생들로 국제결혼가정자녀, 외국인가정자녀, 중도입국자녀를 모두 포함함. 조

사 모집단의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서 2019년에 4학년이 되는 현재(2018년)의 초등학교 3학년을 분석대상으로 정의함.

- 표본크기는 국내출생다문화청소년 1,600명, 중도입국청소년 150명, 외국인 가정자녀 250명. 총 2,000명으로 정함.
- 층화변수는 다문화청소년의 유형, 부모의 출신국가, 거주 시·도 등 세 가지임.
- 표본추출은 학교가 단위이고 추출된 학교의 다문화학생 중 2019년 기준 4학년 전수를 대상으로 함. 표본 학교 추출은 각 층별로 랜덤(random)하게 추출하는 층화임의추출법(stratified random sampling)을 적용함.
- 그 외 가중치 산정과 사후관리 지침에 대한 방안을 도출함.

2) 조사문항설계

- 신규패널 조사문항설계의 원칙과 방향은 다음과 같음.
 - 첫째, 1기 다문화청소년패널(MAPS)과의 상호비교가능성을 위한 연계성
 - 둘째, 일반 한국가정청소년들과의 비교가능성
 - 셋째, 새로운 사회환경 변화요인 반영
 - 넷째, 지원정책의 효과성 분석 가능성
 - 다섯째, 국제비교 가능성
 - 여섯째, 간결성(parsimony)
- 다문화청소년 조사문항의 경우는 학교생활, 방과후활동, 진로, 심리·사회적응 및 건강, 문화적응 및 이중문화 등 개인요인에 대한 문항과 부모관계 및 가정 환경, 그리고 지역의지 등 크게 세 가지 영역에 대한 문항을 구성함.
- 다문화청소년의 어머니 조사문항의 경우는 가족 및 배경특성, 자녀교육 및 양육, 심리·사회적응 및 건강, 문화적응, 정책적 지원에 대한 태도 등 크게 다섯 가지 영역에 대한 문항을 구성함.

3) 조사설계

- 조사대상은 2019년 기준 교육통계(교육부)에 집계된 전국의 초등학교 4학년
에 재학 중인 다문화학생과 그들의 학부모임.
- 조사주기는 1기 다문화청소년 패널조사와 마찬가지로 1년을 단위로 매년
조사를 실시할 예정임.
- 신규패널의 조사방법은 최근 들어 대규모 조사에서 선호되고 있는 TAPI
(Tablet Assistant Personal Interview)방식을 적용하고자 함. 이와 관련
하여 TAPI 시스템을 구축하고 시험조사를 완료함.

4. 결론

-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측면의 의의를 지님.
 - 첫째, 기존의 1기 다문화청소년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극복하고 변화된 한국
사회의 다문화지형을 좀 더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함.
 - 둘째, 국내출생 다문화청소년 뿐 아니라 보다 다양한 유형의 다문화청소년들
의 현황파악이 가능한 방식으로 설계함.
 - 셋째, 1기 다문화청소년종단조사 결과와 비교를 통해 다문화청소년들의 발달
환경 등 한국사회의 변화를 비교할 수 있게 설계함.
 - 넷째, 정확한 모집단 정보를 파악함으로써 대표성 있는 표본설계를 함.
- 현재까지 추진한 표본설계와 조사문항설계, 조사설계를 근거로 예비조사를 실
시할 예정이고, 그 결과분석을 통하여 최종조사문항 및 조사방법을 도출함으
로써 차년도 신규패널 조사에 적용할 예정임.

다문화청소년 종단연구 2018

:신규패널설계보고서

연구보고 18-R14-1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
2. 연구의 내용	4
3. 연구방법	9

II. 선행연구 검토

1. 이론적 배경	13
2. 유사패널 분석	27
3. 소결	32

III. 표본설계

1. 표본설계의 개요	37
2. 표본추출	42
3. 가중치 산정 및 모수추정	47
4. 사후관리 지침	51
5. 통계품질관리를 위한 요건	56

IV. 조사문항설계

1. 조사문항설계의 원칙과 방향	61
2. 조사내용 구성의 과정	62
3. 조사문항 도출의 근거	64
4. 조사내용의 영역별 요인	77

V. 조사설계

1. 조사대상 및 주기	93
2. 조사방법	95

VI. 결론

1. 연구의 의의	99
2. 향후 계획	100

참고문헌	105
------------	-----

표 목차

표 Ⅰ-1. 영역별 자문위원 및 주요 내용	10
표 Ⅱ-1. 외국출생 다문화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17
표 Ⅱ-2. 외국출생 다문화청소년의 교육현황	20
표 Ⅱ-3. 외국출생 다문화청소년의 심라사회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22
표 Ⅱ-4. 외국출생 다문화청소년의 문화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24
표 Ⅱ-5. 외국출생 다문화청소년의 진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25
표 Ⅱ-6. 외국출생 다문화청소년 관련 이슈	27
표 Ⅱ-7. 제1기 「다문화청소년 패널조사」 설계	29
표 Ⅱ-8. 2015년 「전국다문화가정실태조사」 설계	30
표 Ⅱ-9. 2017년 「국제결혼중개실태조사」 설계	31
표 Ⅲ-1. 초등학교 3학년 다문화청소년의 시/도별 분포 현황 - 국제결혼 가정의 국내 출생 자녀	39
표 Ⅲ-2. 초등학교 3학년 다문화청소년의 시/도별 분포 현황 - 국제결혼 가정의 중도입국 자녀	39
표 Ⅲ-3. 초등학교 3학년 다문화청소년의 시/도별 분포 현황 - 국제결혼 가정의 외국인가정 자녀	40
표 Ⅲ-4. 초등학교 3학년 다문화청소년의 시/도별 분포 현황 - 다문화 가정 자녀 전체	40
표 Ⅲ-5. 부모의 출신국가별, 시/도별 다문화가정 학생수 현황	41
표 Ⅲ-6. 다문화가정 학생이 존재하는 초등학교 분포 - 초등학교 3학년 기준	43
표 Ⅲ-7. 다문화가정 유형별 표본배분 결과 및 비교	45
표 Ⅲ-8. 다문화가정 유형별 시/도별 표본배분 결과	45
표 Ⅲ-9. 다문화가정 유형별 시/도별 표본 학교 수	46
표 Ⅲ-10. 통계품질 속성	57
표 Ⅳ-1. 신규패널조사의 방향과 1기 패널문항 수정의견	65
표 Ⅳ-2. 중도입국청소년관련 특성	68

표 IV-3. 외국인가정자녀의 특성	71
표 IV-4. 제 3국 출생 탈북청소년들의 특성	75
표 IV-5. 청소년 설문문항의 요인 및 내용	79
표 IV-6. 청소년 설문지의 문항별 출처 및 수정내용	80
표 IV-7. 어머니 설문문항의 요인 및 내용	87
표 IV-8. 어머니 설문지의 문항별 출처 및 수정내용	88
표 V-1. CAPI와 TAPI의 특성 비교	96

그림 목차

그림 II-1. 2016 교육부 기준 다문화학생의 범주 및 정의	13
그림 II-2. 부모배경 및 출생지에 따른 다문화청소년에 대한 구분	14
그림 II-3. 본 연구의 다문화청소년 범주	15
그림 V-1. 1기 다문화청소년종단조사와 신규패널의 조사주기	94
그림 V-2. TAPI 시스템의 구조	95
그림 VI-1. 신규패널설계연구의 추진과정	101

제 I 장 서 론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2. 연구의 내용
- 3. 연구방법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연구의 필요성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는 2011년부터 다문화청소년을 대상으로 다문화청소년 패널조사(MAPS: Multicultural Adolescents Pannel Study)를 수행해 오고 있다. 이 패널조사연구를 수행하는 이유는 최근 들어 우리사회에 등장한 다문화청소년들의 발달에 대한 기초자료를 구축하고 이들의 발달추이를 분석함으로써 다문화청소년에 대한 과학적 정책수립 및 추진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이다(양계민, 강경균, 2017:5). 본 연구에서 2011년 당시 초등학교 4학년이었던 패널들이 2018년 현재 고등학교 2학년까지 성장한 상태로, 당초 2018년까지 계획되어 있었던 조사를 연장하여 24세까지 추적조사를 할 계획이다. 이에 1기 패널 데이터를 통해 후기청소년기 다문화청소년의 발달특성을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점차 많은 다문화청소년들이 학교에 진입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기 구축된 자료를 가지고 현재의 다문화청소년들의 현황을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현재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새로운 패널을 구축하고자 하였다. 2011년 당시 한국의 다문화에 대한 상황과 2018년 상황은 많이 달라졌기 때문이다. 또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제 1기 「다문화청소년

패널조사」의 경우 의도하지 않았지만 결론적으로 국내출생다문화청소년이 대다수를 차지하는데 비해 최근 학교현장에서는 중도입국청소년과 외국인가정청소년 등 외국출생 다문화청소년들의 수가 매년 급격히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패널로 이들 새로운 집단에 대한 설명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점차 증가하고 있는 보다 다양한 다문화청소년들의 특성을 정확하게 반영하는 패널자료를 구축함으로써 다문화청소년들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검증하고 효율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2) 연구의 목적

위에서 제시한 연구의 배경에 근거한 본 연구의 목적은 신규패널 조사표본설계와 조사문항을 구성하는 것이었다.

2. 연구의 내용

1) 문헌연구

문헌연구에서는 두 가지 측면에서 분석이 이루어졌다. 첫 번째로 「다문화청소년 패널조사」와 유사한 국내·외 조사 자료들을 대상으로 표본설계 특징을 분석함으로써 제 1기조사와 비교하여 제2기 조사에 적용할 수 있는 가능성들을 검토하고자 하였고, 두 번째로는 기존의 1기 조사 때 비교적 덜 고려했던 외국출생다문화청소년 대상 설문문항의 요소를 파악하고자 중도입국청소년이나 외국인가정자녀들의 발달특성을 연구한 선행연구들을 분석하여 주요 관련변인들을 추출하는 데 활용하고자 하였다.

2) 다문화청소년 1기 자료 분석

두 번째로는 제1기 조사의 실제 데이터에 입각하여 기존 표본설계 특징을 파악하였는데, 특히, 주요 핵심 변수들의 상대표준오차(relative standard error)를 분석함으로써 기존 표본크기 및 공표 범위의 적절성을 검토하고, 제2기 조사의 표본설계를 위한 근거 자료로 활용하였다.

3) 신규코호트 조사설계¹⁾

(1) 모집단 정의

「다문화청소년 패널조사」의 목표 모집단(target population)은 국제결혼가정의 자녀, 중도입국 청소년, 외국인 가정자녀로, 조사 모집단(sampled population)은 전국 초등학교 4학년에 재학 중인 다문화학생을 조사 모집단으로 하였다.

(2) 표본 추출틀

2011년에 구축한 제1기 「다문화청소년 패널조사」의 표본 추출틀(sampling frame)의 경우 교육부에서 제공한 다문화청소년이 재학하는 전국 초등학교 리스트를 제공받아 활용하였지만, 제한적인 모집단 정보(출신국가, 성별 등 정보 부재)로 표본설계 및 모수추정에 어려움이 있었다. 제2기 조사의 경우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의 협조를 통해 매년 집계하고 있는 교육통계 중 2018년 다문화학생통계를 근거로 학생유형, 출신국가, 성별 통계값을 확보하고 이에 따라 모집단의 포괄성(coverage)과 최신성을 제고하고자 하였다.

1) '3) 신규코호트 조사설계' 부분은 이계오 한국갤럽조사연구소 자문교수가 집필함.

(3) 표본크기의 결정

표본크기의 결정은 제1기 조사의 표본크기를 분석하고, 기대 표본오차 등을 함께 검토하여 층별 공표 가능한 수준의 통계를 생산할 수 있도록 표본크기를 산출하였다. 다만, 조사 예산과 시간 등 조사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여 층별 표본크기를 산출하되, 추정의 정도(precision)를 높이는 최선의 표본크기 결정 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4) 층화(stratification)

모집단의 층화는 모집단의 세부적인 정보가 얼마나 제공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현재 수집한 자료의 경우 i)다문화가정의 유형(국제결혼가정, 중도입국, 외국인가정), ii)외국인 부모의 출신국가, iii)거주 시/도 등 총 세 가지 특성에 따라 층화하고자 하였다. 이를 근거로 모집단의 특성을 잘 반영할 수 있도록 타당성을 검토하고 적용함으로써 추정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5) 표본 배분(sample allocation) 및 추출(sampling)

표본 배분에서는 모집단 층화 결과를 기초로 적절한 배분방법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특히, 비례배분, 변형 비례배분, 제곱근 비례배분 등 다양한 표본배분 방법을 적용하고, 비교 및 검토를 통해 층별 통계 생산 시 가장 안정적인 표본배분 방법을 적용하였다. 표본추출은 기본적으로 층화변수를 이용하며, 여러 가지 표본추출법을 검토하여 모집단과 가장 특성이 유사한 표본이 추출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나, 이와 함께 조사의 효율성 측면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모집단의 특성을 최대한 반영하되, 조사의 효율성도 고려한 표본배분 및 추출을 시도하고자 하였다.

(6) 모수추정(parameter estimation)

각종 모수의 추정은 층화, 집락, 추출방법, 실사 과정을 고려하여, 표본의 복원 가중치를 결정함으로써 얻어진다. 일반적으로 모수추정을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가능하면 자체가중(self-weighting) 설계로 표본설계를 하지만, 모집단의 보조 정보가 존재하는 경우 이를 이용한 사후층화(post-stratification)를 통해서 모수를 좀 더 정확하게 추정이 가능하다. 정확한 보조 정보가 있는 경우에 보조 정보를 추정단계에서 이용하면 추정의 정도(precision)를 상당히 향상시킬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표본의 통계 특성치를 추정할 수 있도록 가중치 산출 방법과 이를 이용한 모평균, 모비율 추정방법, 그리고 이에 대한 정확한 분산 관련 추정량들을 제시하였다.

(7) 사후관리방안

표본설계 후 실제 조사를 하면 모집단이나 표본의 변동, 실사나 데이터 편집, 분석 등에서 설계단계와 다른 여러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아무리 표본설계가 정확하게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조사현장의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여 대처하지 않는다면 추정에서 편향이 발생하게 될 수 있다. 이에 표본설계의 단계에서 이런 점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절한 지침을 마련하고 표본설계의 원칙에 맞게 조사함으로써 조사의 품질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8) 통계품질관리요소 고려

「다문화청소년 패널조사」는 국가승인통계조사로 통계품질과 관련하여 통계청의 관리·감독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제2기 조사의 기획 단계에서부터 결과 공표까지 조사의 모든 단계에서 품질을 관리할 수 있는 지침을 마련하고, 품질관리의 중요한 요소들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설계단계에서 미리 고려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통계품질관리요소를 분석하고 이에 부합하는 설계를 추진하고자 하였다.

4) 신규패널 설문지 개발

2018년 신규패널 연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는 2019년 실시할 설문조사를 개발하고 수정 및 보완하는 작업이었다. 설문지는 1기 다문화청소년 종단조사와 동일한 이론적 현실적 근거에 입각하되 새로운 대상 및 환경적 변화요인을 추가하고자 하였다. 신규패널 설문지 개발 및 수정은 총괄보고서에 제시된 것과 동일하게 첫째, 기존패널과의 동일성 유지, 둘째, 한국가정청소년들과의 객관적 비교가능성, 셋째, 새로운 사회적 변화상 반영, 넷째, 지원정책의 영향분석가능성, 다섯째, 국제적 비교가능, 여섯째, 간명성 지향이라는 총 6가지 원칙에 근거하여 개발하고자 하였다. 신규패널 설문지는 국내출생 다문화청소년용과 외국출생 다문화청소년용 각 1종, 국내출생 다문화청소년의 학부모용 2종(외국인부모, 한국인부모), 외국출생 다문화청소년의 학부모용 2종(외국인부모, 한국인부모) 등 총 6종이 개발되었다. 또한 한국어에 서툰 조사대상자들을 위하여 영어, 일본어, 중국어, 필리핀어, 러시아어, 베트남어의 총 6개 국어로 설문지를 번역하였다.

5) 예비조사를 위한 TAPI 시스템 구축

기존의 1기 다문화청소년패널조사는 CAPI(Computer Assistant Personal

Interview)조사로 진행되었다. 그러나 최근의 조사방법의 변화추세에 따라 신규 패널의 경우 TAPI(Tablet Assistant Personal Interview) 시스템을 구축하였고, 설문지와 마찬가지로 영어, 일본어, 중국어, 필리핀어, 러시아어, 베트남어 등 총 6개 국어로 번역하여 외국어버전을 완료하였다.

3. 연구방법

1) 문헌연구

본 연구는 완전히 새로운 개념의 패널을 구축한다기 보다는 현재 기 구축되어 있는 「다문화청소년종단조사」1기 패널의 이론적 현실적 근거와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완전히 새로운 이론적 근거로 패널을 구성하지는 않는다. 다만 현재의 패널이 지니고 있는 한계를 극복하고 좀 더 현실을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신규패널의 목적이었다. 따라서 다문화청소년에 대한 일반적인 문헌연구는 이미 1기 조사 때 실시하였고, 당시에 달리 외국출생다문화청소년집단에 대한 설계를 구상하는 만큼 중도입국청소년과 외국인가정자녀들의 발달특성에 대한 최신 논문들을 추가로 분석하였다. 이와 더불어 신규패널 설계를 위하여 유사조사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2) 전문가 자문회의

신규패널 관련 전문가 자문회의는 다음과 같이 총 7회에 걸쳐서 실시하였다. 첫 번째로 신규패널 설계와 관련한 회의는 통계조사 전문가 총 7명을 대상으로 2차례에 걸쳐서 실시하였고, 설문지 구성을 위한 고려사항을 파악하기 위하여 4차례의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하였으며, 최종 도출된 설문지(안)를 가지고 1차례의 검토회의를 가졌다. 영역별 자문위원과 주요 내용을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표 1-1. 영역별 자문위원 및 주요 내용

목적	자문위원	주요내용	일 시
신규패널 설계	- 유○구(한국직업능력개발원) - 박○호(부경대학교) - 이○재(한국방송통신대학교) - 주○선(한국여성정책연구원) - 박○오(통계청 통계대행과) - 임○수(통계청 통계개발원) - 이○오(한국갤럽조사연구소)	신규패널구축방안 (대상범위, 모집단구축, 비교집단, 표본크기, 통계청 승인 등)	2.13
	유○구(한국직업능력개발원)	오버샘플링관련 자문	7.3
신규패널 설문문항 구성	- 신○옥(중앙새일지원본부) - 전○숙(평택대학교) - 허○경(무지개청소년센터) - 허○연(수원시글로벌청소년드림센터)	신규패널 개발의 원칙과 방향, 조사대상집단구성	5.4
	- 이○원(교육부 교육기획보장과) - 김○진(교육부 교육기획보장과) - 김○희(교육부 교육기획보장과)	신규패널문항관련 교육부 의견수렴	6.26
	- 오○배(동아대학교) - 김○우(공존플랜) - 김○미(군서초등학교) - 오○석(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 이○화(안산글로벌청소년센터)	조사에서 고려해야 할 외국인가정청소년의 발달특성	6.28
	- 유○아(평택대학교) - 강○아(시흥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 최○미(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 민○원(한국직업능력개발원)	조사에서 고려해야 할 중도입국청소년의 발달특성	7.4
	- 조○경(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과) - 황○아(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과) - 김○소(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과)	신규패널문항관련 여성가족부 의견수렴	7.4
	- 윤○석(공존플랜) - 장○숙(남북하나재단) - 주○화(거례열학교)	조사에서 고려해야 할 탈북청소년의 발달특성	7.3
	- 강○아(시흥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 허○연(수원시글로벌청소년드림센터) - 김○우(공존플랜)	1차 설문도출(안) 검토	7.27. ~ 7.31



제II장 선행연구 검토

- 1. 이론적 배경
- 2. 유사패널 분석
- 3. 소결



1. 이론적 배경

1) 다문화청소년의 개념

본 연구에서 ‘다문화청소년’은 본인 또는 가족이 이주의 배경을 지닌 청소년기 연령(청소년기본법기준: 9세-24세)으로, 법적인 용어라기보다는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의미에 근거한 정의라고 볼 수 있다(양계민, 강경균, 2017:21). 지금까지 수행된 제 1기 다문화청소년의 개념은 사실상 교육부의 기준에 근거하여 국제결혼 가정자녀 중 국내출생자녀와 중도입국자녀, 그리고 외국인가정자녀라는 세 가지 유형에 근거하여 연구가 추진되었고, 조사설계의 표집도 이 범주에 근거하여 설계되었다.

국제결혼 가정자녀	국내출생 자녀	■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 배우자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
	중도입국 자녀	■ 결혼이민자가 한국인과 재혼한 이후에 본국에서 데려온 자녀, 국제결혼가정자녀 중 외국인 부모의 본국에서 성장하다가 청소년기에 입국한 자녀 등
외국인가정자녀		■ 외국인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

* 출처 : 양계민, 강경균(2017: 22) 그림 II-2

그림 II-1. 2016 교육부 기준 다문화학생의 범주 및 정의

본 연구에서 정의하는 다문화청소년은 위의 교육부의 정의와 거의 일치한다. 다만 최근 들어 다문화청소년들의 지형이 매우 다양해져서 위의 틀로 범주화 하는데 한계가 있다. 물론 세분화하자면 끝도 없겠으나 가장 대표적인 예가 외국인가정 자녀 중에서 국내에서 출생한 사례이다. 이들을 기존의 외국인가정자녀의 범주에 넣었을 때, 외국에서 출생한 외국인동포 자녀들과 매우 다른 특성을 지니고 있어 기존의 틀로 보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이점까지 모두 고려하여 조금 더 세분화할 수 있다.

즉, 다문화청소년을 부모의 배경과 출생지 요인으로 총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한국인과 외국인 결혼가정의 국내출생자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국내출생다문화청소년이고, 한국인과 외국인 결혼가정의 외국출생자는 중도입국 청소년으로 분류된다. 이에 비해 외국인과 외국인이 결혼한 가정의 경우 종전에는 외국에서 출생하여 입국한 외국인가정자녀라는 하나의 집단으로 인식했으나, 외국인과 외국인이 결혼한 가정의 국내출생자 집단도 분명 존재하고 이들 집단이 얼마나 되는지는 정확히 추정하기 어렵다. 현장전문가들에 따르면 외국인가정 자녀 중 국내출생자들은 생각보다 많고, 집단구성도 매우 다양한 집단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 네 가지 유형별로 다문화청소년 집단을 범주화함으로써 보다 다양한 집단을 포함시키고자 하였다.

	한국인과 외국인 결혼가정	외국인과 외국인 결혼가정
국내출생	■ 국내출생다문화청소년	■ 국내출생외국인가정자녀
외국출생	■ 중도입국청소년	■ 외국인가정자녀

그림 11-2. 부모배경 및 출생지에 따른 다문화청소년에 대한 구분

개념적으로는 위의 네 가지로 구분되나 설문조사지 개발의 시각에서는 아래와 같이 재범주화가 가능하다. 크게 국내출생자와 외국출생자로 나뉘고 국내출생 중에서는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 배우자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국내출생다문화 청소년), 외국인사이에서 출생한 자녀(국내출생외국인가정자녀)로 구분 할 수 있다. 이에 비해 외국출생다문화청소년의 경우 결혼이민자가 한국인과 재혼한 이후 본국에서 데려온 자녀(중도입국청소년), 외국인사이에서 출생하여 입국한 외국인 가정자녀로 구분할 수 있다.

출생지	부모의 배경
국내출생	■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 배우자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
	■ 외국인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
외국출생	■ 결혼이민자가 한국인과 재혼한 이후에 본국에서 데려온 자녀
	■ 외국인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

그림 II-3. 본 연구의 다문화청소년 범주

본 연구의 다문화청소년 개념은 위의 네 가지 범주의 청소년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며, 반드시 학교에 다니는 청소년만을 개념화하지는 않는다. 다만 현재로써 학교밖 다문화청소년들의 모집단 수를 파악하기 어려운 관계로 명확한 모집단 분포를 가지고 있는 교육부 자료를 기초로 패널을 구축하고자 하였다.

2) 다문화청소년의 발달특성

다문화청소년의 발달특성에 대해서는 이미 2011년 1기 패널 구축 당시 검토하였고, 2017년도에도 최신 자료를 중심으로 검토 및 분석결과를 제시한 바 있다(이와 관련된 내용은 「다문화청소년 종단조사 및 정책방안연구V」 총괄보고서 25쪽부터 64쪽에 걸쳐서 자세히 제시되어 있다).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는 신규패널에 새로이 포함될 중도입국청소년과 외국인가정자녀에 대한 발달특성에 대한 추가분석만을 제시하였고, 국내출생다문화청소년의 특성에 대한 내용은 다시 제시하지 않고 설문지 문항구성에만 반영하였다. 분석결과, 중도입국청소년과 외국인가정자녀의 특성에 대한 연구는 국내출생다문화청소년에 대한 연구와는 다소 다른 측면들을 다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영역별 선행연구의 결과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학교생활적응

중도입국청소년과 외국인가정자녀의 학교생활에 대한 주요 결과들을 보면, 한국어의 수준이 매우 중요하다는 결과가 일관적이다. 즉, 한국어의 수준은 한국생활 적응 뿐 아니라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기에 이들의 적응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한국어능력이 핵심적인 요인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청소년의 한국어수준 뿐 아니라 부모의 한국어 능력도 중요한 요인으로, 부모의 한국어 능력이 자녀의 한국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외국에서 입국 후 자신의 연령에 맞는 학년으로 들어간 것과 낮추어서 들어간 것 사이에 거의 차이가 없어서 학년을 낮추어서 들어간다고 학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고되고 있었다. 또한 학교에서의 따돌림 등 학교폭력이 중도입국청소년 및 외국인가정자녀의 학교생활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와

더불어 교사요인 역시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외국출생 다문화청소년들의 경우 가장 시급한 것이 한국어능력 강화이며, 이들의 학교적응, 나아가 한국사회적응을 위해서는 한국어 수준제고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함을 시사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표 II-1. 외국출생 다문화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논문	주요결과
강대중 (2013). 중도입국 학생의 학교생활 분석. 한국실과교육학회지, 26(2), 215-234.	*출신국가에서 중학교 졸업을 하지 못한 학생이 많았으며, 출신 국가 학교에서 학업성취도 수준은 중위권이 많았음. *한국어 일상 대화 수준은 '어느 정도 한다'는 학생들이 많았는데 가정에서 사용하는 언어는 한국어와 출신국가 언어를 혼용하는 가정이 많음. *고등학교 졸업의 필요성을 학생들은 강하게 인식하고 있으나 한국어 수준과 학업성취도 격차로 일반 고등학교 진학대신 고등학교 수준의 대안학교 진학을 원하거나 출신국가로 잠시 되돌아가서 고등수준의 교육을 마친 후 다시 한국으로 되돌아오겠다는 의견도 있음.
권보근, 장인실 (2017). 중도입국 청소년의 학교 적응 요인 연구. 학습자중심 교과교육연구, 17, 51-73.	*중도입국 청소년들이 학교 적응하는 데에 필요한 중요 요인 : 의사소통, 생활적응과 학습적응, 관계형성 *한국어 능력이 다문화 예비학교 적응에 큰 영향을 줌. *중도입국 청소년은 본인의 학령에 맞는 인지적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학습 한국어가 부족하기 때문에 학습의 공백이 생김
김현철, 박혜랑 (2016). 중도입국 다문화학생의 학년배치. 교육학연구, 54(1), 259-286.	*자기연령에 맞는 학년에 들어간 것에 비해 낮은 학년으로 취학한 효과가 초등학교와 중학교, 국어, 수학, 영어 과목 모두에서 전혀 없음. *이주민을 많이 수용하고 있는 대부분의 국가들에서 적용하는 연령기준의 학년배치가 필요. *중도입국청소년의 학업수행을 위해서는 학교 내에 별도의 지원 체제를 운영하는 것이 필요.
이남주, 김민 (2017). 고려인 중도입국청소년의 학교생활 경험에 대한 내러티브 탐구. 다문화교육연구, 10(1), 141-170.	*한국어 구사 한계로 인한 의사소통의 문제는 학교생활 전반에 걸쳐 나타남. *또래와의 관계에서 한국어 부족, 문화적 차이로 인하여 친밀감을 형성하지 못함. *교사와의 관계에서 친절함은 일시적이었으며 교사의 지나친 배려는 점차 무관심과 무시로 느껴짐.

논문	주요결과
	*학업성취관련 본국에서 우수한 학교성적을 경험하였으나 한국에서의 낮은 성적으로 인하여 좌절감을 갖게 됨.
이유신, 김한성 (2014). 중도입국 아동·청소년의 차별경험과 학교생활부적응: 교사지지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학교사회복지, 29, 263-282.	*이주아동의 차별·따돌림 경험이 학교생활부적응의 주요 원인으로 나타남. *교사의 지지는 학교생활부적응에 유의미한 중재효과, 학교생활 적응을 돕는 중요한 역할.
이혜원, 이해영 (2012). 이주노동자 자녀의 학교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민주사회와 정책연구, 22, 132-161.	*이주노동자 자녀의 아버지가 한국인 경우, 부모와 함께 살고 있는 경우, 비밀을 말할 수 있는 한국인 친구가 있는 경우, 한국의 상급학교에 진학하고자 이주한 경우, 사회성이 높은 경우는 학교생활 적응 수준이 더 높음. *이주노동자 자녀가 남학생인 경우, 연령이 높은 경우, 수도권 지역에 살고 있는 경우, 비자문제가 있는 경우, 학교폭력피해경험이 있는 경우는 학교생활 적응 수준이 낮음. *비교적 어린 이주노동자 자녀의 학교생활 적응 수준이 더 높게 나타남. *부모의 한국어능력이 부족하지 않다고 응답한 경우, 부족하다고 응답한 경우보다 학교생활 적응 수준이 이 더 높게 나타남.
고남정, 오성배 (2016). 학교 재학과 학교 밖 기관 이용 여부가 중도입국 청소년의 한국어 능력에 미치는 영향. 교육문화연구, 22(4), 271-289.	*학교에 재학 중인 중도입국 청소년의 한국어 능력이 가장 높았으며, 학교 밖 중도입국 청소년의 한국어 능력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임. *학교에 다닐수록, 여자일수록, 어머니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아버지와와의 관계가 긍정적일수록, 아버지의 자녀에 대한 교육기대 수준이 높을수록 중도입국 청소년의 한국어 능력이 높음.
권미경, 이소연 (2017). 중도입국청소년의 한국어학습 동기와 학업성취에 관한 질적 연구. 새국어교육, 110, 147 -181.	*통합적 동기가 도구적 동기보다 학업 성취에 큰 영향을 줌. *확실한 목표(귀화시험, 대학입학)와 통합적 동기를 가질 때 가장 높은 학업성취도 보임.
김미강 (2018). 중도입국 청소년의 문화적응이 한국어 숙달도와 학업 성취도에 미치는 영향. 이중언어학, 70, 29-57.	*중도입국 청소년들의 학업성취도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한국어 숙달도임. *한국문화에 동화될수록 한국어 숙달도가 높아지고 학업성취도도 따라서 높아짐.
김영란 (2013).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에 나타난 초 6 다문화 가정	*읽기 영역에서 국내출생과 중도입국 집단의 우수학력 학생은 전체 학생과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정답률을 보임. *반면, 외국인가정의 우수학력 학생은 절반 이상의 문항에서 전

논문	주요결과
학생의 국어과 학업성취도-국내 출생, 중도입국, 외국인 가정 학생을 중심으로. 국어교육학연구, 48, 125-151.	체 학생보다 낮은 정답률을 나타냄.
이효인 (2015). 중도입국 자녀 대상 한국어 교육 연구: 전남 지역 현황과 과제를 중심으로. 호남문화연구, 58, 307-331.	*한국어 교육이 중도입국 자녀를 대상으로 효과적으로 이루어지 지 못함. *중도입국 자녀의 공교육 진입 유도를 위한 제도 필요. *세밀한 한국어 교육과정(KSL)의 설계 필요. *다문화 배경 학습자 전문 교원의 양성을 위한 교사 연수 프로그 램이 필요, 교사가 학급에 필요한 교육 자료를 개발할 수 있도록 실용적이고 직접적인 교원 연수 프로그램을 구성해야 함. *중도입국 자녀(다문화 배경 학습자 포함)를 대상으로 그들의 한 국어 능력을 평가하는 평가 도구의 개발이 필요.
조은희, 오성배 (2017). 중도입국청소년의 한국어 능력과 정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교육문화연구, 23(5), 499-516.	*중도입국청소년의 한국어 능력과 정서의 평균이 국내 출생 다문 화가정 청소년의 한국어 능력과 정서의 평균에 비해 유의미하게 낮음. *중도입국청소년의 한국어 능력은 아버지와의 관계 만족도가 높 고, 여성일 경우, 연령이 낮을수록, 희망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높음. *중도입국청소년의 정서수준은 아버지와의 관계 만족도가 높을 수록, 희망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높음.
홍중명 (2016). 한국어 (KSL) 교육과정 운영 체계와 중도입국 학습자의 특징. 국제한국어교육학회 국제학술발표논문집, 2016, 72-76.	*중도입국청소년은 대개 한국에 입국하기 전 짧게는 수개월에서 길게는 수년 동안 한국 거주 부모와 떨어져 있는 경우가 많음. *초기 한국생활에서 학교 기관에 원활한 연계가 이루어져 체계적 인 한국어교육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이들의 한국생활의 성 패를 가늠 하는 결정적 요인. *90% 이상의 중도입국 청소년이 한국에 영주할 계획이 있음. *KSL운영 문제 : 교육과정 운영교 선정기준 문제, 대상 학습자 문제, 평가체계 구축 문제, 담당 교원의 역할 정립과 전문성 함양 문제 등.

(2) 교육실태 및 현황

두 번째로 외국출생 다문화청소년에 대한 연구의 중요한 결과는 주로 중도입국

청소년의 교육현황을 다루고 있는 연구들이다. 연구의 주요 결과를 보면 역시 한국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데, 한국어가 중요한 만큼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한국어교육은 중도입국청소년들의 한국어능력을 향상시키기에는 부족하다는 것이 연구자들의 평가였다. 또한 사실상 거소증명만으로 입학이 가능하다고 되어있지만 외국인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즉, 위에서 말한 미등록 아동의 경우 입학이 어려워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중도입국청소년, 외국인가정자녀 등의 교육을 학교 내에서 모든 교사가 함께 지도하는 것이 아니라 전담교사 한명에게 맡기고 있는 상황이라 담당교사의 업무가 과중하고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상황도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전문가들이나 학교교사들 사이에서 실제 많이 언급되는 사항으로 외국출생 다문화청소년의 교육실태에 대한 현황조사도 필요한 부분으로 생각되었다.

표 II-2. 외국출생 다문화청소년의 교육현황

논문	주요결과
김명정 (2011). 동반·중도입국 자녀들을 위한 다문화교육. 교육문화연구, 17(2), 55-76.	*현재 다문화교육은 결혼이주가정 자녀들의 교육에 치우침. *언어적·문화적 적응교육이 시급히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교육기관 부족 *조기 적응교육, 교육기회 평등을 위한 구체적 대안 요구.
류영철 (2016). 중도입국 학생을 위한 다문화 교육의 효율적 방안. 다문화와 평화, 10(1), 72-102.	*중도입국 학생의 언어문제와 학력 저하로 인한 문제 해결을 위해 통합 교육을 기반으로 한 공립학교 설립이 전국적으로 필요. *정기적인 심리상담교육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며 1:1 맞춤형 진로교육이 필요. *공교육 편입제고를 위한 네트워크 시스템과 파트너십을 구축해야 함. *이중 언어강사제도 개선 및 교원 연수가 강화되어야 함.
맹재숙, 박수정(2017). 중도입국학생의 공교육 진입 지원을 위한 교육 계획 분석: 네트워크 텍스트 분석을 활용하여. 글로벌교육연구, 9, 35- 60.	*학교에서는 ‘한국어 능력’과 ‘문화 적응력’이 중도입국학생의 학교생활 적응의 주요 요인으로 인식되고 있음. *상담은 중요한 교육 활동으로 계획되고 있음.
서은숙 (2016). 중도입국 (이민) 청소년 다문화	*한국 조기 적응을 위한 통합교육과 학교 다문화교육은 체계적이지 못하고, 단편적임.

논문	주요결과
교육. 윤리연구, 106, 275-304.	*일회성 한국어 교육 및 한국 문화 체험 등에 그치고 있음. *이주배경 청소년 가운데 중도입국청소년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이 한국의 전반적인 이민 정책의 큰 틀 안에서 이루어져야 함. *단계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 *정부 부처간 지원정책의 구분과 특징적이고 차별적인 지원이 부처별 이루어져야 할 것임.
류방란, 오성배, 박균열, 송인영, 박지은 (2011). 외국출생 동반입국 청소년을 위한 교육복지 정책 방안 (2011 연구보고서 15-4),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국내 거주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학교에 입학/전학이 가능하나, 외국인 등록번호가 없는 이주아동은 학교교육 기회 획득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따름. *학교 입학 관련 정보 획득에 어려움 *법적 지위 불안정요인이 학교 진입을 어렵게 함. *대안학교는 교사의 근무 조건이 열악, 질 높은 프로그램을 제공하기에는 물적인 기반이 약함. *중도 동반입국 청소년을 위한 정책 방향 : 교육권의 실질적 보장, 통합성 추구, 반차별 다문화교육 확산 등.
배은주 (2006). 이주노동자 자녀들의 교육복지 실태와 주요 쟁점. 아시아교육연구, 7(4), 49-85.	*담임교사는 특별학급 교사로서 자부심과 아쉬움을 모두 가지고 있으며, 외국인가정 자녀의 급속한 유입 및 동료 교사와의 협력적 관계 미흡 등으로 인한 어려움을 느끼고 있음. *학급 담임교사는 외국인가정 자녀에 대한 학습 지도의 어려움을, 외국인 강사는 시간제 근무 환경의 어려움과 비효율을 주로 언급.
설규주 (2017). 외국인 가정 자녀의 학교교육 실태와 개선 방향 모색을 위한 기초 연구. 교육연구, 68, 113 -150.	*교사가 경험하는 어려움 : 외국인가정 자녀의 급속한 유입, 동료 교사와의 협력적 관계 미흡, 외국인가정 자녀에 대한 학습 지도의 어려움, 외국인 강사의 경우 시간제 근무 환경의 어려움, 비효율성 *외국인가정 자녀 교육에 대한 관점과 방향의 전환, 교사와 학부모의 소통 강화를 위한 원어민 강사 지원, 교육 당국 수준에서의 외국인가정 자녀용 수업 보조 자료 개발, 외국인가정 학생을 위한 기초교육 전담기구 운영 등이 필요.
오성배 (2011). 외국인 이주 노동자 가정 자녀의 재학 학교 특성에 따른 교육 지원 실태와 문제 탐색. 순천향 인문과학논총, 29, 245-281.	*전반적으로 교육 지원은 열악한 실정, 특히 일반 정규 학교에 재학하는 경우 국제결혼 가정 자녀와 별도로 이루어지는 교육 지원은 찾아보기 어려움. *외국인근로자가정자녀특별학급 : 전담 교사 한 명에게 교재 개발, 수업 진행, 개별 상담 등의 활동이 모두 떠맡겨진 상황 *재한외국인학교 : 출신국과 한국의 언어와 문화를 모두 익힌다는 장점이 있지만, 재정과 교원의 안정적 확보가 어려운 상황임. *전반적으로 학교에 입학(편입)할 기회가 부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학교 진입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음

(3) 심리·사회적응

외국출생 다문화청소년에 대한 심리사회적응을 다룬 연구들은 대부분이 중도입국청소년의 적응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중도입국청소년들의 심리·사회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부모요인이 큰 것으로 보인다. 즉, 한국 입국 전에 부모와의 별거경험, 복잡한 가족관계, 부모님에 대한 자긍심, 부모님의 재혼, 가정의 경제적 수준 등이 중도입국청소년의 심리적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또한, 본국과의 단절 등 갑작스러운 환경변화와 취약한 생활 등 환경적 변화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특히 중도입국청소년의 심리·사회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지각된 차별감이 등장하는데, 이는 매우 중요한 요소로 본 연구에서 중요하게 다룰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표 II-3. 외국출생 다문화청소년의 심리·사회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논문	주요결과
고은혜, 배상률 (2017). 부모와의 별거경험이 중도입국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24(4), 211- 232.	*입국 전 부모와의 별거기간은 중도입국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부(-)적 영향을 미침. *입국 전 부모와의 별거기간이 한국에서 형성된 가족환경에 대한 인식을 매개로 중도입국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침. *또래애착, 한국문화/사회에 대한 태도, 가정의 경제적 수준 역시 중도입국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침.
김용란 (2016). 중도입국 청소년의 생활 및 적응 실태에 관한 토론. 한국가족사회복지학회 학술 발표논문집, 2016(1), 53- 56.	*중도입국청소년의 적응상의 어려움은 탈북청소년과 제3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가 경험하는 언어, 사회 심리적 어려움, 학습 공백에 의한 기초학습능력 부진, 정체성의 혼란 등과 상당 부분 일치함.
박미정 (2017). 중도입국청소년과 비다문화청소년의 사회적응력 비교 연구: 자아탄력성의 조절효과 검증을 중심으로. 다문화와 평화, 11(3), 51-64.	*중도입국여부와 사회적응은 부적상관 관계. *자아탄력성이 높을수록 적응을 잘함.

논문	주요결과
박성옥 (2016). 중도입국 청소년의 조기적응 프로그램 운영 실태 사례 및 발전방안 연구. 다문화교육연구, 9(3), 83-105.	*조기적응 프로그램의 대상이 초·중·고등학생으로 함께 참여하고 있음 → 아이들의 이해 수준과 집중도 차이로 인한 어려움 존재 *조기적응 프로그램의 문제점 : 법과 제도 및 질서에 대한 교재 내용 이해의 어려움, 한국 사회 정보에 대한 이론적인 이해의 어려움, 교육 내용을 이수하기에 너무 많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어 시간의 부족함.
엄명용 (2013). 다문화가정 중도입국청소년의 한국 사회 적응 영향 요인. 한국가족복지학, 42(12), 39 -82.	*중도입국청소년들은 대체로 자신들이 처한 상황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면서 한국사회에서 비교적 적극적으로 잘 적응하고 있음. *일부 부적응을 경험하고 있는 중도입국청소년들은 복합적 부모 관계를 가진 가족적 배경을 갖고 있었으며 가족과 사회로부터 소외되고 있음.
오승환, 좌현숙 (2015). 중도입국 청소년과 일반 다문화가족 청소년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비교. 학교사회복지, 32, 385-412.	*중도입국청소년의 우울수준을 높이는 변수 : 부모님에 대한 자긍심, 사회적 차별 경험에 대한 인식정도. *중도입국청소년의 우울수준을 낮추는 변수 : 아버지와와의 관계 만족도, 형제관계 만족도, 한국어 사용능력, 외국계 부모님 출신국 언어능력.
이은미, 김성수 (2012). 정서·행동장애 중도입국 다문화청소년의 시계열적 자기이야기 (self-narrative) 분석. 발달장애연구, 16, 171-193.	*어린 시절 가정해체를 경험하고, 어머니의 재혼으로 한국입국. *갑작스럽게 언어와 문화, 생활환경이 변화되어 자신의 정체성 혼란과, 불투명한 장래에 대한 불안을 호소함. *취약하고 불안정한 삶 속에서 사회적으로 차별되고 배제되지 않도록 한국적 적응을 위한 다각적인 교육적 지원이 요구됨.
정희정, 김소연 (2014). 다문화가족 중도입국자녀의 사회연결망에 관한 사례연구: 청소년 상담지원체계를 중심으로. Korean Journal of Family Welfare, 19(4), 831-853.	*중도입국 청소년이 본국 가족과의 단절되는 경험은 새로운 가족 관계를 형성하는 데 있어 심리적 어려움으로 작용할 수 있음. *중도입국자녀의 초기 사회연결망은 부모의 사회연결망과 거의 일치 함.
이춘양, 박미숙 (2017). 후기청소년기 중국계 중도입국청소년 체류경험에 관한 연구. 다문화와 평화, 11(3), 160-178.	*중도입국청소년들의 한국 체류 동기 : 엄마와 함께 살고픈 마음, 새 아빠에 대한 기대, 중국에서 혼자 생활하는 것이 싫음, 또 자신의 새로운 꿈을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 등. *한국 체류의 어려움 : 국적취득에 대한 어려움, 비자로 인한 경제활동의 제한, 한국인들의 차별적인 대우, 한국생활에 대한 정보의 부재 등. *한국체류에 대한 지원요구 : 초기 입국자에 대한 고려, 연동이 안 되는 중도입국 청소년 관련 프로그램, 진로와 관련한 다양한 정보제공, 일할 수 있는 기회제공 등.

(4) 문화적응

중도입국청소년의 문화적응 문제는 정체성과 문화적응스트레스를 다루고 있는데, 대부분 한국인이라는 확실한 정체성을 지닌 국내출생다문화청소년과 달리 일정 기간 외국에서 성장하여 한국에 입국한 중도입국청소년들의 경우 모국문화 정체성을 지니기도 하면서 동시에 한국에서 어떤 집단에 소속감을 가져야 하는지 혼란을 지니기도 하고, 한국사회에 서둘러 동화되어야 한다는 강박관념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김기현 등(2013)의 연구에서는 초기적응 프로그램들이 언어지원 위주로 편성되어 있음을 지적하면서 심리정서영역도 포괄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두 개 연구는 2012년과 2013년의 결과로 거의 5년, 6년 전의 현상이다. 현재의 상황은 반드시 그렇지 않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 문화적응과 관련하여 중요한 두 가지 요인에 대해 조혜영(2012)은 체류신분의 불안정으로 인한 심리적 어려움과, 한국인으로부터 받는 편견의 시각과 비하의 말로 상처를 받게 되고 그 결과 한국사회 구성원으로 동일시하는 것이 어렵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학교생활적응에서도 역시 한국인으로부터 받는 차별적 행동의 문제가 제기된 만큼 차별경험 요인을 포함시킬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였다.

표 II -4. 외국출생 다문화청소년의 문화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논문	주요결과
김기현, 이재희, 홍혜미 (2013). 결혼이주 가정 및 중도 입국 청소년들의 민족 정체성 탐색과 형성. 사회복지연구, 봄, 165- 192.	*중도입국 청소년들은 한국사회에 서둘러 동화해야 한다는 강박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음. *초기 적응 프로그램들이 언어지원 위주로 편성되어 있음. 심리 정서 영역도 포괄해야함.
조혜영 (2012). 중도입국 청소년의 정체성 형성과정 및 적응지원 방향 모색에 관한 연구. 청소년복지연구, 14(4), 311-335.	*모국문화 정체성 및 모국어 유지 어려움 *어떤 집단에 소속감을 가져야하는지 혼란 *체류 신분 불안정 *편견, 비하 등으로 한국사회구성원으로 동일시가 어려움

(5) 진로

외국출생 다문화청소년의 진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역시 중도입국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대부분인데, 진로에 있어서도 중요한 요인은 역시 한국어인 것으로 보인다. 기본적으로 한국어실력이 있는 경우 교육과 취업이 모두 가능하고 한국사회 적응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또 다른 중요한 요인이 학부와 교사의지지 등 중도입국청소년을 둘러싼 지지집단의 영향이다. 조혜영과 양계민(2012)의 연구에서는 중도입국청소년들이 진학의지나 진로포부가 높아도 학교 진학에 대한 준비가 미비하고 이에 대한 제도적 뒷받침이 되어 있지 않으며, 가정 형편상 저임금 단순노동으로 인하여 학업에 방해를 받는 등 본인들의 의지와 포부를 달성할 수 없는 환경에 놓인 경우가 많음을 시사하였다. 따라서 진로교육이나 취업교육 보다는 보다 근본적으로 자신의 진로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조성이 먼저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표 II-5. 외국출생 다문화청소년의 진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논문	주요결과
박지윤 (2011). 중도입국 다문화가정 자녀를 위한 통역 보조교사제에 대한 제언. 이화여대 논집, 29, 103-125.	*진로성향의 차이를 낳는 중요한 요인으로 부모의 관심과 지원, 학력, 외국 인포래와의 교류경험과 한국인포래와의 교류경험, 그리고 한국어능력 정도 및 체류기간에 따른 한국과 한국직업에 대한 이해 정도가 발견됨.
배상률 (2016). 중도입국 청소년 실태 및 자립 지원 방안 연구 (연구보고 16-R04).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중도입국 청소년들은 교육과 취업에 있어 자신의 부족한 한국어 실력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음. *중도입국 청소년 10명 중 7명은 한국 입국 전 부모님과 떨어져 지낸 경험이 있으며, 3년 이상 떨어져 있었다고 응답한 청소년들은 42% 임. *개인적으로 고민하는 이슈로는 진로문제(54%)가 가장 많았고, 돈 문제와 목표의식 부재가 그 뒤를 이음. *한국에 자발적으로 입국한 청소년들이 비자발적으로 입국한 청소년보다 진로정체감 및 자아존중감 모두 높게 나타남.

논문	주요결과
	*교사의 지지와 어머니와의 관계가 좋을수록 진로정체감이 높고, 또래 및 부모와의 긍정적인 관계가 자아존중감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침.
서덕희, 조은혜 (2017). 중도입국청소년의 진로성향과 그 생태학적 조건에 대한 탐색. 교육문화연구, 23(1), 217-247.	*중도입국청소년의 진로성향은 자기주도 현재형, 자기주도 미래형, 타인주도 현재형, 타인주도 미래형으로 나뉨. *진로성향의 차이를 낳는 중요한 생태학적 조건으로 부모의 관심과 지원, 학력, 외국인또래와의 교류경험과 한국인또래와의 교류경험, 그리고 한국 어능력 정도 및 체류기간에 따른 한국과 한국직업에 대한 이해 정도임.
조혜영, 양계민 (2012). 중도입국청소년 학업 실태 및 진로포부에 대한 탐색적 연구. 청소년복지연구, 14(3), 141-168.	*중도입국청소년들의 진학의지, 진로포부는 높으나 비자문제, 학교의 준비미비 및 수동적 반응 등 외부조건 때문에 욕구실현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학교적응에 영향을 주는 요인 : 제도적 지원 미비, 본국에서 형성된 생활습관, 진로지원 및 취업지원 이루어지지 않음, 가정형편, 친구의 영향, 저임금·단순노동·과로가 학업방해 등.

(6) 기타

마지막으로 외국출생 다문화청소년과 관련된 이슈로 인권문제나 사회적 차별과 편견의 문제 등이 중요한 요인으로 제시되는데, 앞의 학교적응이나 심리·사회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서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난 바 있다. 또한 미등록 이주아동에 대한 권리를 다룬 정상우와 박지인(2018)의 연구에서는 미등록이주아동의 열악한 상황에 대해 이들의 교육권과 건강권에 대한 보장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는데, 현재 우리 사회의 다문화청소년들 중 국내출생 다문화 청소년에 대한 지원과 관심이 주를 이루었다고 한다면, 이제 점차 다양한 이주배경의 청소년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발달현황을 파악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표 II-6. 외국출생 다문화청소년 관련 이슈

논문	주요결과
손영화, 박봉수 (2015). 학교 밖 중도입국청소년의 인권에 관한 사례 연구. 교 육문화연구, 21(1), 75-102.	*생활문화적 현실에 존재하는 인권문제에는 상호작용 부재에서 오는 문제, 상호문화 불이해로 인한 문제, 경제적 결핍으로 인한 문제, 사회적 차별과 편견으로 인한 문제가 있으며 시간이 갈수록 심화됨. *제도적 현실에서 생기는 인권문제에는 학제 차이에 의한 인권문제, 체류 신분상에 의한 인권문제, 부모와 분리되어 인한 인권문제 등이 존재
신상록 (2016). 학령기 중 도입국자녀 실태와 비자제도 개선 방안. 한국지방정부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399-419.	<비자제도 개선방안> *후견인 제도 도입 *포인트 제도 도입: 이민자의 노력에 의해 좋은 체류자격을 얻는 것 *적극적 이민정책 반영: 국익에 도움이 되면 과감히 추진 *육성형 이민정책으로 포용: 외국인 근로자나 유학생을 우수인력으로 성장시켜 활용 *미숙련 외국인 노동자의 대체 인력으로 활용 *가족이민으로 받아들이는 방법 *체류자격 완화 사례를 적용하는 방법
윤향희, 김경제 (2016). 중도입국청소년을 위한 청소년복지지원법의 개선방향. 유럽헌법연구, 20, 353-388.	*청소년복지지원법에 중도입국청소년의 물질적·경제적 복지에 관련된 근거조항, 심리상담이나 교육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음. *중도입국청소년 가족에 대한 경제적 지원 강화되어야함.
정상우, 박지인 (2018). 이주아동 권리보장을 위한 입법 필요성과 과제. 다문화사회연구, 11(1), 261-293.	*이주아동 정책의 기본 원칙으로 아동 중심의 차별금지원칙 실질화가 이루어져야 함. *미등록 이주아동과 부모에 대한 체류자격 부여가 검토되어야 함. *이주아동에 대한 교육권의 의무와 건강권 보장이 이루어져야 함. *이주아동의 권리를 포괄하는 독립된 법률 제정보다는 개별 법률에서 '아동'의 권리를 보편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해야 함.

2. 유사패널 분석²⁾

다음으로 본 절에서는 본 연구의 주요 목적인 신규패널 표본설계에 앞서 제1기 「다문화청소년 패널조사」 표본설계의 특징을 살펴보고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하여

2) '2. 유사패널 분석' 부분은 이계오 한국갤럽조사연구소 자문교수가 집필함.

국내의 「다문화」를 주제로 한 유사 조사들을 검토하였다.

1)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제1기 「다문화청소년 패널조사」

2011년부터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제1기 「다문화청소년 패널조사」의 설계를 요약하면 다음 <표 II-7>과 같다. 제1기 「다문화청소년 패널 조사」는 모집단을 국내출생다문화청소년으로 한정된 것은 아니나 결과적으로 중도입국가정 청소년과 외국인가정 청소년이 제외되었다. 당시 표집과정에서 다문화청소년의 유형별 통계정보를 보유하지 못했기 때문에 유형별 비율을 고려하지 않고 당시 ‘초등학교 4학년에 재학 중인 다문화청소년’으로 모집단을 정의했기 때문이다. 그 결과 다문화청소년의 대다수를 차지한 국내출생 다문화청소년이 대거 표집되었고, 중도입국청소년이나 외국인가정자녀는 거의 표집에 포함되지 못했다. 그 숫자 자체가 2018년 현재에 비해 훨씬 적었기 때문이다.

또한, 당시 표본 추출틀은 2011년 4월 기준 16개 시/도 교육청에서 제공한 다문화가정 해당 학생이 존재하는 학교 리스트를 활용하였으나 학생들의 세부 정보인 출신국가 부재로 출신국가 변수를 층화변수로 활용하지 못했다. 다만, 전체 4,452명의 조사 모집단 학생 중 1,635명의 패널이 구축되어 추출률이 36.9%가 되었고, 따라서 표본의 대표성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모수추정의 경우 매년 모집단 정보의 부재로 주요 특성별 사후 층을 반영한 가중치가 산출되고 있지 않고 단순 집계 결과를 공표하고 있어 추후 교육부 등 관련 유관 기관과 협조하여 모집단 정보 획득의 필요성이 있으며, 정확한 모수추정을 위한 개선이 필요하다.

표 II-7. 제1기 「다문화청소년 패널조사」 설계

구 분	내용
최초 작성연도	□ 2011년
조사주기	□ 1년
모집단	□ 국내 거주하는 다문화가정의 초등학교 4학년 학생 및 학부모 (국제결혼 가정)
표본 추출틀	□ 16개 시/도 교육청에서 제공한 다문화가정 해당 학생이 존재하는 학교 리스트(2011년 4월 기준)
표본크기	□ 1,625가구 □ 다문화청소년과 그들의 어머니를 함께 조사(matching sample)
층화	□ 16개 시/도
표본배분	□ 비례배분
표본추출	□ 층화확률비례추출(stratified probability proportional sampling)
조사방법	□ 조사원의 가구방문 면접조사 □ CAPI(Computer Assisted Personal Interviewing)
조사도구	□ 구조화된 조사표
모수추정	□ 단순 집계

* 출처: 양계민, 김승경, 박주희 (2011). **다문화가정 아동·청소년의 발달과정 추적을 위한 종단연구 I**
 양계민, 김승경, 김윤영 (2012). **다문화가정 아동·청소년의 발달과정 추적을 위한 종단연구 II**
 통계청 (2018a). 통계설명자료, 통계별설명자료조회, **다문화청소년패널조사**.
<https://meta.narastat.kr/metascv/index.do?confmNo=402003&inputYear=2018.10.21> 검색.

2) 여성가족부,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여성가족부의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는 다문화가족의 실태, 사회통합도 등을 조사하여 다문화가정지원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다문화가정 지원법 제4조에 의거, 2009년부터 3년 주기로 실시되고 있으며, 통계청으로부터 국가통계로 승인받았다(승인번호 : 제117079호). 「전국다문화가정실태조사」의 설계를 요약하면 다음 <표 II-8>과 같다.

표 II-8. 2015년 「전국다문화가정실태조사」 설계

구 분	내용
조사 목적	□ 다문화가정의 실태, 사회통합도 등을 조사·분석하여 다문화가정지원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
최초 작성연도	□ 2009년
조사주기	□ 3년
모집단	□ 결혼이민자 및 귀화자(다문화가정지원법 상 다문화대상자)와 해당 가구 및 가구원(만 9세~24세 청소년)
표본 추출틀	□ 가족관계등록, 주민등록자료, 외국인등록자료(2014년 11월 기준)
표본크기	□ 17,849가구
층화	□ 행정 동·읍·면
표본배분	□ 제급군 비례배분
표본추출	□ 이중추출법(1단계 집락계통추출, 2단계 층화계통추출)
조사방법	□ 조사원의 가구방문 면접조사
조사도구	□ 구조화된 조사표
모수추정	□ 복합표본설계에 적합한 모수추정식 적용

* 출처: 정해숙, 김이선, 이택면, 마경희, 최윤정, 박건표, 동제연, 황정미, 이은아 (2016). 2015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분석 (연구보고 2016-03). 서울: 여성가족부.
 통계청 (2018c). 통계설명자료, 통계별설명조회,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https://meta.narastat.kr/metasvc/index.do?confmNo=117079&inputYear=2015>. 2018. 10. 19 검색

「전국다문화가정실태조사」의 모집단은 결혼이민자 및 귀화자(다문화가정지원법 상 다문화대상자)와 해당 가구이며, 조사 대상은 결혼이민자·귀화자와 그의 배우자 및 만 9~24세 청소년 자녀이다. 표본 추출틀은 2014년 11월 기준 가족관계등록, 주민등록자료, 외국인등록자료를 결합하여 구성하였다. 표본 추출틀의 구성 측면에서 모든 행정자료를 활용하기 때문에 모집단의 포함률이 매우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제2기 「다문화청소년 패널조사」를 위해 「전국다문화가정실태조사」의 표본 추출틀을 활용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으나 각 행정자료 관리 주체별로 정보 제공

가능성(개인정보제공)이 낮으며, 「다문화청소년 패널조사」의 특성 상 특정 연령에 해당하는 가구의 추출, 현장조사의 난이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경우 표본 추출틀로서의 활용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조사 대상에 9-24세 청소년이 포함되고, 해당 청소년들의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조사 항목이 별도로 구성되어 있어 조사 내용을 참고할 수 있다. 주요 조사항목은 가정생활, 성장 배경과 학교생활, 정서 및 사회생활, 진로 및 교육지원, 경제활동 분야이다.

3) 여성가족부, 「국제결혼중개실태조사」

여성가족부의 「국제결혼중개실태조사」는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거하여 국제결혼중개업의 운영실태 및 이용자 생활, 피해사례 등 국제결혼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2014년부터 3년 주기로 실시되고 있으며, 통계청으로부터 국가통계로 승인받았다.(승인번호 : 제154017호)

「국제결혼중개실태조사」의 설계를 요약하면 다음 <표 II-9>와 같다.

표 II-9. 2017년 「국제결혼중개실태조사」 설계

구 분	내 용
조사 목적	□ 국제결혼중개업의 운영실태 및 이용자 생활, 피해사례 등 국제결혼 실태 파악
최초 작성연도	□ 2014년
조사주기	□ 3년
모집단	□ 지난 3년간 결혼중개업체를 통해 결혼한 한국인 명부와 외국인 배우자
표본 추출틀	□ 17개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국제결혼중개업체 이용자 리스트
표본크기	□ 국제결혼중개업체 220개

	□ 국제결혼중개업체 한국인 이용자 1,010명 및 그 배우자 514명
총화	□ 4개 권역(수도권, 영남권, 호남권, 충청/강원권) □ 배우자의 출신국 정보를 분류지표로 활용
표본배분	□ 비례배분
표본추출	□ 국제결혼중개업체 : 전수조사 □ 이용자 : 유의추출
조사방법	□ 조사원의 가구방문 면접조사
조사도구	□ 구조화된 조사표
모수추정	□ 복합표본설계에 적합한 모수추정식 적용

* 출처: 설동훈·한건수·박순영·심경섭 (2017). 2017년 국제결혼중개업 실태조사 연구
통계청 (2018b). 통계설명자료, 통계별설명자료조회, **국제결혼중개실태조사**.
<https://meta.narastat.kr/metascv/index.do?confmNo=154017&inputYea> 2018. 10. 21 검색.

「국제결혼중개실태조사」의 모집단은 지난 3년간 결혼중개업체를 통해 결혼한 한국인 명부와 외국인 배우자이며, 조사 대상은 정의된 모집단과 동일하다.

표본 추출틀은 17개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국제결혼중개업체 이용자 리스트이다. 「국제결혼중개실태조사」는 결혼중개업체의 운영실태와 이용자들의 생활, 피해 사례 등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제2기 「다문화청소년 패널조사」에 특별히 적용할 설계 내용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3. 소결

지금까지 본 연구의 이론적 배경을 살펴보았다. 우선 첫째로, 중도입국청소년과 외국인가정자녀 등 외국출생 다문화청소년의 발달과 한국사회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선행연구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기존의 1기 패널이 주로 다루고 있는 국내출생 다문화청소년들과는 차별화되는 변인들이 도출되었고, 이를 신규패널 조사문항설계에서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예를 들면, 중도입국청소년이나 외국인가정청소년들의 한국어능력, 한국어, 한국에 오기 이전

의 학교경험, 한국 입국 후 학교 경험, 국적취득 희망여부, 향후 한국거주 희망여부, 부모님과 떨어져서 산 기간 등은 국내출생 다문화청소년들에게는 불필요하고 적용되지 않지만 중도입국청소년들에게는 발달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매우 중요한 변인들이다. 이에 선행연구를 통해 중도입국청소년들과 외국인가정 청소년 등 국외에서 출생한 다문화청소년들의 발달양상을 파악할 수 있는 요인들을 추가로 도출하였고 이를 1차 설문문항 구성에 적용하였다.

둘째로, 신규패널 조사설계와 관련하여 국내의 유사패널을 분석하였다. 첫 번째로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제 1기 다문화청소년 패널조사」, 여성가족부의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그리고 여성가족부의 「국제결혼중개실태조사」를 살펴해보았는데, 분석결과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1기 다문화청소년패널조사의 경우는 본 신규패널 설계의 기초가 되는 조사로 1기 다문화청소년패널조사의 한계를 보완하는 방향으로 신규패널을 구축할 수 있다. 여성가족부의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의 경우는 다문화청소년종단조사의 대상과 중복되는 대상이 발생할 수 있으나 모집단이 결혼이민자 및 귀화자로 다문화가정지원법 상 다문화대상자와 해당 가구 및 가구원으로 다소 제한적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다양한 배경을 지닌 다문화청소년을 포괄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와 차별성을 지닌다. 마지막 국제결혼중개실태조사는 지난 3년간 결혼중개업체를 통해 결혼한 한국인과 외국인배우자가 그 대상으로 자녀에 대한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국제결혼중개업의 운영실태나 피해사례 등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와의 관련성은 찾아보기 힘들다.

따라서 이러한 이론적 배경과 기존의 선행조사들을 기초로 신규패널의 시사점을 도출하여 조사문항도출과 조사표본설계에 적용하고자 하였다.



제Ⅲ장 표본설계

- 1. 표본설계의 개요
- 2. 표본추출
- 3. 가중치 산정 및 모수추정
- 4. 사후관리 지침
- 5. 통계품질관리를 위한 요건



1. 표본설계의 개요

1) 『다문화청소년 패널조사』의 개요 및 표본설계의 필요성

『다문화청소년 패널조사』는 우리나라 다문화청소년의 발달 및 성장과정을 종단적으로 추적하여 보다 실효성 있는 다문화청소년을 위한 지원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수집을 목적으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2011년부터 매년 시행되는 조사로,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다문화청소년을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는 조사이며, 국가적·사회적 중요성으로 다문화가정지원법 제4조를 근거하고 있다. 이 조사는 2013년 4월 통계법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에 의거한 승인통계(승인번호 제402003호)로 승인되었다.

2011년 당시 초등학교 4학년 다문화청소년을 대상으로 패널 구축 및 1차 조사가 실시되었으며, 2018년 현재 8차 조사가 진행 중이다. 2011년 당시 초등학교 4학년이 학교를 다니던 시기와 2018년 현재 초등학교 4학년이 재학하고 있는 한국의 다문화적 상황은 매우 달라서 신규패널을 구성하여 현재 패널과 세대별 비교 분석을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기존 패널의 한계(다문화청소년 부모의 국적별 구성비, 비교집단 부재)를 보완할 수 있는 신규패널 설계를 기획하였

3) 3장은 이계오 한국갤럽 자문교수가 집필함.

다.

본 표본설계 연구에서는 2019년에 신규 코호트(cohort)로 진행 예정인 다문화 청소년의 다양한 모집단 자료의 체계적인 분석을 통해, 다문화청소년들의 모집단 특성을 파악하고, 이를 표본에 잘 반영할 수 있는 표본추출법을 적용하여 모집단을 대표할 수 있는 표본을 추출하여 패널을 구성함으로써 조사결과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높이하고자 하였다. 또한, 설계효과(design effect)를 반영하는 가중치 산출, 표본설계에 적합한 모수추정식 연구와 통계품질관리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제1기 「다문화청소년 패널조사」의 경우 모집단 정보 부재로 모수추정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간의 노력으로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의 협조로 신규 코호트 설계를 위한 모집단 정보를 획득하여 정교한 표본설계가 가능하게 되었다. 본 절에서는 제2기 「다문화청소년 패널조사」의 대표성 있는 표본설계에 대한 내용을 세부적으로 연구한다.

2) 모집단 정의 및 표본규모

본 조사의 목표 모집단(target population)은 초등학교 4학년에 재학하는 다문화 가정 학생들로 국제결혼가정, 외국인가정, 중도입국에 해당하는 모든 학생들로 정의한다. 조사 모집단의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서 2019년에 4학년이 되는 현재의 초등학교 3학년을 분석대상으로 정의하고, 이들의 시/도별 분포 특성을 다음 〈표 III-1〉 ~ 〈표 III-4〉에 요약하였다. 조사대상인 초등학교 3학년의 다문화가정 학생수는 전체 17,134명이고 이 중에서 남학생과 여학생은 각각 8,805명(51.4%)과 8,329명(48.6%)이다. 다문화가정 특성별로는 국제결혼가정의 국내 출생 자녀가 14,163명으로 82.7%를 차지해 가장 많으며, 그 다음으로는 외국인가정이 2,069명으로 12.1%이고, 국제결혼가정의 중도입국 자녀가 902명으로 5.3%를 차지하고 있다.

표 Ⅲ-1. 초등학교 3학년 다문화청소년의 시/도별 분포 현황 - 국제결혼가정의 국내 출생 자녀

구분	남자	여자	합계
전국	7,299	6,864	14,163
서울	762	696	1,458
부산	347	337	684
대구	235	242	477
인천	366	344	710
광주	209	163	372
대전	193	132	325
울산	212	178	390
세종	49	33	82
경기	1,510	1,393	2,903
강원	249	225	474
충북	306	316	622
충남	529	517	1,046
전북	437	451	888
전남	541	505	1,046
경북	592	566	1,158
경남	643	658	1,301
제주	119	108	227

표 Ⅲ-2. 초등학교 3학년 다문화청소년의 시/도별 분포 현황 - 국제결혼가정의 중도입국 자녀

구분	남자	여자	합계
전국	458	444	902
서울	81	88	169
부산	26	16	42
대구	12	18	30
인천	42	38	80
광주	5	7	12
대전	8	6	14
울산	6	9	15
세종	2	2	4
경기	162	144	306
강원	6	6	12
충북	12	15	27
충남	21	26	47
전북	14	8	22
전남	14	13	27
경북	11	12	23
경남	25	24	49
제주	11	12	23

표 III-3. 초등학교 3학년 다문화청소년의 시/도별 분포 현황 - 국제결혼가정의 외국인가정 자녀

구분	남자	여자	합계
전국	1,048	1,021	2,069
서울	255	288	543
부산	23	11	34
대구	16	31	47
인천	85	59	144
광주	18	26	44
대전	6	10	16
울산	20	12	32
세종	3	1	4
경기	437	393	830
강원	1	9	10
충북	34	27	61
충남	58	43	101
전북	9	14	23
전남	8	13	21
경북	28	30	58
경남	40	33	73
제주	7	21	28

표 III-4. 초등학교 3학년 다문화청소년의 시/도별 분포 현황 - 다문화가정 자녀 전체

구분	남자	여자	합계
전국	8,805	8,329	17,134
서울	1,098	1,072	2,170
부산	396	364	760
대구	263	291	554
인천	493	441	934
광주	232	196	428
대전	207	148	355
울산	238	199	437
세종	54	36	90
경기	2,109	1,930	4,039
강원	256	240	496
충북	352	358	710
충남	608	586	1,194
전북	460	473	933
전남	563	531	1,094
경북	631	608	1,239
경남	708	715	1,423
제주	137	141	278

다음 <표 III-5>는 부모의 출신국가별, 시/도별 학생수의 분포 현황을 정리한 것이다.

표 III-5. 부모의 출신국가별, 시/도별 다문화가정 학생수 현황

구분	일본	중국	중국 (한국계)	대만	몽골	필리핀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전국	719	3,878	1,575	60	391	1,602	6,287	192	70
서울	135	686	420	13	62	146	434	11	3
부산	44	133	36	3	9	89	324	3	3
대구	8	115	39	3	11	27	253	2	6
인천	30	334	73	8	19	53	221	12	4
광주	13	70	18	0	13	44	172	4	0
대전	16	69	19	0	7	35	142	3	5
울산	10	88	44	2	12	27	204	3	3
세종	5	8	12	0	2	6	47	0	0
경기	181	1,170	547	16	119	323	984	59	27
강원	22	75	41	1	7	67	193	6	2
충북	21	122	38	3	27	73	327	11	2
충남	39	233	65	2	17	164	516	15	4
전북	41	189	48	1	13	134	382	11	1
전남	57	137	47	2	30	160	537	18	3
경북	30	178	52	2	20	94	706	11	5
경남	51	201	60	1	21	115	760	21	2
제주	16	70	16	3	2	45	85	2	0

구분	남부 아시아	중앙 아시아	미국	러시아	유럽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기타	합계
전국	613	617	130	285	80	45	26	564	17,134
서울	66	41	33	26	13	15	8	58	2,170
부산	36	18	7	21	4	4	2	24	760
대구	33	24	5	10	1	0	0	17	554
인천	32	64	6	29	5	7	1	36	934
광주	19	39	1	9	2	1	1	22	428
대전	13	13	9	4	4	1	1	14	355
울산	14	7	1	4	4	0	1	13	437
세종	2	1	1	2	1	0	0	3	90
경기	112	192	39	113	24	13	3	117	4,039
강원	31	19	3	4	0	0	2	23	496
충북	19	33	2	12	3	0	1	16	710
충남	30	52	5	16	2	0	2	32	1,194
전북	39	10	3	6	1	1	0	53	933
전남	67	9	1	3	0	0	0	23	1,094
경북	23	41	10	7	8	3	2	47	1,239
경남	61	50	4	18	4	0	1	53	1,423
제주	16	4	0	1	4	0	1	13	278

부모의 출신국이 베트남인 경우가 6,287명(36.7%)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중국이 3,878명(22.6%)으로 많으며, 필리핀이 1,602명(9.3%)이고, 중국(한국계) 1,575명(9.2%) 등의 순으로 분포되었다.

2. 표본추출

1) 표본추출틀

본 표본설계 연구에서는 그 대상을 초등학교 4학년 학생으로 정의하는데, 그 이유는 설문에 대한 내용을 이해하고 스스로 작성할 수 있는 최소의 연령이기 때문이다(김지경, 2010: 64-65). 제1기 「다문화청소년 패널조사」와 비교 분석을 위함이다. 표본 추출틀은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제공한 2018년 4월 기준 다문화가정 초등학교 리스트를 활용하며, 조사 대상인 초등학교 3학년 학생이 재학 중인 초등학교의 분포 특성(각종학교 제외)을 다음 <표 III-6>에 정리하였다.

전체적으로 다문화가정 3학년 학생이 재학 중인 초등학교 수는 4,805개교이고, 이 중에 국제결혼가정의 국내 출생 자녀가 재학 중인 학교는 4,612개교, 국제결혼가정의 중도입국 자녀가 재학 중인 학교는 645개교, 외국인가정 자녀가 재학 중인 학교는 729개교이다. 전체 초등학교 수의 합계는 5,986개교로서 이 중 1,007개교는 3가지 다문화가정 유형이 중복된 경우이다.

표 III-6. 다문화가정 학생이 존재하는 초등학교 분포 - 초등학교 3학년 기준

구분	국제결혼가정의 국내 출생 자녀	국제결혼가정의 중도입국 자녀	외국인가정 자녀	전체 다문화가정 자녀	
				합계	구성비(%)
전국	4,612	645	729	4,805	100.0
서울	447	115	162	485	10.1
부산	237	33	24	246	5.1
대구	175	28	24	182	3.8
인천	202	52	55	214	4.5
광주	124	11	12	128	2.7
대전	108	13	13	115	2.4
울산	98	13	19	99	2.1
세종	30	4	4	31	0.6
경기	930	191	241	999	20.8
강원	214	11	9	217	4.5
충북	203	23	24	210	4.4
충남	341	36	41	347	7.2
전북	303	19	17	306	6.4
전남	331	23	13	339	7.1
경북	380	20	26	389	8.1
경남	404	35	30	408	8.5
제주	85	18	15	90	1.9

2) 표본크기의 결정

제1기 「다문화청소년 패널조사」의 모집단은 국제결혼가정의 국내 출생 자녀로 제한되었으며, 표본크기는 1,625가구였다. 신규 코호트에서는 국제결혼가정의 중도 입국 자녀와 외국인가정 자녀를 모두 포함하므로 다문화가정 유형별로 분석할 경우, 제1기 조사와 유사한 수준의 정확도와 신뢰도를 갖도록 표본크기를 2,000명 정도로 정하였다.

전반적으로 모집단 규모를 고려하고, 국제결혼가정의 국내 출생 자녀에 1,600명, 국제결혼가정의 중도입국 자녀에 150명, 외국인가정에 250명의 표본크기를 할당할 경우, 95% 신뢰수준에서 각각 기대표본오차는 국제결혼가정의 국내 출생 자녀 2.35%p, 국제결혼가정의 중도입국 자녀 7.45%p, 외국인가정 자녀 5.93%p가 된다. 또한, 표본 추출률은 국제결혼가정의 국내 출생 자녀 0.113, 국제결혼가

정의 중도입국 자녀 0.166, 외국인가정 자녀 0.121로 유사한 수준이므로 표본추출과 조사관리 등에서 용이한 것으로 판단된다.

장기간 패널조사는 측면에서는 국제결혼가정의 중도입국 자녀와 외국인가정 자녀의 모집단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아 전수조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본 표본설계 연구에서는 기존 조사의 예산, 조사 난이도(언어, 조사원 운용 등) 등을 함께 고려하여 분석 가능한 최소 표본크기를 제시하였다.

3) 층화

다문화청소년에 대한 특성은 다문화가정 유형과 부모의 출신 국가, 시/도별 유형에 따라 상이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들 변수를 층화변수로 사용한다. 다만, 층화변수의 수준이 표본크기에 비해 지나치게 세분화될 경우에는 과잉 층화로 표본 관리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다문화가정 유형과 시/도는 명시적 층화변수로 활용하고, 부모의 출신 국가는 잠재적 층화변수로 활용하고자 한다. 조사 완료 후에는 표본 분포의 구성비를 산출하고, 구성비가 작은 경우에는 유사 또는 인접지역으로 통합하여 사후층화 가중치의 적용을 검토해야 한다.

4) 표본배분

2019년 제2기 「다문화청소년 패널조사」의 표본크기를 2,000명으로 할 경우, 다문화가정 유형과 시/도별로 할당하는 방법에 대해 살펴본다. 먼저, 통계작성 단위 또는 분석 단위로서 3가지 다문화가정 유형이 의미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표본배분 방법을 제곱근 비례배분, 변형 비례배분(50명 우선할당 후 비례배분)과 기대 표본오차를 동일하게 설정하는 방법을 검토하였고, 3가지 표본배분방법으로 할당한 결과를 다음 <표 III-7>에 정리하였다.

표 III-7. 다문화가정 유형별 표본배분 결과 및 비교

구분		국내 출생	중도입국	외국인가정	전체
합계		14,163	902	2,069	17,134
제공근 비례	할당표본	1,224	308	468	2,000
	기대표본오차	2.73	4.62	4.07	2.1
50+비례	할당표본	1,580	147	273	2,000
	기대표본오차	2.37	7.55	5.64	2.1
동일 기대표본 오차	할당표본	888	462	650	2,000
	기대표본오차	3.25	3.25	3.25	2.1

〈표 III-7〉의 결과를 보면 변형 비례배분(50명 우선할당 후 비례배분) 방법을 적용한 결과, 다문화가정 유형 간의 기대표본오차의 차이가 상대적으로 안정적이고, 표본 추출률이 유사하며, 표본크기 결정에서 언급했던 조건과 유사하므로 이를 최적 배분법으로 선정한다. 이를 기준으로 시/도별로 비례배분법을 적용하여 할당한 결과를 다음 〈표 III-8〉에 정리하였다.

표 III-8. 다문화가정 유형별 시/도별 표본배분 결과

구분	국내 출생	중도입국	외국인가정	전체
전국	1,580	147	273	2,000
서울	163	28	72	263
부산	76	7	4	87
대구	53	5	6	64
인천	79	13	19	111
광주	41	2	6	49
대전	36	2	2	40
울산	44	2	4	50
세종	10	2	2	14
경기	324	48	107	479
강원	53	2	2	57
충북	69	4	8	81
충남	117	8	13	138
전북	99	4	3	106
전남	117	4	3	124
경북	129	4	8	141
경남	145	8	10	163
제주	25	4	4	33

〈표 III-8〉을 기준으로 표본추출에 필요한 학교 수는 모집단을 기준으로 다문화 가정 3학년이 재학 중인 학생 수를 학교 수로 나누어 계산할 수 있다.

학교 당 평균 다문화가정 학생 수는 국제결혼가정의 국내 출생 자녀 3.070명(=14,163/4,612), 국제결혼가정의 중도입국 자녀 1.398명(=902/645), 외국인 가정 자녀 2.838명(=2,069/729) 이므로 표본추출에 필요한 초등학교 수는 국제결혼가정의 국내 출생 자녀 521개교, 국제결혼가정의 중도입국 자녀 143개교, 외국인가정 자녀 105개교이다. 위와 같이 필요한 표본 학교 수를 다문화가정 유형별로 계산하여 정리하면 다음 〈표 III-9〉와 같다.

표 III-9. 다문화가정 유형별 시/도별 표본 학교 수

구분	국내 출생		중도입국		외국인가정		전체	
	모집단	표본	모집단	표본	모집단	표본	모집단	표본
전국	4,612	521	645	143	729	106	4,805	770
서울	447	53	115	22	162	26	485	101
부산	237	25	33	7	24	2	246	34
대구	175	18	28	6	24	3	182	27
인천	202	26	52	11	55	7	214	44
광주	124	13	11	3	12	3	128	19
대전	108	12	13	3	13	1	115	16
울산	98	14	13	4	19	2	99	20
세종	30	8	4	3	4	1	31	12
경기	930	106	191	39	241	38	999	183
강원	214	17	11	4	9	1	217	22
충북	203	22	23	5	24	4	210	31
충남	341	38	36	8	41	5	347	51
전북	303	32	19	5	17	2	306	39
전남	331	38	23	5	13	2	339	45
경북	380	42	20	5	26	3	389	50
경남	404	47	35	8	30	4	408	59
제주	85	10	18	5	15	2	90	17

5) 표본추출

본 조사에서의 표본추출 단위는 학교이며, 추출된 학교에서는 다문화가정에 해당하는 학생(2019년 초등학교 4학년)을 전수조사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표본 학교 추출은 층화임의추출법(stratified random sampling)을 적용할 것인데, 이는 각 층별로 랜덤(random)하게 추출하는 방법이며, 층 내에서는 학생 수를 기준으로 확률비례추출법(probability proportional sampling)을 적용하여, 다문화가정 학생 수가 많은 학교의 추출률을 크게 하는 자체가중설계의 특성을 갖도록 표본학교를 선정한다. 이 때, <표 III-9>에 주어진 모집단 학교 수를 시/도 별로 다문화가정 유형별 층 내에서 주소를 기준으로 정렬한 후, 다문화가정 3학년 학생 수를 기준으로 확률비례추출법을 적용하여 부모의 출신국가별로 표본 분포를 모집단의 분포와 유사하게 되도록 한다.

3. 가중치 산정 및 모수추정

1) 가중치 산정

조사된 표본 조사 단위가 모집단의 추출 단위들을 대표할 수 있도록 수치로 연계하는 승수를 가중치(weight)라고 하며, 가중치는 설계가중치와 응답률 보정, 사후층화 보정을 반영하는 3개의 가중치 요소를 곱하여 최종 가중치를 계산한다.

(1) 설계 가중치

설계가중치(base weight)는 표본 추출률의 역수로 계산하며, 본 설계에서는 층화비례할당에서 확률비례추출법을 적용하였으므로 다음 식으로 산출할 수 있다.

$$w_{1.hij} = \frac{\sum_{i=1} X_{hi}}{n_h X_{hi}} \dots (1)$$

여기서 h 는 층(다문화가정 유형, 시/도)을 나타내고, X_{hi} 는 h 층, i 학교의 다문화가정 학생 수를 나타내며, j 는 조사된 학생을 나타낸다.

(2) 무응답 조정

선정된 표본 학교 내의 모든 학생이 응답할 경우에는 응답률이 1.0이지만 이 중에서 일부가 응답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응답자와 응답자의 특성이 유사하다는 가정 하에서 응답률의 역수를 무응답 보정 가중치로 하여 다음 식으로 계산한다.

$$w_{2.hij} = \frac{R_{hi}}{r_{hi}} \dots (2)$$

여기서 R_{hi} 와 r_{hi} 는 각각 h 층, i 학교의 조사 대상자 수와 실제 조사 성공한 학생 수를 나타낸다.

(3) 사후층화 보정

사후층화 보정 가중치는 학생의 성별과 부 또는 모의 출신국가별로 조사 항목의 특성이 다를 경우, 해당 변수에 대한 획득 가능한 정보를 활용하여 가중치의 합계와 이들 정보간의 비(ratio)를 사후층화 보정 계수라 하며, 이를 BF_{hij} 로 표시한다. 최종 가중치는 설계가중치, 무응답 보정 계수와 사후층화 보정 계수를 곱하여

다음 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w_{fhij}^1 = w_{1.hij} \cdot w_{2.hij} \cdot BF_{hij} \cdots (3)$$

위의 식 (3)에 주어진 가중치는 1차년도 조사(WAVE 1)의 가중치이며, 향후 패널조사를 반복적으로 시행할 때 필요한 가중치의 기준이 된다. 본 조사는 패널조사이므로 1차년도 조사에서는 식 (3)에 주어진 가중치를 사용하지만 2차년도 이후 조사에서는 패널조사에 적합한 종단가중치를 산출하고, 조사된 데이터를 분석할 경우에도 종단가중치를 활용해야 한다. 1차년도에 조사된 다문화가정 학생에 대한 가중치는 식 (3)에 의해서 계산되고, 2차년도 조사에서 응답한 표본 학생의 가중치 w_{fhij}^2 는 다음과 같은 식 (4)를 이용하여 산출한다.

$$w_{fhij}^2 = w_{fhij}^1 \cdot \widehat{p_{hij}}^{-1} \cdots (4)$$

여기서 $\widehat{p_{hij}}$ 는 2차년도 조사의 응답 확률을 나타내며,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서 산출한다.

- ① 2차년도 조사에서 각 학생별 응답여부를 1차년도 조사 데이터 세트와 대비하여 분석한다.
- ② 2차년도 조사에서 응답 여부에 영향을 미친 주요 조사 항목들을 식별한다.
- ③ 2차년도 조사에서 종속변수를 응답 여부로 하고 설명변수(X_j)를 응답 여부에 영향을 주는 조사 항목로 하는 로지스틱 회귀모형을 분석하고 회귀계수를 추정한다.
- ④ 개인별로 설명변수에 해당되는 조사 항목의 응답 값을 적용된 로지스틱 회귀모형에 대입하여 응답확률($\widehat{p_{hij}}$)을 다음 식 (5)로 계산한다.

$$\hat{p}_{hij} = \frac{\exp(\sum_{j=0}^k \hat{\beta}_j X_j)}{1 + \exp(\sum_{j=0}^k \hat{\beta}_j X_j)} \dots (5)$$

따라서, 무응답 보정 계수는 응답 확률의 역수이므로 아래와 같이 계산할 수 있다.

$$\hat{p}_{hij}^{-1} = 1 + [\exp(\sum_{j=0}^k \hat{\beta}_j X_j)]^{-1} \dots (6)$$

3차년도 이후 종단가중치 역시 위 과정들을 반복하여 산출할 수 있다.

2) 모수추정

모집단에서 관심의 대상이 되는 특성인 모평균이나 모비율의 추정량은 식 (3)으로 주어진 가중치 또는 식 (4)로 주어진 가중치를 이용하여 다음 식 (7)로 나타낸다.

$$\hat{\mu} = \frac{\sum_h \sum_i \sum_j w_{hij} y_{hij}}{\sum_h \sum_i \sum_j w_{hij}} \dots (7)$$

모비율 산출 시 y_{hij} 는 1 또는 0의 값을 갖는다. 모평균이나 모비율 추정량의 분산 추정량은 다음과 같은 식으로 구할 수 있다.

$$\hat{V}(\hat{\mu}) = \sum_{h=1}^H \frac{n_h(1-f_h)}{n_h-1} \sum_{i=1}^{n_h} (e_{hi\cdot} - \bar{e}_{h\cdot})^2 \cdots (8)$$

- $f_h = \frac{n_h}{N_h}$
- $e_{hi\cdot} = \left[\sum_{j=1}^m w_{hij} (y_{hij} - \hat{Y})^2 \right] / w_{h\cdot}, \bar{e}_{h\cdot} = (\sum_{i=1}^{n_h} e_{hi\cdot}) / n_h$

한편, 추정량에 대한 표준오차와 상대표준오차는 각각 다음과 같은 식으로 구할 수 있다.

$$\widehat{SE}(\hat{\mu}) = \sqrt{\widehat{V}(\hat{\mu})} \cdots (9)$$

$$\widehat{RSE}(\hat{\mu}) = \frac{\sqrt{\widehat{V}(\hat{\mu})}}{\hat{\mu}} \times 100(\%) \cdots (10)$$

4. 사후관리 지침

「다문화청소년 패널조사」는 패널조사로서 매년 동일한 조사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조사를 수행하는 특성을 갖고 있다. 표본설계와 같은 조사기획 단계에서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들이 실사 과정에서 생길 수 있다. 예를 들면, 모집단이나 표본의 변동, 조사와 데이터 편집, 분석 등이다. 이런 문제들은 표본설계와 같은 조사이전의 기획단계에서 예상되는 문제점들에 대처방안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충분한 준비를 준비하지 않는다면 예상하지 못한 편향이 생기므로 표본설계와 같은 조사기획 단계에서 적절한 매뉴얼 작성이 필요하다. 본 장에서는 사후관리를 위한 여러 가지 지침들을 소개하는데, 표본 관리, 데이터 편집, 비표본오차 최소화 방안을 다루도록 한다.

1) 표본관리

본 조사에서 품질이 좋은 통계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표본 추출 및 실사과정에 관한 표준적인 가이드라인을 작성하고 이를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표준적 가이드라인을 작성하지 않았을 경우 조사원이 편의에 따라 자의적으로 표본을 대체하는 등 통계의 품질을 해칠 수 있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모든 조사원은 사전에 준비된 표준적인 가이드라인에 따라 표본조사대상을 접촉하고 실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교육을 실시한 후에 조사에 임하도록 해야 한다. 표본설계는 일반적으로 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미리 이루어지며, 실제 조사는 표본설계 후 시간이 경과하여 이루어지는데, 그 사이에 여러 가지 원인으로 모집단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하여 본 연구에서는 각각의 표본 특성에 대해 같은 특성을 지니는 예비 표본을 지정하여 제시한다. 따라서 표본으로 선정된 학교를 표본으로 추출하는 것이 곤란한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반드시 해당 표본에 대응되는 예비 표본으로 대체할 수 있는 학교를 선정해야 한다.

2) 데이터 편집

일반적으로 대규모 사회조사에서 다양한 내용의 항목들을 조사하므로 수집된 데이터를 일차적으로 입력하는 단계에서 다양한 원인의 오류들이 발생할 수 있다. 자료입력원의 의도하지 않은 실수 또는 의도적인 오류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서 논리적인 오류나 통계적인 오류 등이 데이터입력단계에서 포함될 수 있기 때문이다(한국조사연구학회, 2012:81). 따라서 조사 후 데이터를 분석하기 전에 입력된 데이터에서 오류를 검색하고, 보완하는 편집(editing)과정을 거쳐서 데이터를 정제(cleaning)하는 것은 필요하다(한국조사연구학회, 2012:81). 데이터 편집에 관

한 연구는 1976년에 Fellegi와 Holt의 연구를 시작으로 대체(imputation)에 대한 연구 등이 활발하게 이루어져 왔으며 1995년 Granquist가 데이터 편집이란 수집된 데이터에 포함된 오류를 발견하여 수정하는 과정이라고 정의하였다(Granquist, 1995; 한국조사연구학회, 2012:82 재인용). 조사현장에서 조사원이 응답내용을 확인하고 오류가 있으면 확인하여 수정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데이터 편집이 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실질적인 조사 가이드라인을 작성하여 조사원의 철저한 교육과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입력 시 오류를 탐지하고 수정할 수 있는 입력 시스템을 개발하며, 오류를 최소화할 수 있는 조사표를 개발하고 확인하는 노력이 필요하다(한국조사연구학회, 2012:82).

한편, 수집된 자료를 입력한 이후에도 다시 데이터 편집이 필요하므로 조사내용에 적합한 편집 규칙을 작성하여야 한다. 조사내용에 대한 전문가들과 협의하여 논리적 오류와 통계적 오류를 검색할 수 있는 중요한 규칙들을 작성해야 한다. Granquist가 이미 언급했다시피 모든 오류를 다 찾아내어 수정하는 것은 필요 이상의 과잉 편집이 될 수 있어서 비용과 시간의 낭비가 될 수도 있다(Granquist, 1995). 따라서 추정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오류를 찾아내는 방법을 통계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알려져 있다. 대표적인 방법으로는 그래프를 이용하여 이상치(outlier)를 찾는 방법, 기초 통계량을 계산하여 점검하는 방법, 범위(range)를 점검하는 방법 등이 사용되고 있다(한국조사연구학회, 2012:81).

3) 비표본오차 최소화 방안

표본조사를 통해서 모집단의 특성을 추정하거나 추론하면 추정치와 참값간의 차이인 오차(Error)가 생길 수 있으며, 오차는 발생 원인에 따라서 표본오차(Sampling Error)와 비표본오차(Non-sampling Error)로 구분한다.

표본오차는 모집단에서 일부를 선정하여 조사한 후에 조사된 데이터를 이용하

여 모집단 특성인 모수를 추정하기 때문에 생길 수 있는 오차이다. 그러나 본 표본설계에 주어진 절차를 준수하게 된다면 표본오차의 크기가 허용오차범위 이내가 될 수 있으므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비표본오차는 조사기획단계에서 조사결과와 공표단계까지 알 수 없는 원인에 의해서 발생하는 오차를 말하는데 특히, 조사과정에서 표본으로 추출된 학교 또는 대상자가 응답을 거부하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론적으로 통제할 수 없으며, 그 존재를 인식조차 하지 못하고 정확하지 않은 통계숫자를 생산하여 정확하지 않은 정보를 정확한 정보인 것으로 착각하게 할 수 있는 오류이다. 통계조사 기획과정에서부터 모집단 정의, 표본 추출, 실사, 자료입력 및 분석, 결과 공표까지 모든 과정에서 부주의 또는 알 수 없는 원인에 의해서 발생하는 비표본오차는 표본오차보다 더 심각할 수 있으므로 통계조사의 모든 단계별로 심층적이고 검토·분석하고, 조사 관련 분야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서 오류를 찾아내어 통계조사의 품질을 높여야 한다. 본 표본설계에서 표본추출은 확률추출법을 적용하였고, 허용오차 이내에서 표본크기를 결정했기 때문에 본 표본의 표본오차는 충분히 관리되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비표본오차의 원인과 관리에 관한 내용을 중점적으로 설명하겠다.

우선, 통계조사에서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하는 것은 통계작성의 목적을 명확하게 서술하는 것이다. 통계 작성 목적이 명확하게 기술되어야 조사대상자를 규정하는 목표 모집단의 정의와 조사 모집단의 정의를 확정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원하는 시점에 모집단의 정확한 명부를 확보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사항이다. 따라서 대안적으로 조사 모집단과 가장 유사한 자료를 이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에 따라 모집단의 변동에 대한 최신 정보를 수집하여 조사완료 후에 조사된 데이터로부터 모수추정 시 모집단 변동을 반영하는 사후층화보정방법 등을 적용하여 편향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또한, 조사현장에서는 표본으로 선정된 학교 또는 대상자에 대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조사표에 대한 응답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많은 경우 조사의 편의를

위하여, 조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표본을 교체하여 조사를 수행하게 된다. 그럴 경우, 조사에 쉽게 응하지 않는 표본과 조사에 쉽게 응하는 표본 간에 통계적 특성에 차이가 존재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여 반영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해할 수 없는 비표본오차가 발생하여 모수추정 값에 대한 신뢰도가 저하될 수 있다. 따라서 가장 처음에 선정된 표본에 대한 응답을 얻고자하는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

실사과정에서 조사원의 실수나 조사된 조사표 관리 미흡으로 오차가 생길 수 있으므로 조사원에 대한 철저한 조사관리체계의 수립과 운영이 필요하다. 조사원의 조사업무와 내용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조사 실시 후 빠른 시간 내에 조사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을 검증원으로 선정하여 사후 확인 조사 또는 모니터링을 통해 조사된 데이터의 정확성을 검증하는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이 외에도 조사표의 설계도 여러 분야의 전문가부터 자문을 받고, 조사대상 계층에게 시험조사(pilot survey)를 실시하여 본조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미리 파악하고 보완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 부정적 또는 긍정적인 어휘나 부적절한 단어의 선택 등으로 조사 결과를 왜곡시킬 수 있으며, 객관성이 없는 조사 결과가 도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조사된 자료의 확인과 추정 작업은 주어진 규칙에 따라서 엄격하게 진행되어야 하고, 조사가 완료된 후 주관부서에서는 형식적일지라도 조사된 표본의 최소 30% 정도를 확인 조사하는 절차가 있다는 사실을 사전에 조사원에게 홍보하고 주어진 과정을 수행함으로써, 조사원이 조사업무를 성실하고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논의한 비표본오차 최소화 방안에 대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⁴⁾.

4) 비표본오차 최소화 방안은 이기재, 박승환(2014)의 55쪽 내용을 수정 요약함.

- ① 조사목적을 명확하게 설정하여 조사대상을 규정하는 모집단의 정의를 정확하게 해야 한다.
- ② 조사표는 전문가의 자문과 함께 미리 예비조사를 통하여 질문의 순서, 용어의 적절성, 질문내용의 적절성 등을 분석하고 보완하여 조사표의 완성도를 높여야 한다.
- ③ 조사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들에 대해 미리 조사원 교육·훈련을 실시하여 비표본오차를 최소화해야하고, 조사업무의 관리체계를 사전에 구축하여 조사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감독을 실시한다.
- ④ 응답률을 극대화하고 정확한 자료 수집을 위해 조사원의 적정 업무량 조정과 사기진작 등 동기부여가 필요하다.
- ⑤ 조사 완료된 조사표의 응답 내용 확인절차를 강화하고, 자료 부호화 및 입력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자료편집 과정의 전산시스템의 이용을 권장한다.
- ⑥ 조사원의 조사업무 정확성을 높이고, 정확성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조사 실시 후 빠른 시간 내에 조사경험이 풍부한 검증원에 의한 사후 확인조사 또는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 ⑦ 모수추정의 정확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단위무응답의 경우 가중값 조정법과 항목무응답은 적절한 대체방법의 적용이 필요하다.
- ⑧ 모수추정 시 표준화된 통계패키지(SAS, SPSS, STATA, SUDAAN 등)를 이용하고 설계 효과 등을 반영하여 정확한 추정값을 생산한다.

5. 통계품질관리를 위한 요건

1) 통계품질관리를 위한 요건 점검의 필요성

통계청에서는 국가승인통계에 대한 통계품질을 관리하고, 고품질 통계 생산을

위해 통계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체계화하여 통계품질관리 매뉴얼을 개발하여 적용하고 있다. 2004년부터 통계청에서는 작성방법에 따라 조사 통계, 보고 통계, 가공 통계 등에 적합한 통계품질관리 매뉴얼을 개발하였으며, 각 통계가 작성되는 전체 과정을 주요 단계별로 구분하여 통계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점검하여 통계품질을 높이는 노력을 하고 있다. 이후 매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되어 통계의 이론적인 측면과 실무적인 측면이 동시에 고려된 「국가 통계 품질관리 매뉴얼(정기통계품질진단)」이 매년 발간되고 있다. 한편, 통계품질 속성은 다음과 같이 6가지로 정의하고 있다.

표 III-10. 통계품질 속성

통계품질 속성	내용
관련성 (relevance)	□ 이용자 관점에 초점을 둔 측면으로 통계자료가 포괄범위와 개념, 내용 등에 있어서 이용자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정도를 말함 □ 즉, 통계이용자에게 얼마나 의미 있고 유용한 통계를 작성하여 제공하고 있는가와 관련된 개념임
정확성 (accuracy)	□ 측정하고자 하는 모집단의 특성이나 크기를 얼마나 근사하게 측정했는가를 말함 □ 대부분의 통계는 알 수 없는 참값을 추정하게 되는데, 정확성은 미지의 참값과 추정된 값과의 근접성에 관한 개념임 □ 따라서 참값과 추정된 값의 차이인 오차가 작을수록 정확성이 높은 통계가 됨
시의성/정시성 (timeliness /punctuality)	□ 통계의 시의성은 작성기준시점과 결과발표시점간의 차이를 나타내는 통계의 현실 반영도와 관련된 개념임 □ 정시성은 예고된 공표시기를 정확히 준수하는가에 대한 개념임
비교성 (comparability)	□ 시간 또는 공간이 달라도 통계 자료가 동일한 개념, 분류, 측정도구, 측정과정 및 기초자료 등을 기준으로 집계되어 서로 비교가 가능한지를 나타냄

일관성 (coherence)	□ 동일한 경제·사회현상에 대해 서로 다른 기초 자료나 작성방법에 의해 작성된 통계자료들이 얼마나 유사한 결과를 보이는가를 나타냄
접근성/명확성 (accessibility /clarity)	□ 접근성은 이용자가 통계자료에 얼마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정도를 말함 □ 명확성은 통계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정보제공 수준을 말함

* 출처: 통계청 (2018d). 통계품질관리, **제도개요**.
http://kostat.go.kr/portal/korea/kor_pi/8/1/index.action 2018. 10. 21 검색.

2) 통계품질관리 요건 점검의 방향

「다문화청소년 패널조사」는 표본 조사 통계이므로 표본 조사 통계 품질관리를 위한 체크 리스트들을 이용하여 통계품질관리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품질관리를 위한 사전단계로 미리 품질진단요소들을 점검하고 고려한 조사설계, 설문조사문항구성 및 실사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우선적으로 「다문화청소년 패널조사」 통계품질관리의 핵심적인 요소는 표준적인 조사관리체계의 확립과 운영이라고 할 수 있다. 조사 관리체계는 크게 세 가지 부분으로 구분되는데, 첫째는 인력부분(조사 기획 및 관리자, 조사원 등)과 둘째는 조사과정의 표준화를 위한 절차별 가이드라인 부문, 셋째는 데이터 입력, 편집 및 데이터 분석을 위한 체계 부문 등이다. 조사의 전체 과정을 세부 단계별로 구분하면 i)조사 기획, ii)조사 설계, iii)표본설계, iv)조사원 선발 및 교육, v)자료 수집, vi)자료 편집 및 입력, vii)데이터 분석, viii)이용자 서비스, ix)사후관리 등의 단계로 구분할 수 있으며, 각 단계에 대해 적합한 체크 리스트를 작성하여 체계적인 관리를 해야 한다.

통계청에서는 조사통계의 품질관리를 위해서 단계별 품질관리 지침을 적용하고 있다. 조사통계 작성을 조사 개요, 통계의 작성 목적 및 이용, 조사설계, 자료수집,

행정자료 활용, 자료처리, 통계추정 및 분석, 통계공표 관리 및 이용자 서비스, 통계기반 및 개선, 참고문헌의 10단계로 구분하고(통계청, 2018e:28), 각 단계별로 검토해야 할 가이드 라인을 제시하였는데, 제2기 「다문화청소년 패널조사」 통계 생산 시 모든 과정에 대해서 다음 사항들을 검토하고 적용하여 우수한 품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할 필요가 있다.

○———— 제Ⅳ장 조사문항설계

- 1. 조사문항설계의 원칙과 방향
- 2. 조사내용 구성의 과정
- 3. 조사내용 도출의 근거
- 4. 조사내용의 영역별 요인

1. 조사문항설계의 원칙과 방향

본 신규패널조사를 위한 설문지는 본 연구의 총괄보고서(p. 14)에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크게 여섯 가지 원칙에 근거하여 개발하고자 하였다.

첫째는 기존패널과의 동일성을 유지하여 상호 비교가 필요한 문항들을 포함하는 것, 둘째는 일반 한국가정청소년들과의 객관적 비교가 가능한 문항들을 포함함으로써 다문화청소년들의 발달성장요인이 일반 한국가정청소년들과 격차를 보이는지, 격차를 보이는 영역이 어떤 영역인지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셋째는 새로운 사회적 변화의 내용을 반영하는 것, 넷째는 현재의 지원정책 및 청소년활동이 추후 다문화청소년의 발달과 진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보다 장기적 관점의 함의를 도출할 수 있는 문항들을 개발하여 포함하는 일이다. 다섯째는 이주배경 청소년들에 대한 세계적 조사들에서 측정하는 문항들과 비교 가능한 문항을 포함하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여섯째는 최대한 간결하고 필요한 한도 내에서 문항의 수를 최소화 하는 방향으로 설문지 구성을 진행하고자 하였다.

1. 1기 다문화청소년패널(MAPS)과의 상호비교가능성을 위한 연계성
2. 일반 한국가정청소년들과의 비교가능성
3. 새로운 사회환경 변화요인 반영
4. 지원정책의 효과성 분석 가능성
5. 국제비교 가능성
6. 간결성(parsimony)

2. 조사내용 구성의 과정

신규패널 조사내용 개발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본 연구의 경우 1기 패널조사와 완전히 차별화된 문항을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다양한 대상을 포함할 수 있고 새로운 환경변화를 반영하는 정도의 수준으로 내용적으로 큰 변화가 필요한 사안은 아니다. 따라서 첫 번째 단계로 다문화종단조사 1기 문항을 검토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진 5명과 다문화청소년관련 전문가들이 모여서 1기 패널의 설문문항을 토대로 필요한 문항과 삭제할 문항을 검토하였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1기 패널에서 주로 국내출생다문화청소년이 대상자였던 것에 비해 신규패널의 경우 외국출생다문화청소년들의 특성을 파악하는 것이 목적인만큼 이들의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문항들을 추출하는 것이 주요한 목적이었다. 이를 위한 방안 중 하나로 기존의 중도입국청소년과 외국인가정자녀의 발달특성에 대해 수행된 선행연구를 분석하였다. 국내출생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는 이미 패널 구축 당시와 2017년에 분석한 바 있다. 따라서 앞의 이론적 배경에 제시된 바와 같이 중도입국청소년과 외국인가정자녀의 발달특성에 대한 선행연구를 분석하여 문항구성에 활용하였다.

다음 단계로 교육부와 여성가족부 담당자들과 정책실무협의회를 통해 신규패널 조사문항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고, 총 4차례에 걸쳐서 전문가자문회의를 실시하여 국내출생다문화청소년 뿐 아니라 중도입국청소년과 외국인가정자녀 등의 발달특성을 측정할 수 있는 변인을 도출하였다. 1차 설문문항을 도출하여 총 6종의 설문지를 구성하고 다시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 문항의 적절성과 타당성을 검토하였고, 2차 수정본을 기초로 TAPI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절차		내용
1	다문화청소년종단조사(MAPS) 1기 문항 검토	■ 신규패널에 포함될 문항, 삭제할 문항, 수정할 문항
▼		
2	선행연구 검토	■ 중도입국청소년, 외국인가정자녀, 제3국 출생 탈북 청소년 등의 발달특성요인 추출
▼		
3	관련부처 의견 수렴	■ 부처별 관심변인에 대한 의견 수렴(교육부, 여성가족부)
▼		
4	전문가 자문회의	■ 다문화청소년의 유형별 특성에 따른 문항 논의
▼		
5	1차 설문문항 도출	■ 국내출생다문화청소년 ■ 외국출생다문화청소년 ■ 국내출생다문화청소년학부모(한국인, 외국인) ■ 외국출생다문화청소년학부모(한국인, 외국인)
▼		
6	전문가 자문회의	■ 도출된 문항의 적절성, 타당성 검토
▼		
7	2차 수정본 도출	■ 전문가의견 수렴 후 설문문항 2차 수정(안)도출

그림Ⅳ-1. 신규패널 설문문항 개발절차

3. 조사문항 도출의 근거

1) 선행연구

본연구의 신규패널 조사문항의 도출을 위하여 선행연구를 통해 도출된 부분은 주로 중도입국청소년과 외국인가정자녀 등 외국출생자들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변인들이었다. 특히 한국어능력, 한국어, 한국에 오기 이전의 학교경험, 한국 입국 후 학교 경험, 국적취득 희망여부, 향후 한국거주 희망여부, 부모님과 떨어져 산 기간 등 외국출생자들에게 적용되는 문항들과 그 외 국내출생 다문화청소년들과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문항들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앞의 이론적 배경의 소결 부분에서 이미 언급되어 있으므로 이 부분에서는 다시 기술하지 않는다.

2) 전문가 자문의견

선행연구에 더하여 본 연구에서는 현장의 다문화청소년 전문가와 정책을 추진하는 부처의견을 수렴하여 문항을 구성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자문회의 및 정책실무협의회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자문회의의 주제는 첫째, 현재 조사 진행 중인 다문화청소년 종단조사의 설문문항의 신규패널 적용타당성 및 신규패널 조사문항 설계의 방향성에 대한 논의를 하였고, 둘째, 중도입국청소년의 특성을 반영한 조사문항 설계, 셋째, 외국인가정청소년의 특성을 반영한 조사문항 설계, 마지막으로 탈북청소년의 특성을 반영한 조사문항 설계였다. 탈북청소년의 특성에 대한 논의를 한 이유는 국내 다문화청소년의 지형이 매우 다양하기 때문으로, 부모가 북한을 이탈하여 중국 등 제 3국에서 출생한 후 입국한 경우 북한이탈주민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다문화로 구분되는 등 본 연구의 중도입국청소년의 범주에 탈북청소년들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4차례의 전문가 자문회의의 결과를 요약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신규패널조사의 방향과 1기 패널문항의 수정사항

우선 첫째로 신규패널의 방향과 1기 패널문항의 수정사항에 대한 회의에서 도출된 내용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신규패널 조사대상자와 관련하여 전문가들은 기존의 패널과 달리 중도입국청소년과 외국인청소년의 경우 유지율이 높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의견이었다. 즉, 유지가 안되고 탈락이 되는 이유 자체가 중요한 분석의 대상이기 때문에 유지율과 상관없이 꼭 조사에 참여해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특히 최근 들어 외국인가정자녀들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서 이들에 대한 현황파악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며 그런 면에서 이 조사가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것으로 평가하였다. 아래의 표는 기존 패널문항을 중심으로 유지해야 할 것과 삭제해야 할 것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이 의견들을 근거로 설문문항을 수정하고 신규문항을 포함하였다.

표 IV-1. 신규패널조사의 방향과 1기 패널문항 수정의견

대상	주제	내용
청소년	조사대상	■ 집단 특성상 유지율이 중요한 건 아님: 출입국 시기, 기간, 귀국이유 등이 다문화청소년들의 현황파악 및 대처방안 마련에 의의가 있음. ■ 외국인근로자 가정 급격 증가, 동포비자와 연관(안산지역 → 고려인 유입 증가) ■ 기존패널과의 비교, 일반패널과의 비교를 모두 고려하여 문항 구성할 필요
	1기 패널 청소년 문항	■ 한국어실력 : 국내출생은 제외, 중도입국과 외국인근로자 가정 자녀 포함 ■ 부모와 의사소통 사용언어 : 중도입국에게 중요(가족관계 파악) ■ 사용가능한 언어/외국인 부모나라 언어: 국내출생만 포함 ■ 가족 외의 사람에게 한국어 배운 경험: 중도입국에게 '입국 전'으로 수정하여 사용, 국내출생에게는 제외해야 함. ■ 국적에 대한 인식: 세 집단 모두 제외할 필요 ■ 외국부모나라 방문 경험: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기 어려워 세 집단 모두 제외 ■ 외국출신 부모 가족의 한국 방문 경험 : 제외 ■ 외국인 부모나라 관심: 포함

대상	주제	내용
		■ 문화적응스트레스: 중도입국, 외국인근로자 가정만 질문, 국내출생 제외 ■ 국가정체성: 포함 ■ 이중문화수용성: 국내출생에게만 물어보는 것이 좋을 것 ■ 다문화수용성: 고민필요 ■ 다문화가족 자녀임을 알렸는지 + 연관문항: 관련 문항을 포함해야 할 필요 있음. (안)'친구들이 알고 있는가'로 수정 ■ 다문화 지원 : 중도입국, 외국인근로자 가정 자녀의 경우는 거의 없음. 질문 필요가 있는지. 있다면 어떤 지원을 받았는지(선택문항) ■ 지원에 대한 태도, 적정성: 세 집단 모두에게 필요 ■ 선호하는 지원 방식: 선별과 통합에 대한 내용, 포함 ■ 원하는 지원내용: 세 집단 모두 ■ 건강상태, 신체만족도: 세 집단 모두 포함 ■ 자아탄력성: 세 집단 모두 제외 (내용타당도 낮음) ■ 삶의 만족도, 우울, 사회적 위축: 세 집단 모두 포함할 필요 ■ 비행: 중학교 이후에 질문 ■ 주관적 성적: 중도입국 청소년의 경우 잘 모르고 있음. 각 과목별로 질문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필요, 전반적인 것으로 통합하여 묻는 게 더 적절할 듯 ■ 부모와의 관계 - 가족지지/부모지지: 둘 중에 하나만 하는 게 좋을 듯(부모의 지지가 더 적합) - 부모에 대한 생각: 중도입국의 청소년의 경우, 양아버지/양어머니가 존재 가능함을 고려하여 개념설명이 필요함. - 부모에 대한 생각: 외국인 부모와의 관계에서 어려움이 초점인지, 일반적인 부모 자녀 관계가 초점인지. 아버지/어머니로 묻고 부모님 외국인 여부는 다른 방법으로 확인하는 방향으로 구성할 필요. - 부모양육태도: 필요 ■ 친한 친구 수, 친구의지지, 교우관계, 집단 괴롭힘: 필요함 (집단 괴롭힘 가해 경험 관련 문항 필요성 제기 → 비행에 포함되어있음) ■ 학교생활 관련 문항: 일반패널과 비교 ■ 방과후 프로그램: 제외 상태 유지 ■ 특기적성: 초등학교부터 질문 가능 ■ 거주지에 대한 인식: 제외 ■ 진로관련 문항: 중요함 ■ 희망직업: 중요함 (바리스타 같은 단순 훈련 지양, 고급 교육이 필요함) ■ 학생의 현재 상태: 진로장벽 인식으로 수정 ■ 학생의 부모님에 대한 질문: 부모의 진로도움 행동으로 수정 ■ 학업중단 요인: 중학교시기에 추가
	기타	■ 중도입국 중 탈북자, 제3국 출생 자녀: 다문화에 섞이고 싶지 않아함. → 가구조사표에 탈북자 가정 여부 표시하도록 해야 함 ■ 사회적지지, 지역사회지지에 대한 문항이 없음
	1기 패널 학부모	■ 모국음식, 주로 따르는 가치관, 모국에 대한 생각: 제외 ■ 주로 어울리는 사람, 언어: 유지

대상	주제	내용
학 부 모	문항	■ 사용하는 글 문항: 제외/사용하는 말 문항: 포함 ■ 문화적응, 결혼, 월평균 수입: 유지 ■ 지원의 중복성: 제외 ■ 한국어 배운 경험: 제외 ■ 선호하는 지원 방식: 연구진 정리 ■ 다문화가족 학부모 교육 경험: 중요한 문항 ■ 방과후 교육: 제외, 사교육: 포함 ■ 자녀 언어, 외국어 교육 희망: 정리 필요
	학부모 추가문항	■ 부모 국적취득, 자녀 국적취득 희망 관련 질문 필요 ■ 다문화 가족으로서 한국에서 자녀를 양육하는데 어려움이 있는지 ■ 일반가정과 비교해서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하는지

(2) 중도입국청소년의 특성

중도입국청소년의 특성을 반영하는 문항에 대해 전문가들이 제시한 의견은 매우 다양하였다. 그 중 지금까지 조사한 국내출생다문화청소년들에 대한 문항과 차별화되는 주제 중 하나는 체류상태에 대한 내용이었다. 즉, 현재의 체류상태, 비자종류 그리고 향후 지속적 한국거주의사였다. 이 때 지속적 한국거주의사는 청소년에게 직접 질문할 수 있지만 비자종류의 경우는 청소년 자신이 알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가구원부에 포함하여 학부모가 응답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또한 학부모와 관련하여 지금까지 국내출생자들에게서는 나타나지 않았던 특징인 부모와의 별거기간 등 재혼가정의 특징에 대한 질문이 필요함을 제언하였다. 또한 학업과 관련해서는 학교진입의 과정과 어려움에 대한 질문, 학업중단관련요인 등의 중요성을 강조하였고, 차별경험에 대한 측정도 중요한 변인으로 평가되었다. 이와 더불어 진로지원에 대한 문항, 근로경험 등에 대한 질문도 당장은 아니어도 점차 신규패널 청소년들이 성장함에 따라 질문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는 문항으로 평가되었다. 마지막으로 국제비교가 가능한 문항으로 취업률이나 진학률, 성별이나 연령에 따른 각종 교육적 성취의 지표 등을 생산해 낼 수 있다면 OECD 지표들과 비교가 가능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표 IV-2. 중도입국청소년관련 특성

주제	내용
1) 체류 및 출입국	■ 진로 이전에 체류에 대한 불안정성 큼, 체류자격이 가장 큰 문제 ■ 체류를 해결하고자 효용성이 없는 자격증(국가자격증 취득 → 근로비자 발급) 준비 → 스트레스 큼 ■ 자격증을 따는 방법 이외의 체류방법 ■ 언어문제로 자격증 시험 보는 것도 매우 어려움, 학원 다니는 경우도 많음 ■ H2 비자 18세부터 가능 → 16세에게도 영향을 미칠 것 ■ 살고 싶은지/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 한국에서 계속 살 것인가에 대한 막막한 두려움 ■ 경우에 따라 다르나 많은 경우 부모님과 한국에 지속적 거주 희망 ■ 살 수 없는 이유는 비자 → 비자를 연장해줄 수 있는 방법 필요 ■ 법무부 조기적용 프로그램을 들으면 비자 연장해주는 방법 ■ 한국거주기간, 출입국 횟수 질문 필요 ■ 어린연령의 중도입국 존재하기는 함(중국동포, 고려인 동포) ■ 중국 출신의 경우 자부심-국적 변동 희망하지 않음 ■ 일본, 베트남 등 이중국적을 최대한 유지하고 싶어함 ■ 영주권 : 현재 10년 주기로 재심사하기로 변동 됨(범죄경력 여부, 주소지 실거주 여부) ■ 한국에서 살기로 결심했는지, 본국으로 갈 건지 - 구분해서 지원할 필요성 · 한국에서 얼마나 살 건지, 귀화를 준비하고 있는지, 영주권을 취득할 생각이 있는지 · 한국에서의 체류기간 질문 필요 · 3년 이내의 청소년들은 본국으로 돌아가고 싶어 하는 경향 · 3년 이후의 청소년들은 고민을 시작 · 한국에 남아서 살고자 하는 경우 한국사회 적응에 집중 지원 → 문화, 의식, 교육(한국어교육, 공교육 진입), 진로 등 · 본국으로 떠나고자 하는 경우 : 한국어교육, 한국에 대한 이미지 형성 ■ 비자/체류자격 관련 · 단기비자(C3)의 경우, 확인이 잘 안됨. 대부분 돌아간다고 봐야 함 · 중도입국의 경우 비자 종류 확인이 용이함. · 외국인근로자 가정의 경우 부모에게 질문 · 중도입국, 외국인근로자 가정의 경우, 부모의 체류자격을 물어볼 필요 있음, 부모의 귀화여부 확인 필요
2) 부모	■ 부모님이 교육에 대해 관심 없음 ■ 어머니의 현재 국적 상태 필요 ■ 어머니 문화특성 출신국가, 모국어 질문 필요 ■ 자녀와 함께 동반입국 여부 및 동반입국 동기 ■ 본국에서 다른 보호자가 있었는지, 본국에서 주 보호자 양육자가 누구였는지 ■ 본국에서 주 양육자가 자주 바뀌는 경우 많고, 양육자의 사망을 목격하기도 함 ■ 부모에 대한 생각: 갈등의 영역은 무엇인가(예 : 부부관계, 경제, 양육태도, 언어) ■ 사회문화적 수준에 대한 질문 부재 ■ 부모들의 사회참여 경험, 연관된 공공기관 이용경험 ■ 부모의 적극적인 사회참여가 청소년에게 영향을 미침

주제	내용
	■ 중도입국 청소년의 경우 추가 질문 · 부모와 별거 기간, 가족 관계(이복-동복 동생) · 부모와 동거여부(초4이므로 성장 후 추가 필요)
3) 학교 및 학업	■ 고등학교 입학의 경우, 학교진입에 필요한 서류준비에 시간이 많이 필요 ■ 진입도 어렵고 진입 후 탈학교 문제도 많음 ■ 진입장벽 : 왜 학교에 가지 못 했는가 · 학교진입 시 어려움 질문 필요 · 보육단계에서 어려움 존재: 수당에서 배제되는 경우 많음. ■ 중도입국 아이들 10세 이하 많지 않음. 10대 중후반 학교 밖 아이들이 많음 ■ 중도입국 자체가 학교 박임. ■ 생활태도, 심리-정서적 문제, 친구 및 선후배의 영향, 교사와의 관계(교사변인 큼) ■ 청소년 본인이 학업중단의 원인으로 생활 및 태도를 인식할 가능성에 의문 ■ 한국어 부족으로 인한 학업부진이 가장 큰 문제일 가능성 ■ 검정고시반에는 중학교 중퇴가 가장 많음 ■ 학업중단 관련 가정환경요인: 경제적 상황, 부모 의사, 부모건강, 학교환경 ■ 학업중단의 경우, 무엇이 필요한가(활용할 수 있는 기술교육 필요, 하고 싶은 공부를 할 수 있는 시스템)
4) 한국어 교육	■ 중도입국 청소년 대상 주요 질문 영역: 한국어교육 ■ 이중언어 교육을 받은 적이 있는지, 어느 기관에서 받았는지, 만족도 ■ 한국입국 전 한국어 교육경험 유무
5) 차별경험	■ 차별경험에 대한 문항: 차별을 어떤 이유로 받았는가(언어, 피부색, 외모) ■ 외모 문항이 추가 되면 명확해질 것이라 생각됨 ■ 이주가 차별의 원인이라고 생각한 적이 있는지
6) 진로, 진학	■ 현재 아이들이 진로에 대해서 뭘 하고 있는지 ■ 진로정보를 어떻게 얻고 있고 무엇을 하고 있는가(예: 초중등 진로교육 실태조사 - 커리어 넷을 안다, 진로체험을 얼마나 해봤다 등) ■ 진로결정 관련 : 진로지원 경험, 만족도 희망사항 ■ 특정 직업을 선호하는 학생들은 그 직업에 대한 열망이 큰 경우도 있음 ■ 본인의 의지로 한국에 오지 않은 경우 수동적인 경향 ■ 정보가 제한되어 있어서 다양한 가능성을 고려할 수 없는 한계, 유리천장 (대학 자체를 현실적으로 생각 못함, 유학비자도 받을 수 있네?)
7) 역할모델	■ 역할모델의 존재가 중요(가능성을 목격하는 것 → 강력한 외적 동기) ■ 중도입국청소년 동일한 상황에 있는 개척자의 존재 중요 ■ 지방으로 갈수록 역할모델이 없음 ■ 보조교사(중도입국출신) → 롤모델이 됨
8) 아르바이트, 근로경험	■ 근로의 경험, 노동의 경험, 아르바이트 경험 질문 필요 ■ 말이 필요 없는 단순 아르바이트 경험 많음 ■ 집에서 일을 하거나 부모가 일하는 가게에서 일을 하는 경우 많음 ■ 부모님 일터에서 불법으로 방학동안 일한 경험 → 직업결정으로 이어짐 ■ 무임금의 노동을 하는 경우, 불법적인(시급, 시간) 노동 많음

주제	내용
	■ 경제적인 부분 다문화청소년에게 중요함 → 경제적인 관념도 궁금함 ■ 공동체 일자리 필요
9) 국제비교 문항	■ 교육이 어떻게 고용으로 연결되는지(스킬, 역량에 초점) ■ 국제비교: 취업률, 진학률 등(비교 가능한 문항으로 넣을 수 있다면) ■ 국가별 격차, 국가 내 격차(국가 내 격차: 성별, 연령) ■ 독일, 이민배경에 따라 어떻게 다른지 추가설문(다문화/비다문화 비교)
10) 사회적 참여	■ 사회적 참여: 이주자의 경우 사회참여 낮음, 입국시기에 따라 다르게 비교하기도 함 ■ 국가정체성 :사회에 대한 유대감 부분을 좀 더 측정 ■ 학생들이 느끼기에 사회, 지역사회, 학교는 어떤지 ■ 사회적 참여: 투표, 지역사회 활동 등 청소년 수준에서는 무엇이 있는가 ■ 청소년의 사회참여와 연관, 사회적 규범준수 ■ 학교 유대감: 학교활동 참여, 동아리 활동, 학교규칙 준수
11) 기타	■ 국가정체성, 국민정체성 다름. 국민정체성 관련 질문이 필요함. ■ 친구의 국적, 친한 친구의 수 ■ 방과후 활동에 대한 질문: 무엇을 하는지(학원, 집, 여가, 게임) ■ 사교육 실태 (종류, 비용, 입시준비) ■ 삶에 질: 여가 생활에 대한 부분 ■ 소속감 중요: 신뢰할 수 있는 어른과의 관계, 선생님 중요, 유대관계 ■ 심리정서적인 문제 발현 조사 필요 하지만 번역의 문제

(3) 외국인가정자녀의 특성

외국인가정자녀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수렴 결과, 외국인가정자녀라는 것은 그 범위가 매우 다양하여 사실상 외국인가정자녀라고 하나의 집단으로 묶는 것은 지나치게 포괄적이라는 의견이었다. 언뜻 생각하기로는 외국에서 태어나서 입국한 청소년이라고 생각되지만, 국내에서 태어난 외국인가정자녀들이 다수 존재하고, 그들 내에서도 하위 유형이 매우 다양하여, 집단 내 다양성을 고려하지 않고 외국인가정자녀로 묶는 것은 현상을 잘못 이해하기 쉽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국내출생 외국인가정자녀 내에서만 보면 전문직외국인자녀, 유학생자녀 등 정책적 지원의 대상이 아닌 집단으로부터 미등록 또는 무국적자와 같이 다른 의미에서 지원의 대상이 못되는 집단까지 매우 다양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그 집단적 다양성을 파악해 낼 수 있는 배경특성문항을 잘 구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

었다. 현재 외국인가정 자녀로 분류되는 아이들 중 다수는 동포비자로 입국한 동포자녀로 볼 수 있는데 그들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외국인노동자자녀와 다른 배경을 지니고 있어서 이에 대한 특성을 잘 반영할 필요가 있었다. 또한 같은 동포라도 러시아계와 중국계에 대한 한국인의 태도가 매우 다르기 때문에 한국인의 태도에 의해 그 아이들의 적응에 영향을 받는다는 측면도 있었다. 이들의 학교적응과 관련해서는 한국어능력이 역시 중요한데, 한국어를 배우지 않겠다는 생각을 지닌 아이들도 있고, 실제 연령과 학년사이의 차이가 학교적응에 영향을 주는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이 제기되었다. 이와 더불어 이들 역시 중도 입국청소년처럼 지속적으로 한국에 거주할 의사가 있는지에 대해 질문할 필요가 있는데, 거주의사에 따라 한국사회적응의 동기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 외 점차 성장하는 외국계청소년들의 비행이나 범죄문제에 대해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기되었다.

표 IV-3. 외국인가정자녀의 특성

주제	내용
1) 외국인가정 자녀라는 집단의 다양성	■ 이주외국인아동 보호기본권실태 모니터링에 따르면, 내적 다양성이 큼, 신분이 유동적 ■ 외국인 가정자녀 중 국내출생 50%이상, 25% 미등록, 11~12% 무국적(출생등록 못함) ■ '외국인 가정 자녀' 내부에서도 다양한 속성이 같이 묶여 있을 수 있음. ■ 외국인 가정자녀는 지나치게 포괄적인 개념임. ■ 외국인가정 개념을 재설정할 필요 있음. 외국출생 외국국적 등으로, ■ '외국출생 후 한국으로 이주한 아이들'로 대상자체를 한정하는 방법 ■ 중도입국의 경우, 국내출생 부모와는 가구조사시 상황이 많이 다를 가능성(예: 낮에 집에 없음, 부모조사의 어려움) ■ 외국에서 성장 후 들어온 청소년의 통칭 ■ 주로 청소년기 지나서 들어오는 아이들이 많아서 연구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 존재함 ■ ○○초등학교의 경우 60%가 해당, 그중, 75% 외국국적 중도입국 청소년. ■ 대부분 1~2세에 중도입국 → 한국인으로 사회화 ■ 중간(2~3학년)에 들어온 아이들 → 출신국의 글자 몰라, 번역이 의미가 없음. 읽어주고 응답하는 방식을 사용함 ■ 이주노동자 집단의 정주화가 제도 밖에서 진행하면서 외국인 가정 중 국내출생 일어난→ 100% 미등록이라고 볼 수 있음. ■ '누가 언제 들어와서 누가 언제 무슨 이유로 나가는가' → 의미 있는 분석

주제	내용
	■ 많은 아이들이 나갔다 다시 들어오나 통계에 잡히지 않음
2) 동포 청소년의 특징	■ 한국계 외국인 자녀들은 결국 동포 외국인 ■ 한국계 중국인의 경우, 조선족의 비율 많음 ■ 한국계 중국인의 경우, 외국인이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외국인은 아님 ■ 러시아권 청소년의 언어문제 고려해야함. ■ 러시아말 밖에 못하나 러시아 해체로 인접국(~스탄)으로 흩어짐 ■ 설문지 제공시 언어문제 고려: 어머니는 러시아어, 아동은 러시아어, 인접국어(~스탄), 혹은 한국어 제공 ■ 일반인의 시선(고려인에 대한 동포애, 중국동포에 대한 냉정함)이 아이들의 국적인식에 영향을 주기도 함. ■ 중국동포, 동포자녀가 본국을 자주 '왔다갔다'하는 것에 대해 한국인들은 기회주의적으로 해석함 ■ 외국인근로자 자녀와 동포 자녀는 다른 점도 많으므로 고려해야함 ■ 외국인 동포 1세: 살 수 있다면 한국에서 정착하고 싶어 함 VS 돈을 많이 벌어서 돌아가고 싶어 함. 따라서 교육보다는 돈 많이 버는 것이 더 중요, 온전한 소속감을 느끼지 못하여 섭섭함 ■ 외국인 동포 2세 : 선택의 문제 혹은 부모의 선택에 의존. 한국에서 대학교육을 받고 싶어 하는 경우도 많으나, 돈을 벌고 싶어 하는 경우 많음 ■ 부모의 욕구와 청소년의 욕구가 다른 경우 많음: 부모는 경제활동 중요, 자녀는 학교진학 중요(초4의 경우 부모 의견 질문 필요, 거주 의사 및 자녀 교육단계)
3) 미등록 집단의 특징	■ 학교의 분류는 다문화로 묶임 ■ 학교에서는 등록-미등록 파악 없음(본 연구에는 등록여부 상관없음) ■ 한국에서 나고 자란 특징은 다문화와 같으나 등록여부에 따라 정책의 대상으로는 확연한 차이(예: 누리과정 적용 안됨) ■ 누리과정 3~5세의 경우 등록의 경우만 지원, 미등록은 지원이 안 됨. 같은 외국인가정 아동들도 수혜여부가 다름
4) 학교생활	■ 위탁형 대안학교는 러시아권(상당수 고려인)과 중국 반반 ■ 중도입국 학생, 학교 안에서 출신국을 밝히는 것은 아무렇지 않으나 학교 밖으로 나가면 숨기고 싶음. 학교안은 수용적, 안전한 사회 학교 밖은 두려운 공간일 가능성. 학교안의 적응도 중요하지만 학교 밖의 적응도 고려를 해야 함. ■ 국내출생의 경우는 다문화임을 숨기고 싶어 함. ■ 입국시점 · 초등학교 언제 들어왔는지(몇 학년, 몇 살) 적응에 중요한 역할 · 고학년에 들어온 아이들 적응이 어려움. 따라서 돌아가고 싶다는 응답자 비율이 높음. ■ 한국어 습득 · 중국, 러시아계 아이들이 주로 한국어 습득 거부: 대국익식 존재 · 외국인 근로자 가정의 형편이 더 나은 경우 많아 한국어 학습의지 감소 · 부모의 가정상황, 아이의 연령이 한국어 습득을 많이 좌우할 가능성 ■ 재학증명서에 의거해서 편입학 시킴 ■ 증명서가 없으면 회의를 거치나 나이에 맞게 넣으려고 함. ■ 증명서에 의존하여 편입학 시키는 경우 부정응 발생

주제	내용
	■ 초등학교 학년-연령차 두지 않는 것이 정설 ■ 실제 연령과 학년 차이 비교할 필요 있음 ■ 중도입국 학생의 경우, 저학년으로 빨리 들어오는 추세 ■ 성적, 초등학교는 성적을 내지 않음, 예비학교는 국영수 공부 안하는 경우도 ■ '중국에서는 수학을 잘했는데 한국에서는 못한다. 나는 잘하는 걸까?' 의문 생길수도 ■ 예비학교를 거치지 않는 경우는 거의 없으나, 아이들은 '예비학교' 뜻 모르고 다님 따라서 설문지의 지원경험에 응답하기 어려울 수 있음. ■ '어울림=한국어교실'이라는 개념이 없을 가능성도 있음. 일반적인 것이라고 생각하고 지원이라고 생각 못함 ■ 학교에서 한국어를 배운 경험 유무를 질문하는 방법 사용하는 방안: 멘토링, 한국어, 학교에서 이런 거를 했느냐라고 질문하는 것이 나음 ■ 대학, 대학원의 개념, 배경지식 한국의 교육체계에 대한 이해가 부족
5) 학교 내 다문화 청소년 비율	■ 다문화의 비율에 따라 통합 수준 다름 : 예) 다문화 40% 정도 통합, 수업 원활 ■ 비율이 적당하게 있어야 통합 쉬움 (상황별 맥락별 다름) ■ 이주배경아이가 나라별로 파벌처럼 형성하는 문제 발생 ■ 같은 출신국 친구의 존재, 수 영향 큼. 학급에 다문화 친구의 존재 여부, 학교에 다문화 관련 시스템이 존재하는가 여부 측정 필요. ■ 다수가 중국동포, 다수와 소수가 뒤바뀌는 상황이 발생하나 한국애들이 주도함. 학교내 비율과 무관하게 사회적 측면이 학교 안에 투영 ■ 밀집지역을 제외하면 특정 학교에 동일 출신국 아이들이 증가, 한 학교가 커뮤니티화(화성, 평택 등), 한 번에 대거 입국하는 경우가 있음.
6) 정체성	■ 본인의 정체성을 묻는 문항의 의미: 확인할 필요 vs 묻지 않아야 함. ■ 국가의 정체성을 유지하는 것이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볼 필요. ■ 청소년의 경우 '동포'에 대한 정체성 없음
7) 거주 관련	■ 부모 국적이 모두 외국인인 경우, 한국에 오래 살 생각인 건가 고려 · 고려인의 경우, 부모는 자녀(4세)가 정주하기를 희망 · 동포 부모의 경우 한국에 살 생각으로 들어옴 · 자녀가 외국국적을 유지하기를 바라는 이유: 군대문제와 아이의 생각이 영향 ■ 귀화인지, 정주욕구를 학생과 학부모에게 질문 필요 ■ '졸업 후에 어느 나라에서 일하고 싶은지' 의 방식으로 확인 필요 ■ 본국에 있는 대학교를 가겠다는 응답이 계속 본국에 살겠다는 건지, 졸업 후 돌아오겠다는 건지 확인필요
8) 문제행동	■ 국가별로 세력화, 학교 앞에서 불량행동, 패싸움, 중요한 문제이나 시청, 치안당국 무심 ■ 유럽 같은 경우 인종폭동 등 1세대 이민자들이 주도하는 것이 아님. 2세대 아이들의 저항, 주류세대와의 갈등 심화로 인한 것인 만큼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 ■ 한국청소년의 일탈 범죄와 다르게 취급됨. 개인적인 특성으로 환원될 가능성 ■ 성인 외국인의 경우(형사정책연구원의 연구), 공격적인 구제, 문제해결의 통로가 부재하므로 범죄를 선택할 수밖에 없음 ■ 이주민에 대한 사회적 여론 최악, 지혜로운 전략적 대응 필요 ■ 고려인 관습법 - 사건사고 많아, 합의 어려움, 결투문화
9) 건강관련	■ 이주민 청소년의 스트레스·정신건강·신체건강 간의 관련성

주제	내용
	■ 이주민의 건강에 대해 문화적 차이 고려할 필요 있음. ■ 성인 고려인들의 스트레스는 한국전체 평균보다 높지 않으나, 청소년 스트레스는 높음(주목해야함). 연령별 차이가 있음을 고려, 스트레스와 관련된 부분 정교화 해야 함 ■ 정신질환을 가진 성인의 비율 높음(한국에서 발생 했을 것이라 생각됨)

(4) 제 3국 출생 탈북청소년의 특성

제 3국 출생 탈북청소년의 경우 부모는 북한이탈주민이지만 중국에서 태어난 이후에 한국에 입국한 경우이다. 이들을 검토했던 이유는 앞에서 언급했던 바와 같이 이들이 학교현장에서는 중도입국청소년으로 분류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중도입국청소년을 대상으로 표집을 했을 때 제 3국 출생 탈북청소년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에 대비하여 이들의 특성을 파악해 낼 수 있는 문항을 구성하고자 북한이탈청소년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자문회의를 실시하였다. 전문가 회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제3국 출생 탈북청소년의 경우 사실상 중국출생자가 거의 100%라고 해도 무리가 없고, 그 중에서도 길림성 등 시골의 농촌지역 출신자들이 다수일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의견을 모았다. 따라서 역으로 생각하면 학교에서 중도입국청소년으로 분류되어 있는 아이들 중 많은 아이들이 제 3국 출생 탈북청소년이라고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들 제 3국 출생 탈북청소년들이 일반적인 중도입국청소년과의 차이점은 국적취득의 절차가 없다는 점이다. 엄마가 탈북자로 한국국적을 자동적으로 취득하기 때문이다. 보통 탈북청소년들은 하나원을 거친 경우 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이들은 탈북자로 들어오기 보다는 중도입국으로 들어오다 보니 하나원을 거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이는 한국사회적응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획득하지 못하는 결과를 낳는다.

또한 이들은 중도입국청소년이라는 정체감에 탈북집단이라는 정체감을 하나 더 가지고 있어서 하나의 정체성이 아닌 다양한 정체성을 지니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이었고, 따라서 이러한 정체성을 측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었다. 한국어와 관련해서는 일반적인 중도입국청소년에 비해 학습동기가 높고, 특히 부모와 함께 하는가의 여부가 한국어 학습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 탈북청소년을 별도의 유형으로 포함하지는 않지만 중도입국청소년이라는 집단 내에 제 3국 출생 탈북청소년들이 다수 분포하고 있을 가능성을 고려하여 이들의 특성을 검토하였다.

표 IV-4. 제 3국 출생 탈북청소년들의 특성

주제	내용
1) 생활환경 특성	■ 제3국 출생 탈북청소년은 중국 출생이 많음(사실상 중국출생이 100%). 그 중에서도 차상위, 시골농촌의 경우가 많음(길림성 등). 따라서 생활수준이 낮을 것임. ■ ‘어디에서 살다 왔는지’ 민감한 상황이나 구체적으로 질문해야 관련 정보 얻을 수 있음(예: 연길에서 어디) ■ 중국출신의 경우 다닌 학교 리스트가 확인이 안되는 경우가 있음. 이는 학력심의 관련해서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음
2) 일반 중도 입국 청소년과의 차이점	■ 한국입국배경 조사 필요: 출생신고 안 됨, 무국적, 이름이 달라지는 경우 존재 ■ 국적취득(귀화) 절차가 없음. ■ 자발적 입국 아님, 엄마를 따라 오는 경우가 대부분임. 따라서 한국에서 갈등과 적응 문제가 발생함. ■ 중국에서 성장하면서 가짜신분이 들통 날 가능성이 있어서 입국하는 경우가 많음. ■ 겨울철에 탈북 많음(봄 지나면 감소하는 경향성)
3) 적응에 영향을 주는 요인	■ 나이확인의 중요성. 입국연령, 어느 시기에 들어왔느냐가 이후의 적응에 영향 ■ 입국 시기 별 특성이 다를 것 ■ 하나원(하나돌학교 3개월) 경험여부가 이후 적응에 큰 영향 ■ 북한 태생 여부가 재학률에 영향(제3국 출생의 재학률 높음, 현재 북한 태생은 소수임) ■ 부모 중 누구를 기준으로 탈북학생으로 볼 것인가의 문제
4) 정체성	■ 중국생활 경험, 현재 한국생활, 탈북청소년이라 명명(북한생활 경험 없어도) ■ 제3국 출생 탈북청소년은 중도입국자에 탈북이라는 정체성을 하나 더 가지고 있음. ■ 정체성을 스펙트럼처럼 물어볼 필요 있음. 동시에 존재할 가능성 있음. ■ 탈북배경(북한을 떠난 경험이 있는가)이 차이를 유발할 가능성(이해와 지원에 도움) ■ 한국국적 여부 - 질문할 필요 없음(한국으로 들어오면서 바로 국적 획득) ■ 한국국적을 취득한 탈북자는 중국에서 한국인으로 보지 않음
5) 부모요인	■ 과거 부모직업 질문 필요함. ■ 입국시 부모 동반여부에 따라 초기생활이 달라짐(같이 들어오는 경우가 적응에 좋음) ■ 부모와 같이 사는지, 기숙학교 등에서 떨어져 사는지 확인 필요 ■ 중국에서의 방임, 정서적 학대 등 노출 가능성 존재

	■ 급격한 환경변화에서 오는 공허함(탈북이 더 복잡한 환경변화 존재) ■ 심리적 특성이 제3국 출생과 북한출생 많이 다름 ■ 배경과 관련해서 부모질문 사항 많음 ■ 어머니의 재혼에 대한 부담, 갈등이 청소년의 심리적 갈등에 영향을 미침 ■ 중국남성이 북한여성과 결혼한 경우가 많음(중국 아빠가 한국에서 일하는 경우 많음) ■ 중국생활에 따라 중국의 친부 초청여부가 달라지고, 이것이 친부친모 동거여부에 영향 ■ 어머니의 경우, 아이를 데리고 오는 것에 대한 양가감정, 원치 않는 출생 등의 경험 ■ 가족의 개념이 다름(사실혼 관계 반복). 이것이 엄마에 대한 신뢰에 영향을 미침. ■ 부모와의 분리에 대한 두려움, 분노 등이 있음. ■ 부모의 경우 어렸던 자녀의 모습만 기억하고 있어 현재의 모습에 매우 당황하고 적응하기 어려워 함.
6) 학교생활 적응	■ 어렸을 때부터 일반아이들과 함께 지내는 것이 적응에 도움 ■ 학교적응에서 가정이 제일 중요한 요소 ■ 부모 이혼에 대한 염려가 큼: 심리적응원자원이 많이 필요한 상황 ■ 심리적응원자원은 실효성이 큼, 개별 상담 꼭 필요 ■ 기본생활습관 조사필요: 통제 없는 삶을 살았던 경험이 적응에 영향을 미침
7) 한국어 학습	■ 부모와 함께 사는가가 한국어 학습에 영향을 미침 ■ 일반 중도입국 보다는 한국어 학습 동기 많음 ■ 하나원을 거쳤는지 여부는 한국어 학습에 매우 큰 차이를 지남. 하나원을 거친 경우 긍정적 영향을 미침. 한국어 노출 경험에 큰 차이를 유발함.
8) 탈북청소년 지원	■ 선호하는 지원이 다름 가능성 ■ 이들의 정체성, 일체감이 다문화 쪽에 갈 수도 있음 ■ 탈북학생은 감소하고 있으나, 탁아(플케어) 시설 증가 · 어머니의 경우 대부분 경제생활을 하고 있음 · 다양한 근로형태 존재, 직업을 밝히지 않는 경우 대다수 · 직업을 숨기기 위해 아이와 별거하기도 · 근로환경이 나쁜 경우도 많음 ■ 정부차원의 지원 확대 필수로 중국에 있는 아이들에 대한 유인효과 커짐 ■ 탈북가정의 경우, 가족 구성원 별로 '탈북/탈북 아님' 나뉨. 가정/가족 단위 개념 필요, 현재 반영하기 시작(예: 가산금) ■ 제3국 출생은 탈북지원 못 받음(내년부터 일부대학에서 정원 내 특별전형 시작) ■ 학교마다 운영방식, 위상, 활용이 다름, 탈북/다문화 언급 안하는 학교도 있음 ■ 탈북코디선생님: 북한의 교사출신, 통일교육전담사 등으로 호칭으로 불림 · 담임은 부모와 소통에 어려움을 느끼는 데 이 때 부모상담 역할을 수행함. · 방과후 아이들 관리, 교사역량에 따라 다름

4. 조사내용의 영역별 요인

최종적으로 도출된 조사문항(안)은 다문화청소년과 그들의 부모, 좀 더 정확히 말하면 그들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한 설문지를 구성하였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다문화청소년의 경우는 국내출생자와 외국출생자로 나누어서 두 개의 기본 설문지를 개발하였고, 어머니의 경우는 국내출생자와 외국출생자의 어머니를 다시 각각 구분하여 국내출생자의 어머니 내에서 외국출신과 한국인으로 나누고, 외국출생자의 어머니 역시 외국출신과 한국인으로 나누어서 총 6종의 설문지(안)를 개발하였다. 개발된 설문지(안)는 부록에 제시되고, 본 장에서는 조사내용의 영역별 요인과 설문문항의 구성과정에 대해 제시하였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청소년

청소년 설문문항의 요인은 아래의 표에 나타난 바와 같이 크게 세 가지로, 개인 요인, 가정요인, 지역요인으로 나눌 수 있다. 그 중 개인요인은 다시 학교생활, 방과후활동, 진로, 심리·사회적응 및 건강, 문화적응 및 이중문화 등 총 5가지 요인으로 다시 나눌 수 있다. 우선 첫 번째 학교생활에서는 주로 학교생활적응의 측면에서 교사나 친구와의 관계, 집단괴롭힘 피해경험, 학교 내에서 도와주는 어른의 존재, 학교성적, 성적에 대한 만족도 등 일반적인 문항에 대해 모든 대상에게 질문하고, 그 중 외국출생자들에게는 학교생활에서 어려운 점, 한국에 오기 이전의 학교경험, 한국학교 입학학년, 한국 입국 후 초등학교 입학 전의 생활, 한국 입국 후 한국어교육경험 등을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두 번째로 방과후활동에서는 방과후에 무엇을 하면서 지내는지의 내용으로 교과목, 특기적성, 문화생활, 스포츠관람 등의 경험에 대한 문항을 구성하였다. 세 번째로 진로는 청소년의 희망교육

수준, 장래희망, 진로에 대해 부모와 대화하는 정도 등에 대한 내용이었다. 네 번째로 심리·사회적응 및 건강의 영역에서는 자존감, 사회적 역량, 삶의 만족도, 차별경험, 차별가해자, 차별경험에 대한 대처, 지각된 다문화수용성, 걱정거리, 건강, 스트레스 등에 대한 문항이 포함되었으며, 친한 친구의 수, 친구와의 관계 등을 질문하였는데, 외국출생청소년들에게는 친한 친구의 국적을 함께 질문하는 것으로 문항을 구성하였다. 개인요인의 마지막 요인인 문화적응 및 이중문화적응은 집단에 따라 다소 질문의 내용을 다르게 구성하였는데, 우선 국내출생자와 외국출생자 모두에게 해당되는 질문은 국가정체성, 문화적응스트레스, 이중문화수용태도, 외국출신부모의 한국어실력, 아버지와의 의사소통시 사용언어, 외국출신부모나라 언어교육 경험, 외국출신 부모나라 언어능력 등이었고, 국내출생자에게만 해당되는 문항으로는 외국출신 부모국가 방문여부, 외국출신 부모국가 방문횟수였으며, 반대로 외국출생자에게만 해당되는 문항은 국적취득 희망여부, 한국거주 희망여부, 한국어능력 등이었다.

두 번째, 가정요인으로는 부모와의 관계와 가정환경이 주를 이루며 국내출생자와 외국출생자 모두에게 질문하는 문항으로 부모님 중 어떤 분이 외국인인지, 가정형편, 부모의지지, 부모에 대한 생각, 부모의 양육태도, 부모와의 활동, 부모와의 대화시간, 방과후 보호자 부재여부 등이었고, 외국출생자에게만 해당되는 문항으로 한국에 오기 전 부모님과 떨어져 산 기간, 부모님과 떨어져 있는 동안 함께 산 사람의 두 개 문항이었다.

마지막으로 지역요인으로는 학교 밖에서 도와주는 어른이 있는지 여부와 만일 있다면 그 대상이 누구인지에 대한 내용이었다.

표 IV-5. 청소년 설문문항의 요인 및 내용

◎ 국내출생, 외국출생 대상, ○ 국내출생 대상, ● 외국출생자 대상

	요인	내용
개인 요인	학교 생활	학교생활적응◎, 학교생활 어려운 점(친구)◎, 학교공부의 어려운 점◎, 담임선 생님과과의 관계◎, 집단괴롭힘 피해경험◎ 학교 내 도와주는 어른 존재 여부◎, (있다면) 학교 내 도와주는 어른◎, 지난학기 성적◎, 성적에 대한 만족도◎,
		학교생활 전체에서 가장 어려운 점● 한국에 오기 전 학교 경험●, ● 한국 입학(편입) 학년●, 한국 입국 후 초등학교 입학 전 생활●, 한국 입국 후 한국어 교육 경험●
	방과후 활동	◎ 방과후 시간◎, 교과목관련 활동시간◎, 특기적성 활동시간◎, 문화생활, 스포 츠 관람, 레저시설 이용◎
	진로	◎ 희망 교육수준◎, 어른이 되어서 가장 갖고 싶은 직업◎, 학교를 마친 후 일하고 싶은 곳◎, 미래, 진로, 진학 관련 부모와의 대화◎
	심리·사회 적응 및 건강	자존감◎, 사회적 역량◎, 삶의 만족◎, 차별경험 피해여부◎, 차별경험 가해자 ◎, 차별경험 대처◎, 지각된 다문화 수용성◎, 걱정거리◎, 주관적 건강상태◎, 스트레스◎
		◎ 친한 친구 수◎, 친구들과의 관계◎
		● 친한 친구 국적●
	문화적응 및 이중문화	국가정체성◎, 문화적응스트레스◎, 이중문화수용태도◎, 외국출신 부모의 한 국어 실력◎, 외국출신 부모와 의사소통 시 사용언어◎, 외국출신 부모나라의 언어교육◎, 외국출신 부모 나라 언어 능력◎
		○ 외국출신 부모 국가 방문 여부○, 외국출신 부모 국가 방문 횟수○
		● 국적취득 희망여부●, 한국거주 희망여부●, 한국어 능력●
가정 요인	부모와의 관계 및 가정환경	부모의 외국인 여부◎, 가정형편◎, 부모의지지◎, 아버지에 대한 생각◎, 어머 니에 대한 생각◎, 부모의 양육태도◎, 부모와의 활동◎, 부모와의 대화 시간◎, 방과후 보호자 부재여부◎
		● 한국에 오기 전 부모님과 떨어져 산 기간●, 부모님과 떨어져 있는 동안 함께 산 사람●
지역 요인	지역·사회 지지	◎ 학교 밖 도와주는 어른 존재 여부◎, (있다면) 학교 밖 도와주는 어른◎

위의 요인별 문항내용을 문항으로 구성하는 데 있어서 일부는 1기 다문화청소년
년종단조사(MAPS 1기)의 문항을 유지하였고, 일부는 수정하였으며, 다른 일부는
새로이 구성하였다. 그에 대한 수정내용과 출처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IV-6. 청소년 설문지의 문항별 출처 및 수정내용

요인	내용	국내 출생	외국 출생	출처	수정내용
학교 생활	학교생활	○	○	청소년종합 실태조사 (2017)	신규문항 - 나는 수업시간에 재미있다. → 발췌 - 우리학교는 공부하기 좋은 분위기다 → 발췌 - 선생님, 친구 등과의 관계를 고려하면, 현재 다니고 있는 학교의 생활이 만족스럽다. → (2문항으로 수정) 나는 우리학교 선생님 들이 좋다, 나는 우리학교 친구들이 좋다
	학교생활 어려운 점 (친구)	○	○	MAPS 1기 일부 발췌	- 친구들이 나를 따돌리는 것 → 삭제 - 친구들이 나를 때리는 것 → 삭제 - 친구들이 나를 홍보는 것 → 삭제 - 친구들이 나에게 욕설을 하는 것 → 삭제 - 친구들이 나를 믿어주지 않는 것 → 삭제 * (중도입국) 내가 한국어를 잘 못한다고 친구 들이 나를 놀리는 것 → 내가 한국어를 잘 못한다고 친구들이 나를 무시하는 것
	학교공부의 어려운 점	○	○	MAPS 1기	- '공부에 흥미가 없다' 추가
	학교생활 전체에서 가장 어려운 점	-	○	연구진 작성	신규문항
	담임선생님과의 관계	○	○	MAPS 1기	기존문항 유지
	집단괴롭힘 피해경험	○	○	MAPS 1기	기존문항 유지
	학교 내 도와주는 어른 존재 여부	○	○	MAPS 1기	기존문항 유지
	(있다면) 학교 내 도와주는 어른 누구인가	○	○	MAPS 1기	- 담임선생님 → 추가 - 멘토선생님 → 추가 - 사회복지사선생님 → 삭제 - 다문화선생님 → 추가 - 외부강사선생님 → 삭제
	지난학기 성적	○	○	한국 아동·청소년 패널조사 (2018)	신규문항
	성적에 대한 만족도	○	○	MAPS 1기	기존문항 유지
	방과후 활동	○	○	청소년	신규문항

요인	내용	국내 출생	외국 출생	출처	수정내용
방과 후 생활				종합실태조사 (2017)	■ 발체 - 잡지나 책(만화책 포함) 읽기 → 그대로 사용 - 집안일(청소 등) 돕기 → 그대로 사용 - 그냥 쉬거나 잠자기 → 그대로 사용 - 방과후학교 → 그대로 사용 - 청소년시설 등 프로그램 참여 → 사용 - 기타 → 그대로 사용 ■ 삭제 - 학교에서 자율학습 → 삭제 ■ 수정 - 텔레비전, 비디오 시청 → 텔레비전 시청 - 집에서 인터넷(게임 포함)하기 → 컴퓨터(인터넷, 게임 포함) 하기 - 라디오나 음악 듣기 → 음악듣기 - 집에서 가족이나 친구와 대화하기 → (두개 항목으로 수정) 가족과 대화하기, 친구들과 놀기 - 집에서 숙제 등 공부 → 숙제나 공부하기 - 학원(피아노, 태권도 등 포함)이나 과외 → 학원이나 과외(영어, 수학, 피아노, 미술 등) ■ 추가 - 스마트폰 가지고 놀기 - 운동하기(태권도, 수영, 축구 등)
	교과목관련 활동시간	○	○	MAPS 1기	기존문항 유지
	특기적성 활동시간	○	○	MAPS 1기	- 음악 → 음악(피아노, 바이올린, 성악 합창 등) - 미술 → 미술(그리기, 종이접기, 만들기 등) - 체육 → 체육(태권도, 수영, 축구, 농구 등) - 과학 → 과학실험(로봇 등) - 봉사 → 삭제 - 컴퓨터(코딩 등) → 추가 - 교내 동아리 활동 → 삭제 - 기타 활동 → 기타
	문화생활, 스포츠 관 람, 레저시설 이용	○	○	2017년 사회조사표 발체 및	신규문항 - 온천장 및 스파 → 삭제 - 골프장 → 삭제
진로	학생의 희망 교육수준	○	○	MAPS 1기	기존문항 유지

요인	내용	국내 출생	외국 출생	출처	수정내용
	어른이 되어서 가장 갖고 싶은 직업	○	○	MAPS 1기	기존문항 유지
	학교를 마친 후 일하고 싶은 곳	○	○	연구진 구성	신규문항
	미래, 진로, 진학 관 련 부모와의 대화	○	○	한국 아동·청소년 패널조사 (2018)	신규문항 - '친구' 항목 연구진 추가
	자존감	○	○	청소년 종합실태조사 (2017)	신규문항
	사회적 역량	○	○	청소년 종합실태조사 (2017)	신규문항
	삶의 만족	○	○	MAPS 1기	기존문항 유지
심리 사회 적응 및 건강	차별경험 피해여부	○	○		신규문항 - 있었다 → 예 - 없었다 → 아니오
	차별경험 가해자	○	○	국내 난민아동 한국사회 적응 실태조사 (2018)	신규문항 - 질문수정: 다음의 장소에서 어느 정도 차별을 받았습니까 → 누구에게 차별을 받았나요? - 보기항목 구성 ① 학교의 다른 학생들 ② 학교선생님 ③ 학원이나 과외선생님 ④ 친척들 ⑤ 동네 사람들 ⑥ 길거리의 모르는 사람 ⑦ 기타(적을 것)
	차별경험 대처	○	○		신규문항 - 질문수정: 순서대로 적어주세요(3순위까지) → 주로 어떻게 하였나요? - 상대방에게 사과를 요구하였다 → 차별행동 이나 무시한 사람에게 직접 따졌다 - 가족, 친구와 상의하였다 → 부모님이나 가 족에게 알렸다 - 상담기관, 센터 등에 문의하였다 → 지역의 지원기관 선생님에게 알렸다

요인	내용	국내 출생	외국 출생	출처	수정내용
					- 차별시정 관련 기관에 진정/신고하였다 → 삭제 - 카페, 인터넷, SNS 등에 글을 올렸다 → 삭제 - 참았다 → 그냥 참았다 - 학교 선생님께서 알렸다 → 추가 - 기타(적을 것) → 그대로 사용
	지각된 다문화 수용성	○	○	연구진 작성	신규문항
	걱정거리	○	○	MAPS 1기	- 부모님(또는 가족)과의 갈등 → (세계 항목으 로 수정) 부모님 사이의 불화(부부싸움 등), 부모님과 나와의 갈등, 형제·자매와 나와의 갈등 - 사귀는 사람(이성친구) 문제 → 이성친구 문제 - 미래에 대한 불안감 → 추가
	건강평가	○	○	청소년 종합실태조사 (2017)	신규문항
	스트레스	○	○	청소년 종합실태조사 (2017)	신규문항
	친한 친구 수	○	○	MAPS 1기	기존문항 유지
	친한 친구 국적	-	○	연구진 구성	신규문항
	친구들과의 관계	○	○	MAPS 1기	* (중도입국) 한국친구, 출생국이 같은 친구, 다른 나라에서 온 친구의 수 추가 질문
문화 적응 및 이중 문화	외국출신부모의 한국어 실력	○	○	MAPS 1기	- 외국인 부모님 → 학생의 (아버지/어머니) - 말하기, 쓰기, 읽기, 듣기 영역 → 통합 응답
	아버지와 의사소통 시 사용언어	○	○	MAPS 1기	기존문항 유지
	어머니와 의사소통 시 사용언어	○	○	MAPS 1기S	기존문항 유지
	외국출신 부모나라 의 언어교육	○	○	연구진 작성	신규문항
	외국출신 부모 나라 언어 실력	○	○	MAPS 1기	- 외국인 부모님 → 학생의 (아버지/어머니) - 말하기, 쓰기, 읽기, 듣기 영역 → 통합 응답
	국가에 대한 정체성	○	○	MAPS 1기	- 외국인 부모님 나라 사람 → (어머니/아버지) 나라 사람
	외국출신 부모 국가	○	-	MAPS 1기	기존문항 유지

요인	내용	국내 출생	외국 출생	출처	수정내용
	방문 여부				
	외국출신 부모 국가 방문 횟수	○	-	MAPS 1기	기존문항 유지
	문화적응스트레스	○	○	MAPS 1기	- 외국인 부모님 나라 → (아버지/어머니) 나라
	국가정체성	○	○	MAPS 1기	기존문항 유지
	이중문화수용태도	○	○	MAPS 1기	기존문항 유지
가정 요인	부모의 외국인 여부	○	○	MAPS 1기	기존문항 유지
	가정형편	○	○	연구진 작성	- MAPS 1기 학부모용 설문지 발체
	부모의 지지	○	○	MAPS 1기	기존문항 유지
	아버지에 대한 생각	○	○	MAPS 1기	기존문항 유지
	어머니에 대한 생각	○	○	MAPS 1기	기존문항 유지
	부모의 양육태도	○	○	MAPS 1기	기존문항 유지
	부모와의 활동	○	○	청소년 종합실태조사 (2017)	신규문항
	부모와의 대화 시간	○	○	청소년 종합실태조사 (2017)	신규문항(양육자 → 삭제)
	방과후 보호자 부재	○	○	청소년 종합실태조사 (2017)	신규문항
중도 입국	한국에 오기 전 부모 님과 떨어져 산 기간	-	○	연구진 작성	신규문항
	부모님과 떨어져 있 는 동안 함께 산 사람	-	○	연구진 작성	신규문항
	한국에 오기 전 학교 경험	-	○	연구진 작성	신규문항
	한국 입학(편입) 학년	-	○	연구진 작성	신규문항
	한국 입국 후 초·중·학 교 입학 전 생활	-	○	연구진 작성	신규문항
	한국 입국 후 한국어 교육 경험	-	○	연구진 작성	신규문항

요인	내용	국내 출생	외국 출생	출처	수정내용
	한국어 실력	-	○	MAPS 1기	기존문항 유지
	국적취득 희망	-	○	연구진 작성	신규문항
	한국거주 희망	-	○	연구진 작성	신규문항
	학교생활 전체에서 가장 어려운점	-	○	연구진 작성	신규문항
지역 사회 지지	학교 밖 도와주는 어른 존재 여부	○	○	MAPS 1기	기존문항 유지
	(있다면) 학교 밖 도와 주는 어른 누구인가	○	○	MAPS 1기	- 청소년 수련관, 복지관, 다문화센터 등 각종 청 소년시설 선생님 → 각종 지역기관 선생님(예, 청소년 수련관, 사회복지관, 다문화센터 등)

2) 어머니

다음으로 어머니 설문문항의 요인 및 내용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어머니의 경우 크게 다섯 가지 영역으로 문항을 구성하였는데, i)가족 및 배경특성, ii)자녀 교육 및 양육, iii)심리사회적응 및 건강, iv)문화적응, v)정책적 지원에 대한 태도 등이었다. 그 중 첫 번째 요인인 가족 및 배경특성은 가장 처음 가구원부에서 해당 가족구성원 전체에 대한 응답을 하도록 구성하였는데, 특히 청소년들에 대한 정보 중 청소년들이 응답하기 어려운 문항의 경우 어머니가 응답하도록 하였다. 구체적 내용으로는 가족구성원별 성별, 생년월일, 응답자와의 관계, 교육정도, 조사대상 학생의 학교, 가족 구성원들의 출생시 국적과 현재 국적, 교육수준, 비자 종류 등으로 구성하였고, 직업, 연락처, 모국어, 배우자와의 결혼상태, 초혼여부, 배우자와의 관계만족도, 월평균소득수준, 주요소득원, 가정형편에 대한 주관적인 지각 등은 조사지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이는 모든 학부모가 공통적으로 응답하는 문항들이었다.

두 번째 요인은 자녀 교육 및 양육에 대한 내용으로 자녀와 대화 시 사용언어, 자녀와의 의사소통정도, 자녀의 모국어 능력, 자녀가 모국어를 못하는 이유, 초등

학교 입학 전 주 양육자, 자녀교육관련 주 의사결정자, 자녀의 학교교육에 대한 도움정도, 자녀의 학교문제와 숙제를 지도해주는 사람, 자녀의 성적향상을 위한 노력, 자녀의 학교생활을 위해 하는 행동, 희망하는 자녀의 교육수준, 자녀의 거주 방식, 자녀가 나중에 갖기를 원하는 직업, 선호하는 자녀의 교육방식, 사교육 경험, 자녀양육 시 어려운 점, 부모효능감 등을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이 내용은 모든 학부모가 공통적으로 응답하는 문항이었고,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연령과 입학이 늦은 이유는 국내출생 중, 국적이 없거나 미등록인 경우를 고려하여 구성하였다. 또한 외국출생청소년인 경우 입국 후 초등학교 입학까지 걸린 시간, 입학 전 기간 소요의 이유 등을 추가로 질문하도록 하였다.

세 번째 요인은 심리·사회적응 및 건강에 대한 내용으로 어머니의 자아존중감, 차별경험 피해여부, 차별경험가해자, 차별경험 대처방법 등을 문항으로 구성하였고, 신체적 건강으로 전반적으로 얼마나 건강하다고 생각하는지 주관적 건강수준도 구성하였다.

네 번째 요인은 문화적응요인으로 주로 언어와 문화적응의 내용인데, 한국어학습경험, 한국어학습시기, 한국어 학습방식, 한국어 공부 기간, 한국어 수준 등 언어와 관련된 문항과 주변에 걱정거리를 의논할 수 있는 사람, 평소 주로 어울리는 사람, 한국생활이 모국생활과 달라서 어려운 점, 문화적응스트레스, 문화적응유형 등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마지막으로 다문화청소년에 대한 정책적 지원과 관련하여 어디에서 지원을 해주기를 원하는지, 서비스 지원 경험 및 도움의 정도, 다문화청소년만 선별적으로 지원해주는 특별지원의 필요성, 그리고 특별지원의 방법 등에 대한 학부모로서의 입장을 측정하고자 하였다.

표 IV-7. 어머니 설문문항의 요인 및 내용

◎ 국내출생, 외국출생 청소년 학부모 대상, ○ 국내출생 청소년 학부모 대상, ● 외국출생 청소년 학부모 대상

요인	내용
가족 및 배경 특성	◎ 성별◎, 생년월일◎, 응답자와의 관계◎, 교육정도◎, 조사대상 학생의 학교◎, 국적(출생시/현재)◎, 조사학생의 성별◎, 조사학생의 연령◎, 비자종류◎, 입국시기◎, 직업◎, 연락처◎, 모국어◎, 배우자와의 결혼상태◎, 초혼여부◎, 배우자 관계 만족◎, 월평균 소득◎, 주요 소득원◎, 가정형편에 대한 지각◎
자녀 교육 및 양육	◎ 자녀와 대화시 사용언어◎, 자녀와의 의사소통 정도◎, 자녀의 모국(본국)어 능력◎, 자녀가 모국어 못하는 이유◎, 초등학교 입학 전 주양육자◎, 자녀교육 관련 주 의사결정자◎, 자녀의 학교교육에 대한 도움정도◎, 자녀의 학교문제나 숙제지도를 주로 하는 사람◎, 자녀의 성적향상을 위한 노력◎, 자녀의 학교생활을 위해 하는 활동◎, 희망하는 자녀의 교육수준◎, 자녀의 거주방식◎, 자녀가 나중에 갖기를 원하는 직업◎, 선호하는 자녀의 교육방식◎, 사교육 경험 여부 및 비용 부담정도◎, 자녀 양육시 어려운 점◎, 부모효능감◎
	○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 연령○, 입학 늦은 이유○
	● 입국 후 초등학교 입학까지 걸린 기간●, 입학 전 소요기간 이유●,
심리·사회 적응 및 건강	◎ 자아존중감◎, 차별경험 피해여부◎, 차별경험 가해자◎, 차별경험 대처◎, 전 반적 건강◎
문화적응	◎ 한국어 학습 경험◎, 한국어 학습 시기◎, 한국어 학습 방식◎, 한국어 공부 기간◎, 한국어 수준◎, 걱정거리 의논할 수 있는 사람◎, 평소 주로 어울리는 사람◎, 한국생활이 모국문화와 달라서 어려운 점◎, 문화적응 스트레스◎, 문화적응유형◎
정책적 지원에 대한 태도	◎ 지원프로그램 제공장소 선호◎, 서비스 지원 경험 및 도움정도◎, 특별지원 필요성◎, 특별지원 방법◎

어머니 대상 문항 역시 기본적으로 1기 다문화청소년종단조사문항을 유지하되, 조사문항설계의 기본원칙에 근거하여 새로이 포함하였고 기존의 문항을 소폭 수정하였다. 어머니 대상별 문항의 내용과 출처 및 수정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표 IV-8. 어머니 설문지의 문항별 출처 및 수정내용

요인	내용	국내 출생	외국 출생	출처	수정내용
가족 및 배경 특성	성별	○	○	MAPS 1기	기존문항 유지
	생년월일	○	○	MAPS 1기	기존문항 유지
	응답자와의 관계	○	○	MAPS 1기	기존문항 유지
	교육정도	○	○	MAPS 1기	기존문항 유지
	조사대상 청소년의 학교	○	○	MAPS 1기	기존문항 유지
	국적(출생시/현재)	○	○	MAPS 1기	- 출신국가 → 국적 (출생시/현재)
	비자종류	○	○	연구진 구성	신규문항
	입국시기	○	○	연구진 구성	신규문항
	직업	○	○	MAPS 1기	기존문항 유지
	연락처	○	○	MAPS 1기	기존문항 유지
	모국어	○	○	MAPS 1기	기존문항 유지
	배우자와의 결혼상태	○	○	MAPS 1기	기존문항 유지
	초혼여부	○	○	MAPS 1기	기존문항 유지
	배우자 관계 만족	○	○	국내 난민아동 한국사회 적응 실태조사(2018)	신규문항
	월평균 소득	○	○	MAPS 1기	기존문항 유지
	주요 소득원	○	○	MAPS 1기	기존문항 유지
	가정형편에 대한 지각	○	○	MAPS 1기	기존문항 유지
자녀 교육 및 양육	자녀와 대화시 사용언어	○	○	MAPS 1기	기존문항 유지
	자녀와의 의사소통 정도	○	○	MAPS 1기	기존문항 유지
	자녀의 모국 (본국)어 능력	○	○	연구진 구성	신규문항
	자녀가 모국어 못 하는 이유	○	○	연구진 구성	신규문항
	초등학교 입학 전 주양육자	○	○	MAPS 1기 연구진 수정	- 자녀가 만 6세 이전이었을 때 → 자녀가 초등 학교 입학 전 - 친구 또는 지인 → 추가

요인	내용	국내 출생	외국 출생	출처	수정내용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 연령	○	-	연구진 구성	신규문항
	입학 늦은 이유	○	-	연구진 구성	신규문항
	입국 후 초등학교 입학까지 걸린 기간	-	○	연구진 구성	신규문항
	입학 전 소요기간 이유	-	○	연구진 구성	신규문항
	자녀교육 관련 주 의사결정자	○	○	MAPS 1기	기존문항 유지
	자녀의 학교교육 에 대한 도움정도	○	○	MAPS 1기	기존문항 유지
	자녀의 학교문제나 숙제지도를 주로 하는 사람	○	○	MAPS 1기	기존문항 유지
	자녀의 성적향상을 위한 노력	○	○	MAPS 1기	기존문항 유지
	자녀의 학교생활을 위해 하는 활동	○	○	MAPS 1기 연구진 수정	- 3개 항목(담임교사 면담, 학부모 회의 참석, 학 부모 교육 참석) 발체
	희망하는 자녀의 교육수준	○	○	MAPS 1기	기존문항 유지
	자녀의 거주방식	○	○	연구진 구성	신규문항
	자녀가 나중에 갖 기를 원하는 직업	○	○	MAPS 1기	기존문항 유지
	선호하는 자녀의 교육방식	○	○	MAPS 1기	기존문항 유지
	사교육 경험 여부 및 비용 부담정도	○	○	MAPS 1기	항목분리 및 항목별 비용 부담 정도 추가 - 교과목 관련 사교육 (학원, 과외, 인터넷 강의 등) - 특기적성(음악, 미술, 체육, 컴퓨터 등) 관련 사교육
	자녀 양육시 어려운 점	○	○	국내 난민아동 한국사회 적응 실태조사 (2018) 연구진 수정	- 자녀 교육에 필요한 경제적 지원을 하기 어려 워서 →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충분히 지원해 주지 못하는 것 - 선생님과 소통이 어려워져서 → 학교 선생님과 의 소통이 어려운 것 - 자녀가 의료보험이 없어서 병원 치료가 어려

요인	내용	국내 출생	외국 출생	출처	수정내용
					운 것 → 추가
	부모효능감	○	○	MAPS 1기	기존문항 유지
	자아존중감	○	○	MAPS 1기	기존문항 유지
심리 사회 적응 및 건강	차별경험 피해여부	○	○	국내 난민아동 한국사회 적응 실태조사(2018)	- 있었다 → 예/ 없었다 → 아니오
	차별경험 가해자	○	○	연구진 수정	신규문항
	차별경험 대처	○	○	연구진 수정	신규문항
	전반적 건강	○	○	MAPS 1기	기존문항 유지
	한국어 학습 경험	○	○	MAPS 1기	기존문항 유지
	한국어 학습 시기	○	○	연구진 구성	신규문항
	한국어 학습 방식	○	○	MAPS 1기 연구진 수정	- 주관식문항을 객관식으로 수정 ①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복지관 등에서 ② 방문교육서비스를 받았다 ③ 인터넷 강의를 들었다 ④ 교재를 사서 혼자서 공부했다 ⑤ 개인적으로 과외를 받았다 ⑥ 기타(적어주세요)
문화 적응	한국어 공부 기간	○	○	MAPS 1기	기존문항 유지
	한국어 수준	○	○	MAPS 1기	기존문항 유지
	걱정거리를 의논 할 수 있는 사람	○	○	MAPS 1기	기존문항 유지
	주로 어울리는 사람	○	○	MAPS 1기	기존문항 유지
	한국생활이 모국문화 와 달라서 어려운 점	○	○	MAPS 1기	기존문항 유지
	문화적응 스트레스	○	○	MAPS 1기	기존문항 유지
	문화적응유형	○	○	MAPS 1기	기존문항 유지
지원에 대한 태도	지원프로그램 제공장소 선호	○	○	MAPS 1기	기존문항 유지
	서비스 지원 경험 및 도움정도	○	○	김영혜, 김다경 (2016)	신규문항
	특별지원 필요성	○	○	MAPS 1기	기존문항 유지
	특별지원 방법	○	○	MAPS 1기	기존문항 유지

○———— 제Ⅴ장 조사설계

- 1. 조사대상 및 주기
- 2. 조사방법



1. 조사대상 및 주기

1) 조사대상

본 연구의 조사대상은 2019년 기준 전국의 초등학교 4학년에 재학 중인 다문화 청소년으로 국내출생자와 외국출생자를 대상으로 패널을 구축하고 이들이 청소년 기본법상의 청소년연령인 24세까지 종단추적을 하여 다문화청소년에 대한 기초 자료를 구축하는 것이다.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다른 종단데이터와 달리 본 연구는 발달단계에 있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청소년을 둘러싼 환경요인을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청소년 뿐 아니라 그들의 학부모를 대상으로 패널을 구축하여 부모와 자녀를 함께 조사 할 예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조사대상은 2019년 기준 교육통계(교육부)에 집계된 전국의 초등학교 4학년에 재학 중인 다문화학생과 그들의 학부모가 대상이다. 이 때 학부모는 기본적으로 어머니를 의미하며 어머니의 응답이 불가능한 경우 아버지 등 대체양육자가 응답을 하도록 계획하고 있다.

2) 조사주기

본 조사의 주기는 1기 다문화청소년 패널조사와 마찬가지로 1년을 단위로 매년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매년 조사를 계획하는 이유는 데이터가 1년 단위로 확보 될 수 있고, 패널유지 및 관리의 측면에서 용이하다는 점(유한구, 채창균, 류지영, 2015:169)도 있으나 청소년기라는 발달특성 상 성인에 비해 동일한 기간 내 변화의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변화된 특성들을 민감하게 측정해낼 필요가 있다는 이유가 더 크다.

이 때 조사의 시기는 1기 다문화청소년패널조사와 함께 할 예정인데, 단계별로 보자면, 크게 초등학교 고학년 시기, 중학교 시기, 고등학교 시기, 고등학교 졸업 이후 등 네 개 단계로 나눌 수 있다. 아래의 그림과 같이 2019년 기준 1기 패널들은 고3으로 진학한다. 이들을 종단추적함과 동시에 새로이 초등학교 4학년에 진입한 다문화청소년들을 신규패널로 구축하여 매년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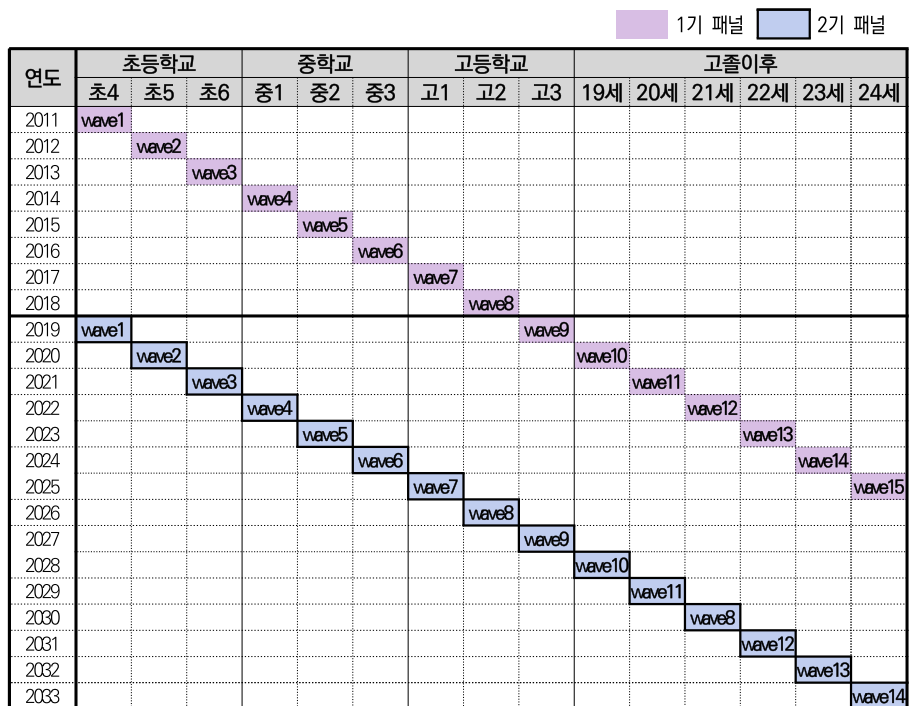


그림 V-1. 1기 다문화청소년종단조사와 신규패널의 조사주기

2. 조사방법

다문화청소년패널조사 1기의 경우 컴퓨터를 기반으로 하는 CAPI(Computer Assistant Personal Interview)방식으로 조사를 수행하였다. CAPI 방식은 기존의 지필검사에 비해 많은 장점이 있어서 1기 패널에서 채택을 하였으나 최근 들어서는 TAPI(Tablet Assistant Personal Interview)방식이 선호됨에 따라 신규패널조사는 처음부터 TAPI로 조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였다. CAPI 방식의 경우 1기 다문화청소년패널조사에서 이미 개발이 되어 있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추가로 개발하는 데 드는 소요시간과 비용이 단축된다는 점, 기존의 다문화청소년패널조사를 실시하는 조사원들에게 이미 익숙한 구조이기에 조사원 교육 및 시스템 활용의 숙련을 위한 소요시간이 단축될 수 있다는 점, 키보드가 있어서 오픈응답을 작성할 때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이에 비해 데이터가 웹상에서 자동적으로 취합되지 않고, 개별 노트북에서 데이터를 일일이 다운받아야하는 번거로움과 노트북 고장 등 위기상황에서 데이터 손실의 가능성이 있으며, 조사원들이 노트북을 휴대하기에 무겁다는 단점이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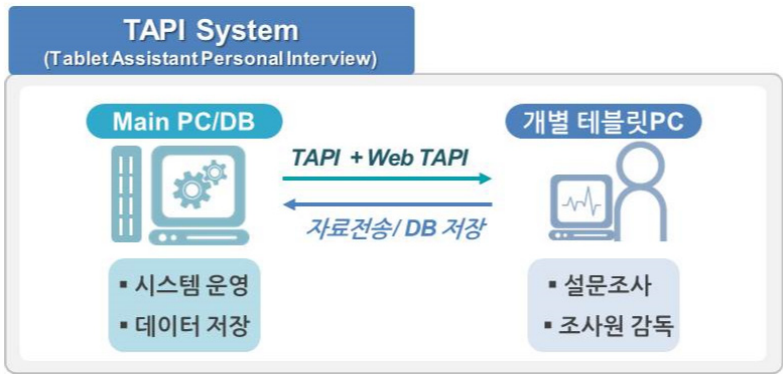


그림 V-2. TAPI 시스템의 구조

이에 비해 TAPI방식은 태블릿 PC를 사용함으로 인하여 데이터가 웹상에서 자동으로 취합될 수 있고, 따라서 데이터 손실의 가능성이 없으며, 조사현황을 실시간으로 확인가능하다는 점을 가장 큰 장점으로 들 수 있다. 또한 화면 터치 기능이 있어서 응답이 편리하고, 휴대가 간편하다는 점도 큰 장점이다. 다만 새로 TAPI시스템을 새로 개발하는 데 시간이 소요되었고, 기존의 CAPI에 익숙한 조사원들을 대상으로 태블릿 PC활용방법에 대한 교육을 추가로 제공하는 데 시간과 노력이 소요된다는 단점을 지닌다.

표 V-1. CAPI와 TAPI의 특성 비교

	CAPI	TAPI
조사도구	노트북	태블릿 PC
문항구조	자동이동	자동이동
데이터 편집	자동실행	자동실행
전달방법	개별노트북에서 다운로드	데이터 자동취합
자료입력	조사시 즉시 입력	조사시 즉시 입력
산출물	전산데이터	전산 데이터
휴대용이성	다소 무거움	휴대에 간편함

이에 본 신규패널 예비조사에서는 TAPI를 시험적으로 도입하여 시행하고, 조사원 간담회 및 조사 실사팀과 논의하여 의견을 취합한 후 최종적으로 CAPI와 TAPI 중 어떤 시스템을 활용할지 결정하고자 하였다. 현재 상태로 예비조사 문항에 대한 TAPI시스템은 구축 완료되었고, 시험조사를 마친 상태이며, 각 조사문항에 대한 번역본이 6개 국어로 번역하여 TAPI에 탑재하였다.

제Ⅵ장 결 론

- 1. 연구의 의의
- 2. 향후 계획

1. 연구의 의의

본 연구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지금까지 8년간 추진해 오고 있는 1기 다문화청소년 종단조사의 2기 신규패널을 구축하기 위한 신규패널설계연구로, 조사표본설계, 조사문항개발, 조사방법으로써 TAPI시스템 개발을 수행한 연구이다. 본 연구의 의의는 첫째, 기존의 1기 다문화청소년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극복하고 변화된 한국사회의 다문화지형을 좀 더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고자 하였다는 점이다. 앞의 서론에서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본 연구는 2011년에 당시 초등학교 4학년이던 다문화청소년을 대상으로 패널을 구축하고 지금까지 8년째 추적을 하고 있다. 이 연구를 통해 많은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고 다문화청소년에 대한 균형 잡힌 시각을 제공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출생 다문화청소년들이 대거 표집된 결과 최근 들어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중도입국청소년과 외국인가정자녀, 또는 국내출생자들 중 국적을 획득하지 못했거나 외국인등록을 하지 않은 채 한국에서 살아가고 있는 다양한 다문화청소년들의 발달특성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었다. 그런 측면에서 본 연구가 신규패널을 통해 국내출생 다문화청소년 뿐 아니라 보다 다양한 유형의 다문화청소년들의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설계를 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지닌다고 하겠다.

둘째는 1기 다문화청소년종단조사의 결과와 비교를 통해 다문화청소년들의 발

달환경 등 한국사회의 변화를 비교할 수 있게 설계되었다는 점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1기 다문화청소년 종단조사의 이론적 틀을 적용함으로써 조사문항을 유지시키고 사회적 변화에 맞지 않는 부분만 수정하고자 했다. 신규패널이 구축되어 자료를 생산할 경우 1기 패널과 2기 패널의 비교를 통해 2011년 4학년이었던 집단의 특성과 2019년 4학년인 집단의 특성을 비교분석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셋째는 보다 정확한 모집단 정보를 파악함으로써 보다 대표성 있는 표본설계가 가능했다는 점이다. 2011년 당시에는 모집단 정보가 정확하지 않아 가중치산정에 어려움을 겪는 등 한계를 지니고 있었다. 그러나 현재 수행한 표본설계는 2018년 4월 기준의 가장 최근 자료를 토대로 학년별 부모출신국별 성별 자료를 근거로 수행되어 보다 정확한 추정이 가능해졌다. 신규패널의 데이터가 구축될 경우 1기 패널에 비해 더 대표성 있는 데이터를 산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본 조사는 새로운 패널조사를 위한 설계를 수행하였는데, 이는 향후 다문화청소년에 대한 다양한 영역의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학술적 이론적으로 풍부한 연구결과들을 도출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할 것이다.

2. 향후 계획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본 연구에서는 신규패널을 구축하기 위한 표본설계, 조사문항설계, TAPI시스템 구축 및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2019년에는 예비조사결과를 분석한 후 자문회의를 거쳐서 최종 문항을 도출할 것이다. 이와 관련한 절차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절차	내용
1 선행연구 검토	다문화청소년 중 중도입국청소년과 외국인가정자녀 등 외국출생 자녀에 대한 선행연구를 분석하고 신규패널에 포함될 특성에 대한 요인 추출
2 전문가자문회의	- 다문화청소년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신규패널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을 특성을 중심으로 자문회의 실시 후 주요 요인 추출 - 관련부처요구 수렴회의
3 표본설계	2019년 초등학교 4학년 조사를 위하여 2018년 현재 초등학교 3학년을 기준으로 표본 설계함.
4 조사문항설계	1차 조사문항(안) 도출 - 다문화청소년 2종/학부모 4종
5 TAPI구축	1차 조사문항(안)을 기준으로 TAPI시스템을 구축하고 시험조사 완료 - 각 설문지를 6개 국어로 번역
6 예비조사	유형별 다문화청소년, 학부모 대상 예비조사 실시
7 조사결과 분석	조사결과 분석, 문항의 타당도와 신뢰도 분석
8 전문가 자문회의	분석된 결과를 토대로 전문가 자문회의
9 최종수정본 도출	조사문항의 최종 수정본 도출
10 본조사	2019년 패널구축 및 실사

그림 VI-1. 신규패널설계연구의 추진과정



참고문헌

참고문헌

- 강대중 (2013). 중도입국 학생의 학교생활 분석. **한국실과교육학회지**, 26(2), 215-234.
- 고남정, 오성배 (2016). 학교 재학과 학교 밖 기관 이용 여부가 중도입국 청소년의 한국어 능력에 미치는 영향. **교육문화연구**, 22(4), 271-289.
- 고은혜, 배상률 (2017). 부모와의 별거경험이 중도입국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24(4), 211-232.
- 권미경, 이소연 (2017). 중도입국청소년의 한국어학습 동기와 학업성취에 관한 질적 연구. **새국어교육**, 110, 147-181.
- 권보근, 장인실 (2017). 중도입국 청소년의 학교 적응 요인 연구.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7, 51-73.
- 김기현, 이재희, 홍혜미 (2013). 결혼 이주 가정 및 중도 입국 청소년들의 민족 정체성 탐색과 형성. **사회복지연구**, 봄, 165-192.
- 김명정 (2011). 동반· 중도입국 자녀들을 위한 다문화교육. **교육문화연구**, 17(2), 55-76.
- 김미강 (2018). 중도입국 청소년의 문화적응이 한국어 숙달도와 학업 성취도에 미치는 영향. **이중언어학**, 70, 29-57.
- 김영란 (2013).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에 나타난 초 6 다문화 가정 학생의 국어과 학업성취도-국내 출생, 중도입국, 외국인 가정 학생을 중심으로. **국어교육학연구**, 48, 125-151.

- 김영혜, 김다경 (2016). **경기도 다문화 자녀양육 실태 및 지원방안** (정책보고서 2016-30). 경기도: (재)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 김용란 (2016). 중도입국 청소년의 생활 및 적응 실태에 관한 토론. **한국가족사회 복지학회 학술발표논문집**, 2016(1), 53-56.
- 김지경, 백혜정, 임희진, 이계오 (2010).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2010 I** (연구보고 10-R01).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김현철, 박혜랑 (2016). 중도입국 다문화학생의 학년배치. **교육학연구**, 54(1), 259-286.
- 류방란, 오성배, 박균열, 송인영, 박지은 (2011). **외국출생 동반입국 청소년을 위한 한 교육복지 정책방안** (2011 연구보고서 15-4),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류영철 (2016). 중도입국 학생을 위한 다문화 교육의 효율적 방안. **다문화와 평화**, 10(1), 72-102.
- 맹재숙, 박수정 (2017). 중도입국학생의 공교육 진입 지원을 위한 교육 계획 분석: 네트워크 텍스트 분석을 활용하여. **글로벌교육연구**, 9, 35-60.
- 박미정 (2017). 중도입국청소년과 비다문화청소년의 사회적응력 비교 연구: 자아탄력성의 조절효과 검증을 중심으로. **다문화와 평화**, 11(3), 51-64.
- 박성옥 (2016). 중도입국 청소년의 조기적응 프로그램 운영실태 사례 및 발전방안 연구. **다문화교육연구**, 9(3), 83-105.
- 박지윤 (2011). 중도입국 다문화가정 자녀를 위한 통역 보조교사제에 대한 제언. **이화어문논집**, 29, 103-125.
- 배상률 (2016). **중도입국 청소년 실태 및 자립지원 방안 연구** (연구보고 16-R04).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배은주 (2006). 이주노동자 자녀들의 교육복지 실태와 주요 쟁점. **아시아교육연구**, 7(4), 49-85.
- 백혜정, 임희진, 김현철, 유성렬 (2017). **2017년 청소년종합실태조사** (연구보고 2017-10). 서울: 여성가족부.

- 서덕희, 조은혜 (2017). 중도입국청소년의 진로성향과 그 생태학적 조건에 대한 탐색. **교육문화연구**, 23(1), 217-247.
- 서은숙 (2016). 중도입국 (이민) 청소년 다문화교육. **윤리연구**, 106, 275-304.
- 설규주 (2017). 외국인가정 자녀의 학교교육 실태와 개선 방향 모색을 위한 기초 연구. **교육연구**, 68, 113-150.
- 설동훈, 한건수, 박순영, 심경섭 (2017). 2017년 국제결혼중개업 실태조사 연구 (연구보고 2017-23). 서울: 여성가족부 다문화정책과.
- 손영화, 박봉수 (2015). 학교 밖 중도입국청소년의 인권에 관한 사례 연구. **교육문화연구**, 21(1), 75-102.
- 신상록 (2016). 학령기 중도입국자녀 실태와 비자제도 개선 방안. **한국지방정부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399-419.
- 양계민, 강경균 (2017). **다문화청소년 종단조사 및 정책방안 연구V : 총괄보고서** (연구보고 17-R12).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양계민, 김승경, 김윤영 (2012). **다문화가정 아동·청소년의 발달과정 추적을 위한 종단연구 III** (연구보고 12-R08).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양계민, 김승경, 박주희 (2011).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의 발달과정 추적을 위한 종단연구 II** (연구보고 11-R07).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엄명용 (2013). 다문화가정 중도입국청소년의 한국 사회 적응 영향 요인. **한국가족복지학**, 42(12), 39-82.
- 오성배 (2011). 외국인 이주 노동자 가정 자녀의 재학 학교 특성에 따른 교육 지원 실태와 문제 탐색. **순천향 인문과학논총**, 29, 245-281.
- 오승환, 좌현숙 (2015). 중도입국 청소년과 일반 다문화가족 청소년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비교. **학교사회복지**, 32, 385-412.
- 유한구, 채창균, 류지영 (2015).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 이행에 대한 패널조사 설계** (연구보고: 기본연구 2015-9). 세종: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윤향희, 김경제 (2016). 중도입국청소년을 위한 청소년복지지원법의 개선방향.

- 유럽헌법연구, 20, 353-388.
- 이기재, 박승환 (2014). **어업경영조사 품질개선 컨설팅 최종결과보고서** (2014년도 국가통계 품질개선 컨설팅 연구용역). 대전: 통계청.
- 이남주, 김민 (2017). 고려인 중도입국청소년의 학교생활 경험에 대한 내러티브 탐구. **다문화교육연구**, 10(1), 141-170.
- 이유신, 김한성 (2014). 중도입국 아동·청소년의 차별경험과 학교생활부적응: 교사지지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학교사회복지**, 29, 263-282.
- 이은미, 김성수 (2012). 정서·행동장애 중도입국 다문화청소년의 시계열적 자기 이야기 (self-narrative) 분석. **발달장애연구**, 16, 171-193.
- 이춘양, 박미숙 (2017). 후기청소년기 중국계 중도입국청소년 체류경험에 관한 연구. **다문화와 평화**, 11(3), 160-178.
- 이혜원, 이혜영 (2012). 이주노동자 자녀의 학교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민주사회와 정책연구**, 22, 132-161.
- 이효인 (2015). 중도입국 자녀 대상 한국어 교육 연구: 전남 지역 현황과 과제를 중심으로. **호남문화연구**, 58, 307-331.
- 정상우, 박지인 (2018). 이주아동 권리보장을 위한 입법 필요성과 과제. **다문화사회연구**, 11(1), 261-293.
- 정해숙, 김이선, 이택면, 마경희, 최윤정, 박건표, 동제연, 황정미, 이은아 (2016). **2015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분석** (연구보고 2016-03). 서울: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정책과.
- 정희정, 김소연 (2014). 다문화가족 중도입국자녀의 사회연결망에 관한 사례연구: 청소년 상담지원체계를 중심으로. **Korean Journal of Family Welfare**, 19(4), 831-853.
- 조은희, 오성배 (2017). 중도입국청소년의 한국어 능력과 정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교육문화연구**, 23(5), 499-516.
- 조혜영 (2012). **중도입국 청소년의 정체성 형성과정 및 적응지원 방향 모색**에 관한

- 연구. **청소년복지연구**, 14(4), 311-335.
- 조혜영, 양계민 (2012). 중도입국청소년 학업실태 및 진로포부에 대한 탐색적 연구. **청소년복지연구**, 14(3), 141-168.
-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아동복지연구소 (2018). **국내 난민아동 한국사회 적응 실태 조사** (연구보고 2017-11). 서울: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아동복지연구소.
- 통계청 (2017). **2017년 사회조사표(청소년)**. <http://kostat.go.kr>. 2018년 7월 27일 검색.
- 통계청 (2018a). 통계설명자료, 통계별설명자료조회, **다문화청소년패널조사**. <https://meta.narastat.kr/metasvc/index.do?confmNo=402003&inputYear=2018>. 10. 21 검색.
- 통계청 (2018b). 통계설명자료, 통계별설명자료조회, **국제결혼중개실태조사**. <https://meta.narastat.kr/metasvc/index.do?confmNo=154017&inputYea=2018>. 10. 21 검색.
- 통계청 (2018c). 통계설명자료, 통계별설명자료조회,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https://meta.narastat.kr/metasvc/index.do?confmNo=117079&inputYear=2015>. 2018. 10. 19 검색.
- 통계청 (2018d). 통계품질관리, **제도개요**. http://kostat.go.kr/portal/korea/kor_pi/8/1/index.action 2018. 10. 21 검색.
- 통계청 (2018e). **2018년 국가통계 품질관리 매뉴얼: 정기통계품질진단** (11-1240000-000699-10). 대전: 통계청 품질관리과.
- 하형식, 이종원, 김성은, 한지형 (2018). **한국 아동·청소년 패널조사 IX: 사업보고서**.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한국조사연구학회 (2012). **국민건강영양조사 제6기 표본설계 및 제5기 가중치 산출** (학술연구용역사업 최종결과보고서). 충북: 질병관리본부.
- 홍종명 (2016). 한국어 (KSL) 교육과정 운영 체계와 중도입국 학습자의 특징. **국제한국어교육학회 국제학술발표논문집**, 2016, 72-76.

- Fellegi, I. P., & Holt, D. (1976). A systematic approach to automatic edit and imputation. *Journal of the American Statistical Association*, 71(353), 17-35.
- Granquist, L. (1995). Improving the traditional editing process. *Business survey methods*, 385-401.

ABSTRACT

NYPI has conducted multicultural youth panel studies(MAPS) for multicultural teenagers since 2011. The study is the only longitudinal panel study of multicultural youth in Korea, which has contributed so far to the orientation and policy alternative to multicultural youth policies based on more objective perspectives. However, recently, as the number of the multicultural youths are increasing in schools, it is expected that there will be limits in identifying the current status of multicultural teenagers with established data, so the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wanted to build a new panel for current elementary school students. For the purpose, the research team promoted sample design, question design, and survey method design of the new panel, and ultimately designed a TAPI system to improve efficiency by applying more up-to-date techniques to the new panel survey. This study has prepared us to accurately identify not only multicultural teenagers but also more diverse types of multicultural teenagers who are born in Korea, which is expected to provide a basis for generating a rich academic and theoretical study results by providing various fields of data on multicultural youth in the future.

2018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간행물 안내

기관과유과제

- 18-R01 제4차 산업혁명시대 대비 청소년활동정책 전략 연구 / 이경상·이창호·김민
- 18-R02 가정 밖 청소년의 실태와 자립지원 방안 연구 / 김희진·백혜정·김은정
- 18-R02-1 가정 밖 청소년의 실태와 자립지원 방안 연구 - 기초분석 보고서 / 김희진·백혜정
- 18-R03 소년범죄자의 재범 실태 및 방지 대책 연구 / 최정원·강경균·강소영·김혁
- 18-R04 청소년 '일 경험' 제도 운영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 I / 황여정·김승경
- 18-R05 20대 청년 심리·정서 문제 및 대응방안 연구 / 김지경·이윤주
- 18-R06 청년 사회·경제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 III / 김형주·임지연·유설희
- 18-R06-1 청년 사회·경제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 III - 전년도 공개데이터 심층분석보고서 / 김형주·임지연·유설희
- 18-R06-2 청년 사회·경제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 III - 기초분석보고서 / 김형주·임지연·유설희
- 18-R07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조사 연구 V / 임희진·문호영·정정호
- 18-R07-1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조사 연구 V - 기초분석보고서 / 임희진·문호영
- 18-R08 위기청소년 교육적 선도제도 운영실태 및 실효성 제고방안 연구 / 김지연·이유진·정소연·박선영
- 18-R08-1 위기청소년 교육적 선도제도 운영실태 및 실효성 제고방안 연구 : 기초분석 보고서 / 김지연·정소연
- 18-R09 국가 미래인적자원으로서 재외동포청소년 성장과 지원방안 연구 I / 정은주·김정숙
- 18-R10 증거기반정책 수립을 위한 아동·청소년·청년 통계관리 체계화 방안 연구 / 최용환·성윤숙·박상현
- 18-R11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조사 및 조성사업 연구VI :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조사 분석 및 청소년동아리활동과 마을공동체 지원 방안 / 오해섭·최인재·염유식
- 18-R12 아동·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 연구 -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2018 총괄보고서 / 최창욱·황세영·유민상·이민희·김진호
- 18-R12-1 아동·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 연구 -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2018 기초분석보고서 / 최창욱·황세영·유민상
- 18-R13 한국 아동·청소년패널조사IX : 사업보고서 / 하형석·이종원·정은진·김성은·한지형
- 18-R14 다문화청소년 종단연구 2018 : 총괄보고서 / 양계민·황진구·연보라·정윤미
- 18-R14-1 다문화청소년 종단연구 2018 : 신규패널설계보고서 / 양계민
- 18-R14-2 다문화청소년 종단연구 2018 : 기초분석보고서 / 양계민·정윤미

협동연구과제

-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8-57-01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및 국제비교 연구Ⅴ : IEA ICCS 2016 -
총괄보고서 / 장근영 · 성은모 · 모상현 · 진성희 · 최효선 · 김균희 (자체번호 18-R15)
-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8-57-02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및 국제비교 연구Ⅴ : IEA ICCS 2016 -
ICCS 결과 보고서 / 장근영 (자체번호 18-R15-1)
-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8-57-03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및 국제비교 연구Ⅴ : IEA ICCS 2016 -
사회참여역량 분석 / 김태준 · 홍영란 · 김미란 · 김홍민 (자체번호 18-R15-2)
-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8-58-01 학교 밖 청소년 지역사회 자원모델 개발연구Ⅰ : 질적 패널
조사를 중심으로 / 윤철경 · 서정아 · 유성렬 · 이동훈 (자체번호 18-R16)
-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8-58-02 학교 밖 청소년 지역사회 자원모델 개발을 위한 기초조사 /
조아미 · 임정아 · 이지연 · 김남은 (자체번호 18-R16-1)
-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8-59-01 청년 핵심정책 대상별 실태 및 자원방안 연구Ⅰ : 청년
니트(NET) / 김기현 · 배상률 · 상재민 (자체번호 18-R17)
-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8-59-02 청년 핵심정책 대상별 실태 및 자원방안 연구Ⅰ : 청년
니트(NET) - 해외사례 조사 / 채창균 · 양정승 · 김민경 · 송산혜 (자체번호 18-R17-1)

수 시 과 제

- 18-R18 소외계층 진로교육 활성화 방안 / 김정숙 · 연보라
- 18-R19 청소년우대정책 현황 및 해외사례 분석 연구 / 김경준 · 모상현 · 송태진
- 18-R20 경찰의 가정 밖 청소년 보호조치 개선 방안 : 외국의 사례와 시사점을 중심으로 /
김지연 · 김희진
- 18-R21 학교폭력 피·가해학생간 효율적 화해·분쟁조정을 위한 연구 / 이경상 · 김승혜
- 18-R22 위기청소년의 '조력을 받을 권리' 제도화 방안 / 유민상
- 18-R23 공공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지도사 보수체계 연구 / 최창욱 · 김기현 · 김인규
- 18-R24 청소년 통일 의식 및 북한에 대한 이미지 조사 / 이창호
- 18-R25 청소년의 장래 및 유학의식에 관한 조사 / 이창호

수 탁 과 제

- 18-R26 2017년 학교 내 대안교실 컨설팅 성과분석 / 김이성 · 오해섭 · 윤철경 · 정윤미
- 18-R27 2018년도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 / 모상현 · 정은주 · 이유진
- 18-R28 청소년회복지원시설 보호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지표 개발 연구 / 서정아 · 박선영
- 18-R29 제3차청소년보호종합대책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 / 김지연 · 백혜정
- 18-R30 2018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 윤철경 · 최인재 · 김승경 · 김성은
- 18-R31 성남시청소년재단 제3차중장기 발전계획(2019~2023) 수립 연구 / 최창욱 · 성은모 · 남화성 · 이선근 · 정은옥 · 장미희 · 김미영
- 18-R31-1 2018 성남시 청소년 실태조사 연구 / 최창욱 · 성은모 · 남화성 · 이선근 · 정은옥 · 장미희 · 김미영
- 18-R32 이주배경 청소년의 실태 및 지원 방안 연구 : 중국 출신 청소년을 중심으로 / 배상률 · 이경상 · 임지연
- 18-R33 지역아동센터 아동패널조사 2018 / 김희진 · 황진구 · 임희진 · 정윤미 · 정선욱
- 18-R34 2018 청소년수련시설 유형 개편 및 기능 개선을 위한 연구 / 최창욱 · 장근영
- 18-R35 2018년 청소년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 조사 / 김지경 · 정은진 · 연보라 · 정윤미 · 유설희
- 18-R35-1 2018년 청소년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 조사 - 통계결과표 / 김지경 · 정은진 · 연보라 · 정윤미 · 유설희
- 18-R36 청소년수련활동 인증심사원 직무분석 및 운용 개선방안 연구 / 김형주 · 김정주
- 18-R37 내일아름학교 운영모델 개발을 위한 연구 / 김기현 · 김태성
- 18-R38 직업계고 창업교육 운영 모형 개발 및 활성화 방안 연구 / 강경균
- 18-R38-1 직업계고 창업교육 운영 가이드북 / 강경균
- 18-R39 대구청소년정책 중장기발전계획 수립 연구 / 최용환 · 박윤수 · 김기영
- 18-R39-1 대구청소년정책 중장기발전계획 수립 연구 - 요약본 / 최용환 · 박윤수 · 김기영
- 18-R40 2018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효과만족도 연구 / 양계민
- 18-R41 지역사회 협력망 운영을 통한 청소년 성장지원 모델 개발연구 / 이윤주 · 오해섭 · 백승주 · 성지은 · 강지원 · 탁현우
- 18-R42 청소년의회 운영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 이윤주 · 오해섭 · 유설희
- 18-R42-1 청소년의회 운영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 청소년의회 교육과정 / 이윤주 · 오해섭 · 유설희
- 18-R42-2 청소년의회 운영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 청소년의회 가이드북 / 이윤주 · 오해섭 · 유설희
- 18-R43 이동 · 청소년의 걱정 등급 게임물 이용을 위한 기초연구 / 배상률
- 18-R44 청년정책 수립을 위한 종합연구 / 김기현 · 이윤주 · 최정원 · 유설희
- 18-R45 입법 상 연령 기준과 정책 연계성을 확보를 위한 연구 / 김기현 · 하형석 · 유민상 · 조성호
- 18-R46 금천구 청년정책 연구 / 이윤주 · 문호영

- 18-R47 청소년 비행예방 및 위기청소년 지원 종합대책 연구 / 김지연
- 18-R48 미래인개발과 교육혁신 / 장근영
- 18-R49 소년원생의 안정적 사회정착을 위한 실태조사 및 정책지원 방안 연구II - 소년원생의 사회정착지원 프로그램 효과성 분석 및 평가 / 김정숙 · 황여정
- 18-R50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실 프로그램 모듈 개발 연구(중등용) / 황세영 · 한지형
- 18-R50-1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실 프로그램 모듈 : 꿈지락(중등용) / 황세영 · 한지형
- 18-R51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인증기준 및 성과평가 방안 연구 / 김성기 · 정제영
- 18-R52 2018년 학업중단예방 및 대안교육사업 모니터링 I : 학업중단 숙려제 운영 학교 및 기관 모니터링 결과 / 김소영 · 오해섭 · 윤철경 · 임하린 · 윤혜지
- 18-R53 2018년 학업중단 숙려제 운영 실태조사 연구 / 박지영 · 서보람 · 윤철경 · 양수빈 · 이지혜
- 18-R54 대안교육 지원을 위한 법령 정비 방안 연구 / 이종태 · 박상진 · 하태욱

세미나 및 워크숍 자료집

- 18-S01 청소년 범죄의 이해와 대응방안(4/4)
- 18-S02 2018 제1차 WARDY 세미나 - Korean American Identity & the LA Riots(1/22)
- 18-S03 2018 제2차 WARDY 세미나 - 재외동포청소년 한민족정체성 함양을 위한 한국어교육 현황과 발전 방안(1/23)
- 18-S04 제1차 NYPI Lunch Bag Seminar - National Youth policy as practiced in helping nigerian youth to move forward(1/29)
- 18-S05 제3차 WARDY 세미나 - 인터넷시대의 부모와 자녀관계 및 건강실태(3/5)
- 18-S06 제2회 청소년정책포럼 : 아동 · 청소년 · 청년의 연령개념을 둘러싼 쟁점과 향후 정책과제(2/28)
- 18-S07 제3회 청소년정책포럼 : 청소년 사회참여,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가?(3/16)
- 18-S08 제4회 청소년정책포럼 : 저출산 시대, 인구절벽 해소를 위한 청소년정책의 과제(4/20)
- 18-S09 제2차 NYPI Lunch Bag Seminar - Digital disturbances in school : Experiences with restrictions on students use of mobile phones(5/4)
- 18-S10 대안학교(특성화 중 · 고 및 각종학교) 관리자 및 담당교원 연수(5/18)
- 18-S11 제5회 청소년정책포럼 : 청소년이 행복한 세상 만들기 토크콘서트(5/25)
- 18-S12 2018년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 지표(안)(5/23)
- 18-S13 Inclusive Korea 2018 국가 미래비전 설정을 위한 국제 컨퍼런스 [특별세션] 미래세대가 꿈꾸는 대한민국(5/24)
- 18-S14 2018년 학업중단 숙려제 운영 학교/지원기관 모니터링 워크숍(6/5)
- 18-S15 학업중단예방 및 대안교실 프로그램 모듈 개발을 위한 1차 워크숍(6/1)
- 18-S16 2018 학업중단예방 및 대안교육 포럼 : 공교육 내 대안교육의 정체성 및 정책 발전

방향(6/15)

- 18-S17 제6회 청소년정책포럼 : 아동·청소년을 위한 기업사회공헌활동
기업-청소년NPO-학교-정부의 다자간 협력방안 모색 (6/15)
- 18-S18 제4차 WARDY 세미나 - 몽골 청소년의 정치참여와 투표의향(6/18)
- 18-S19 2018년 시도교육청 학업중단예방 및 대안교육업무 담당자 워크숍(7/5~6)
- 18-S20 학교폭력예방 어울림 교과연계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집필진 워크숍(6/29)
- 18-S21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개원 29주년 세미나 : 지역사회에서 청소년 성장지원 어떻게 할까요?(7/18)
- 18-S22 2018년 학교폭력 예방교육 컨설팅단 워크숍(8/3)
- 18-S23 2018년 학교폭력 예방교육 운영학교 신규 담당자 연수(초등)(8/1)
- 18-S24 2018년 학교폭력 예방교육 운영학교 신규 담당자 연수(중등)(8/2)
- 18-S25 제7회 청소년정책포럼 : 청소년 통일외식 함양 및 통일교육 활성화 방안(8/17)
- 18-S26 제8회 청소년정책포럼 : 해외의 소년 범죄 대응 전략과 시사점(8/24)
- 18-S27 학교폭력 예방프로그램 운영 업무담당자 워크숍(9/7)
- 18-S28 학교폭력 예방프로그램 운영학교 워크숍(초등)(9/28~29)
- 18-S29 학교폭력 예방프로그램 운영학교 워크숍(중등)(10/5~6)
- 18-S30 2018년 교육과정기반 학교폭력예방프로그램 활용방안 교사연수(10/1~2)
- 18-S31 2018년 학교폭력 예방교육 운영학교 워크숍(10/2)
- 18-S32 제9회 청소년정책포럼 : 4차 산업혁명시대, 청소년활동정책의 길찾기(9/28)
- 18-S33 제10회 청소년정책포럼 : 청소년수련시설 유형개편 및 기능개선 방향(11/16)
- 18-S34 제11회 청소년정책포럼 : 「2018 포용사회 조성을 위한 진로교육활성화 포럼」 (11/19)
- 18-S35 제12회 청소년정책포럼 : 미래 한국사회 다문화청소년정책의 방향과 모색(12/12)
- 18-S36 2018 학업중단예방 국제포럼 - 학업중단예방의 국제적 동향과 전망 : 학교 안과 밖의
소통과 연계(11/26)
- 18-S37 지역사회 협력망을 통한 청소년 성장지원모델 개발(12/10)
- 18-S38 국회 정책 토론회 : 교육의 국가 책임성 강화를 위한 대안교육제도 개선 방안(12/18)

학 술 지

「한국청소년연구」 제29권 제1호(통권 제88호)

「한국청소년연구」 제29권 제2호(통권 제89호)

「한국청소년연구」 제29권 제3호(통권 제90호)

「한국청소년연구」 제29권 제4호(통권 제91호)

기 타 발 간 물

-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95호 :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 사례조사 및 특성화 요인 분석
-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96호 : 20대 청년들의 사회활동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97호 : 인구절벽 현상과 청소년정책의 과제
-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98호 : 학교 밖 청소년 이행경로에 따른 맞춤형 대책연구 II
-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99호 : 청소년의 지역사회 참여 모형개발 연구
-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100호 : 청소년보호정책 현황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101호 : 청소년수련시설의 공공성 제고를 통한 운영 활성화 지원방안 연구
-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102호 : 학교폭력 피·가해학생간 효율적 화해·분쟁조정을 위한 연구
-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103호 : 공공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지도사 보수체계 연구
-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104호 : 위기청소년의 ‘조력을 받을 권리’ 제도화 방안
-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105호 : 청소년의 통일인식 및 북한에 대한 이미지 조사
-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106호 : 단 1명의 학생도 놓치지 않는 포용적 교육사회를 실현하려면
-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107호 : 청소년 세계시민의식 함양을 위한 국내외 정책 현황 및 시사점
-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108호 : 미래인재 개발 전략으로서 재외동포청소년 지원 방안 연구 III
-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109호 : 아동·청소년·가족 보호 통합게이트웨이 구축·운영 모형 개발 연구
-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110호 : 청소년의 장래 및 유학의식에 관한 조사
-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111호 : 청소년지도사 배치지원 사업 현황과 개선방안
-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112호 :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KCYPs)2018: 추진 현황 및 정책 기여
- NYPI Bluenote 통계 39호 :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조사 연구 IV
- NYPI Bluenote 통계 40호 : 다문화청소년 발달 추이 분석-일반청소년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 NYPI Bluenote 통계 41호 : 2017년 청년 사회·경제실태조사
- NYPI Bluenote 통계 42호 : 2017년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
- NYPI Bluenote 통계 43호 : 소년범죄자의 재범 실태 조사
- NYPI Bluenote 통계 44호 : 제2차 국제 시민성 및 시민의식연구(ICCS 2016) 결과
- NYPI Bluenote 통계 45호 :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2010 유지조사

연구에 도움을 주신 분들

◆ 집필진 ◆

이 계 오 (한국갤럽조사연구소 자문교수)

다문화청소년 종단연구 2018: 신규패널설계보고서

인 쇄 2018년 12월 23일

발 행 2018년 12월 30일

발행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발행인 송 병 국

등 록 1993. 10. 23 제 21-500호

인쇄처 나누리기획 전화 044)866-0671

사전 승인없이 보고서 내용의 무단전재·복제를 금함.

구독문의 : (044) 415-2125(학술정보관)

ISBN 979-11-5654-211-7



연구보고 18-R14-1

다문화 청소년 종단연구 2018

: 신규패널설계보고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사회정책동(D동)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6/7층
Social Policy Building, Sejong National Research Complex,
370, Sicheong-daero, Sejong-si, 30147, Korea
Tel. 82-44-415-2114 Fax. 82-44-415-2369 www.nypi.re.kr

